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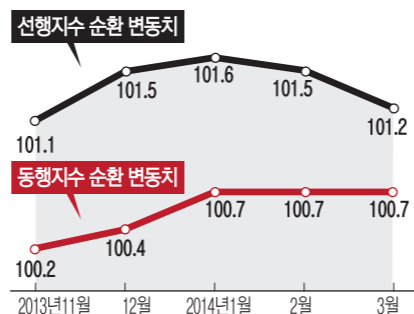
따로 노는 지표... '반쪽짜리' 경제회복세

경기선행·동행지수간 괴리... '세월호' 여파 소비위축 우려
4월 BSI도 후퇴... 수출 503억 달러 호조 그나마 버팀목

한국 경제가 반쪽짜리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추세적으로 경기흐름은 나아지고 있지만 회복세를 이어갈 추동력이 부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바람에 미래의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들은 이미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실상상으로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우려까지 겹치고 있다. 그나마 4월 수출 규모가 월간 역대 두 번째를 기록하는 등 강력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외변수 역시 리스크가 커지면서 2분기 한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미래의 경기 흐름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의 전년 동월 대비 전월차는 1월 0.1포인트

증가했다가 2월 0.1포인트 하락한 데 이어 3월 0.3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3월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구성 지표 증감률은 9개 항목 중 소비자기대지수와 수출입물가비율, 장기간 금리차를 뺀 나머지 6개 항목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년 동월 대비 전월차는 1월 0.3포인트 증가한 데서 2월과 3월 보합세를 보였다. 선행지수와 동행지수 간의 괴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경기회복 과정이 상당히 느리게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회복 속도도 문제다. 경제회복의 동력은 소비와 투자에서 나온다지만 올해 1분기 소비는 전 분기 대비 0.4% 늘어나는 데 그

경기선행·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출처: 통계청



쳤다. 증가율은 2012년 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1%를 밑돌았다. 1분기 설비투자도 지난 분기보다 5.1%나 감소했다. 3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0.9% 증가해 석 달 만에 반등했지만 반도체 및 부품 생산이 평균(0.4%)을 크게 웃도는 5.1%의 증가율을 보인 데 큰 힘을 받았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경기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회복세가 약한 것도 사실"이라며 "외수시장은 좋지만 소비와 설비투자 지표가 부진한 것이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경기전망을 더욱 어렵게 할 복병도 있다. 세월호 사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4월 BSI 실적치는 95.8로 전월의 100.7에 비해 크게 후퇴했다. 조사 대상 기업의 71.4%가 세월호 참사 이후 당면한 결과를 답하 하루 전인 지난 29일 발표한 내용이 다. 4월 소비자물가는 1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1%대 증가율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은 더욱 희망봉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14년 4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우리 수출이 월간으로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하는 503억 15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44억 62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7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전민정 기자 puri21@

노동절 연휴 중관객 대거 입국



중국인 관광객 '요우커(遊客)'들이 중국의 노동절 연휴가 시작된 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왼쪽). 이번 연휴 동안 중국인 관광객 7만여명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세월호 참사로 애도 속에 차분한 분위기이지만 최장 6일의 황금연휴를 해외에서 보내려는 여행객들로 출국장이 붐비고 있다. 인천공항=노진환 기자 mylfixer@

애도 분위기 뒤로하고 복직이 출국장



인근공항=노진환 기자 mylfixer@

유명언론 금융거래 '현미경 특검'

금감원, 거액대출 현대캐머셜·더케이저축銀도 대상 올려

최수현 "비리 발본색원" 특명

금융당국이 유명언론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정해진해운 관계사에 대한 대출과 관련해 특별검사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은행과 신탁에 이어 여신금융회사, 저축은행도 검사 대상에 올랐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측은 지난 30일 현대캐머셜과 더케이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특검에 착수했다. 현대캐머셜은 정해진해운 관계사인 온 지구 등에 잔액 기준으로 17억원을 대출해줬다. 더케이저축은행도 관계사 1곳에 25억원을 빌려줬다. 앞서 금감원은 유 전 회장 일가족, 정해진해운을 대상으로 불법 외환거래를 조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의 관계사들에서 수상한 돈거래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금감원은 유 전 회장 일가가 불법으로 해외 자산을 취득하고 투자하는 데 이들 계열사가 이용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이들 기업이 해외 부동산 취득

시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현재 경남·기업·산업·우리는행 등 시중 은행 4곳과 구원과가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탁 10개 중 7곳이 특검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금감원의 '중앙수사부'로 불리는 기획감사국이 진행되고 있다. 이 부서는 최근 금감원이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된 부서다. 상시 감시시스템 등을 통해 이상징후가 포착되면 불시에 검사를 진행한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기획감사국으로 모든 인력과 자원을 집중해 유명언론 전 회장 일가와 정해진해운을 둘러싼 금융권 비리 가능성을 발본색원하라고 긴급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선현 기자 sunhyun@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Graphic NEWS

일반 임금근로자 절반 월 수입 200만원 미만

* 출처: 통계청(2013년 하반기 기준)

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 비율 (단위: 천명, %)
100만원 미만: 2386 (12.9%)
100~200만원 미만: 6985 (37.8%)
200~300만원 미만: 4493 (24.3%)
300~400만원 미만: 2374 (12.8%)
400만원 이상: 2251 (12.2%)

공기업 직원 평균 연봉 6700만원

(단위: 만 원)

기업종류	연봉 (만원)
한국거래소	1억1200만
한국예탁결제원	1억1000만
신용보증기금	1억
한국투자공사	9800만
코스콤	9700만

일반 근로자 '쥐꼬리' 설움

금융생활자의 절반 이상이 월 200만원도 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1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월 임금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937만1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중 50.7%에 달했다. 100만~200만원 미만이 37.8%(698만5000명), 100만원 미만인 근로자도 12.9%(238만6000명)나 됐다. 전민정 기자 puri21@

공기업 독특한 월급봉투

지난해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 연봉은 6700만원이었으며 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1억63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통합 공시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 연봉은 6700만원으로 2012년보다 1.7% 증가했다. 기관장의 평균 연봉은 1억6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금융산업 경쟁력 높이려면 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

본지 '금융규제 개혁 토론회' "정부보다 주주 역할 커져야"



"금융산업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난달 30일 이투데이가 주최한 '금융규제 개혁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들은 이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성장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지 않으면 금융업 경쟁력과 수익 구조 개선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한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융규제 완화와 관련한 선행조건 △어떤 규제를 없애야 하나(인허가, 상품·영업, 자산관리·운용, 지배구조, 사회적 역할) 등의 주제를 놓고 금융당국과 연구소, 금융업 종사자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 무엇보다 이날 토론은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당국과 규제를 따라야 하는 금융회사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의미 있는 결과물이 만들어졌다. 총 500여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금융업이 자금을 관리하

는 특수성 때문에 여러 규제를 피할 수는 없지만 금융업 전반에 숨어 있는 불필요한 규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규제 완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제 금융 규제가 많은 게 사실"이라며 "이런 토론회의 내용을 적극 검토해 향후 규제완화 작업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권은 다소 회의적 반응도 있었다.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시장 간의 원활한 소통이 가장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직까지 당국과 시장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여전한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금융 종사자들이 관치금융 근절 대책이 부족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도 이를 방증한다. 정부의 과도한 개입보다는 주주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회의 키워드가 '금융당국과 업계가 공감하는 과감한 규제 완화'로 제시된 이유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토론회 총평에서 "금융당국은 시장·소비자의 요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규제와 현실 규제와의 괴리가 있음을 느꼈다"고 평했다. 이어 이 교수는 "규제 자체가 나쁜 게 문제지만 규제를 받지 않 받들지 못한다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나"면서 "주관적 규제는 가능한 피해"라고 덧붙였다. 안철우 기자 acw@

연준 통화정책 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9년 9월 1차 양적완화(QE), 1조4500억 달러 규모 채권 매입 2010년 11월 2차 QE, 6000억 달러 규모 국채 매입 2012년 3월 초저금리 2년간 유지 결정 2013년 10월 10월까지 7차례 FOMC시 월 850억 달러 자산 매입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9년 12월 12월 자산매입 규모 750억 달러로 100억 달러 축소 2014년 1월 자산매입 규모 650억 달러로 축소 2014년 3월 자산매입 규모 550억 달러로 축소 2014년 4월 자산매입 규모 450억 달러로 축소
--	---

벤 버냉키 (왼쪽) / 제트 앨런 (오른쪽)

"월 자산매입 100억 달러 또 축소" 만장일치 美 연준, 경기 낙관...제로금리 유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30일(현지시간) 이를 통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치고 자산매입 규모를 월 450억 달러(약 46조원)로 100억 달러 축소했다. ▶관련기사 2면 이에 따라 5월부터 연준의 모기지 채권 매입 규모는 200억 달러로, 국채 매입 규모는 250억 달러로 줄게 됐다. 연준은 이날 자산매입 규모 축소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연준은 기준금리인 연방기금목표금리는 0-0.25%로 유지했다. 연준은 경제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연준은 FOMC 성명에서 "경제활동이 최근 살아났다"면서 "고용시장은 더욱 개선됐다"고 진단했다. 성명은 또 "소비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연준은 금리인상과 관련해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종료한 뒤 상당 시간 제로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시장은 연준이 오는 10월 또는 12월 양적완화(QE)를 종료하고 내년 중순 또는 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준은 앞서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그리고 제트 앨런 의장이 처음 주재한 3월 FOMC에서 QE 규모를 각각 100억 달러씩 줄이는 테이퍼링(tapering)을 실시했다. FOMC 결과가 전해진 뒤 뉴욕증시는 상승세로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이날 45.47포인트(0.27%) 오른 1만6580.84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S&P500 지수는 0.30% 올랐고 나스닥 역시 0.27% 상승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Life 목요일 17~21면

커버스토리
전세대란 꺾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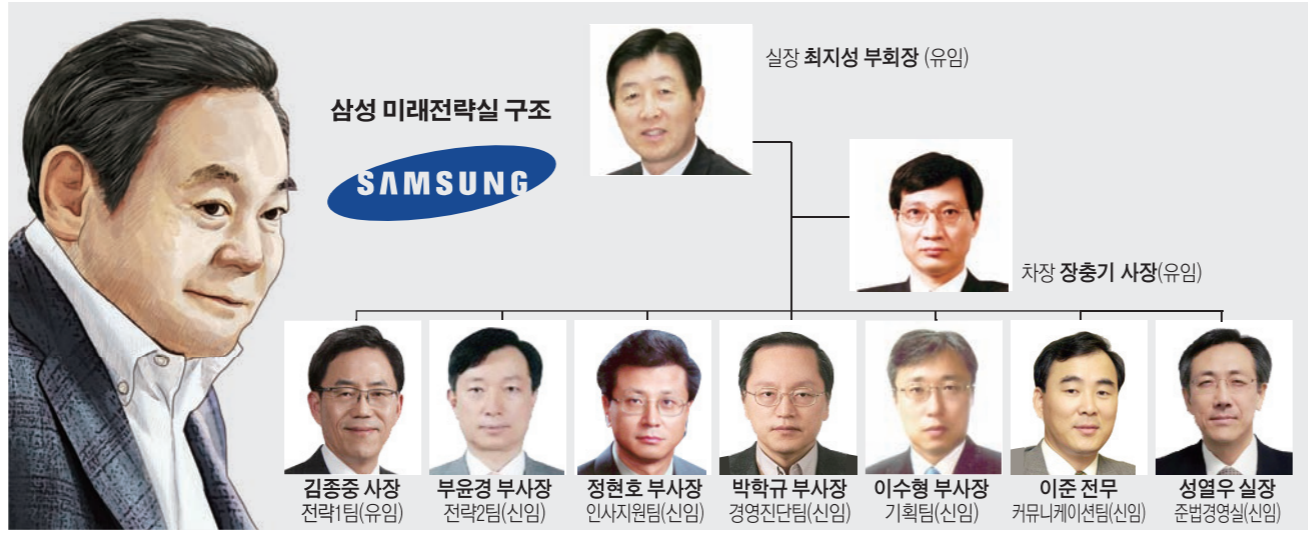
황창규 회장

양은석 부장

“현장에 힘 실어라”... 이건희 ‘마하경영’ 속도

〈삼성 회장〉

귀국 2주만에 컨트롤타워 새 판 미래전략실 팀장급 6명 교체 베테랑 임원 ‘전자’에 전진 배치 실적부진 비전자계열 모두 교체 ‘성과주의 원칙’ 적용 해석도



이건희 회장이 귀국 2주 만인 지난달 30일 삼성의 컨트롤타워인 ‘삼성미래전략실’의 새판을 짰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김종중 전략1팀장(사장)을 제외한 팀장급 인사 6명이 교체된 대대적 개편이다.

미래전략실은 그룹 사업별로 전략팀(전자), 전략2팀(비전자), 금융일류화추진팀(금융TF)이 업무를 분담해 큰 틀을 짜는 구조로 이뤄져 있다.

이번 인사로 미래전략실은 △인사지원팀장 정현호 경영진단팀장 부사장 △전략2팀장 부윤경 삼성물산 기계플랜트사업부 부사장 △커뮤니케이션팀장 이준 삼성전자 기획팀 전무 △기획팀장 이수형 준법경영실 부사장 △경영진단팀장 박학규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지원팀장 △준법경영

실장에 성열우 준법경영실 부사장이 각각 새롭게 합류했다.

삼성 미래전략실 팀장급을 계열사로 전진 배치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간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던 정금융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장은 삼성전자 인사팀장으로, 이인용 커뮤니케이션팀장은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장으로, 김상균 준법경영실장은 삼성전자 법무팀장으로 각각 이동했다.

이 같은 자리 이동은 삼성의 중추인 삼성전자를 필두로 마하경영에 속도를 내라는

이 회장의 의지로 해석된다. 중량급 있는 핵심 인물을 쫓다 현장에 가깝게 포진시켜 변화와 혁신을 이뤄 내라는 주문이라는 것.

이번 결정에 대해 한편으로는 ‘성과주의 원칙’이 깔려 있다는 시각도 많다. 성과주의 원칙은 그간 삼성의 인사에 가장 큰 기준으로 적용돼 왔다.

이번 인사를 살펴보면 최지성 실장과 장충기 차장을 제외하고 유임된 인물은 전자 분야를 맡는 전략1팀의 김종중 사장뿐이다. 비전자계열은 모두 교체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 1분기까지 삼성전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계열사 실적이 부진했던 만큼 이 회장이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출렁 현상은 지난해부터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인사는 비전자계열사를 살리기 위한 신상필벌 원칙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연초에 “다시 한번 바뀌라”며 고강도 혁신을 주문했다. 그는 귀국하자마자 삼성의 ‘미래’를 위해 ‘미래전략실’부터 바꾸는 강수를 둔 셈이다.

장효진 기자 js62@

더딘 경기회복에도 ‘매파’ 변신한 엘런

〈연준 의장〉

제닛 옐런(사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핵심은 예상과 다르지 않았다. 연준은 30일(현지시간) 이를 동안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치고 자산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테이퍼링(tapering)을 이어갔다. 월가는 FOMC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테이퍼링에 합의한 것은 그만큼 경제 회복에 대해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연준은 FOMC 성명을 통해 고용시장과 소비지출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성장률이 정체됐다는 평가가 나왔는데도 연준은 경기를 낙관적으로 평가하면서 테이퍼링을 이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도 크게 나쁘지 않았다.

상무부는 이날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가 연율 0.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블룸버그를 통한 월가 전망치 1.2%는 물론 전 분기의 2.6%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다.

기업들이 지출을 줄이면서 성장 부진을 이뤘었다. 특히 기업들이 1분기에 장비비 사들이는 데 쓴 돈이 5.5%나 줄었다. 이는 5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올 초 축환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기업들의 씀씀이가 예상보다 많이 줄어든 셈이다.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지출은 1분기에 3.0% 늘었다. 이는 전 분기 3.3%에 비해 0.3%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주택건설 투자는 5.7% 줄면서 2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재고는 874억 달러 늘어난 데 그쳤다.

고용지표는 양호했다. 민간고용조사 기관 오토매트데이터프로세서(ADP)는 4월 민간고용이 22만 건 늘었다고 발표

했다. 이는 월가 전망치 2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5개월 만에 최대폭의 증가세다. ADP의 민간고용 수치 개선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치고 자산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테이퍼링(tapering)을 이어갔다. 월가는 FOMC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테이퍼링에 합의한 것은 그만큼 경제 회복에 대해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연준은 FOMC 성명을 통해 고용시장과 소비지출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성장률이 정체됐다는 평가가 나왔는데도 연준은 경기를 낙관적으로 평가하면서 테이퍼링을 이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주식시장의 반응도 크게 나쁘지 않았다.

상무부는 이날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가 연율 0.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블룸버그를 통한 월가 전망치 1.2%는 물론 전 분기의 2.6%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다.

기업들이 지출을 줄이면서 성장 부진을 이뤘었다. 특히 기업들이 1분기에 장비비 사들이는 데 쓴 돈이 5.5%나 줄었다. 이는 5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올 초 축환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기업들의 씀씀이가 예상보다 많이 줄어든 셈이다.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지출은 1분기에 3.0% 늘었다. 이는 전 분기 3.3%에 비해 0.3%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주택건설 투자는 5.7% 줄면서 2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재고는 874억 달러 늘어난 데 그쳤다.

고용지표는 양호했다. 민간고용조사 기관 오토매트데이터프로세서(ADP)는 4월 민간고용이 22만 건 늘었다고 발표

했다. 이는 월가 전망치 2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5개월 만에 최대폭의 증가세다. ADP의 민간고용 수치 개선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치고 자산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테이퍼링(tapering)을 이어갔다. 월가는 FOMC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테이퍼링에 합의한 것은 그만큼 경제 회복에 대해 자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美연준 ‘추가 테이퍼링’ 결정 GDP성장률 예상 밀돌지만 고용·소비지출 회복세 낙관 ‘양적완화 연내 종료’ 전망도

이번엔 보안업무 일원화... 황창규 ‘싱글KT’ 고삐

〈KT 회장〉

DS에 “그룹 보안 담당” 제의 개인정보 유출 따른 강화 조치 각 계열사 통합 의지 분석도



황창규(사진) KT 회장의 ‘싱글KT’를 향한 행보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최근 KT미디어허브를 재합병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오는 6월계 계열사 조직개편을 앞두고 KT 그룹의 보안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보안업무 강화라는 측면도 있지만, 각 계열사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황 회장의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황 회장은 지난달 중순께 IT서비스 계열사인 KT DS 측에 “전체 KT그룹사의 보안을 담당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현재 계열사별로 독립 운영되던 보안업무를 일원화하

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올 초 고객정보 유출사고 등 취임 직후 일련의 보안사고를 겪었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분석된다.

KT는 지난 3월 홈페이지 해킹으로 약 87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큰 곤욕을 치른 바 있다. 해커가 3개월간 서버에 1266만번을 접속했는데도 이마저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돼 황 회장은 대국민 사과

에 나서야 했다. 때문에 오는 6월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계열사 조직개편도 보안을 강화하는 분위기로 추진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KT DS도 최근 보안 테스크포스(TF)를 구축해 KT 본사와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 기존 보안팀을 센터로 승격시키는 방식의 내부 조직개편도 검토하고 있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KT DS가 그룹사 보안을 위탁하는 개념인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보안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은 책임과 관리부담에서 효율적인 뿐만 아니라 독립성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 분사정책을 주로 추진했던 이석채 전 회장과 달리, 황 회장은 통합을 중시하는 집중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황 회장은 취임 이후부터 ‘싱글KT’를 외치고 있다. KT와 전 계열사가 한 몸처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글로벌 1등 KT를 실현할 수 있다는 ‘통합의 철학’이다. 이번 보안업무 일원화 움직임은 물론, 최근 미디어허브 사업 개편 차원에서 KT미디어허브를 재합병하기로 결정한 것도 황 회장이 주창한 싱글 KT의 연장선상이다. KT 미디어허브는 1년 6개월 전 이석채 전 회장이 미디어를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분사시킨 회사다.

지난달 29일 단행된 분사 조직개편에도 황 회장의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KT는 전국 236개 지사를 79개로 통폐합했다. 지사를 줄이는 대신 광역화시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황 회장이 향후 계열사 조직개편에도 상당 부분 통폐합을 진행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2009년 30여개에 불과했던 KT 계열사가 이석채 전 회장 취임 이후 54개까지 늘어난 상태여서 황 회장의 메시가 상당 부분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영 기자 thec98@

피로가 몰려온다면...
베콤씨로
영양부터 챙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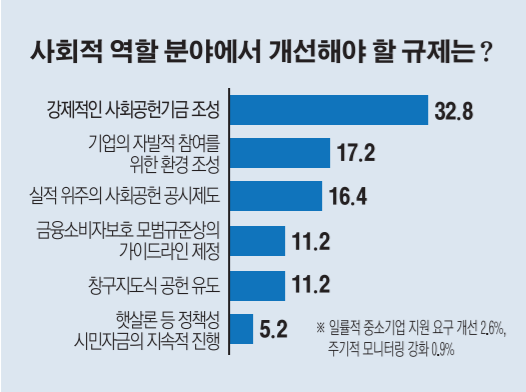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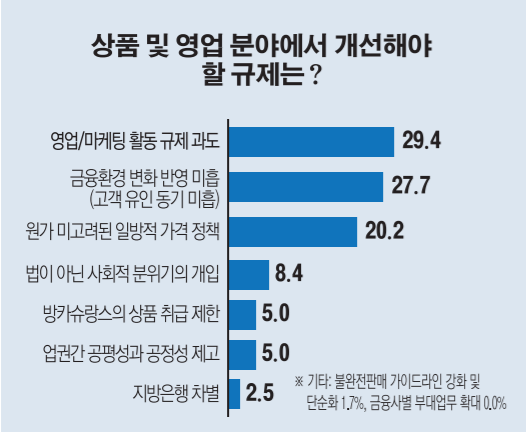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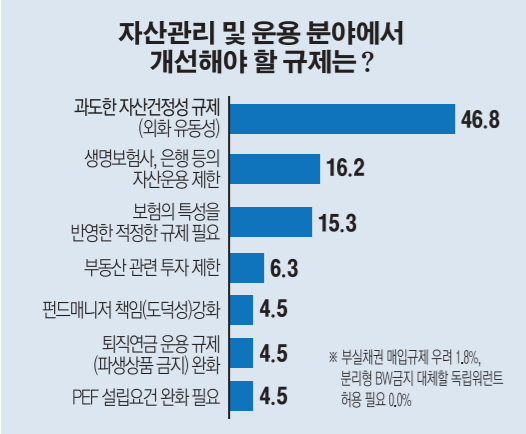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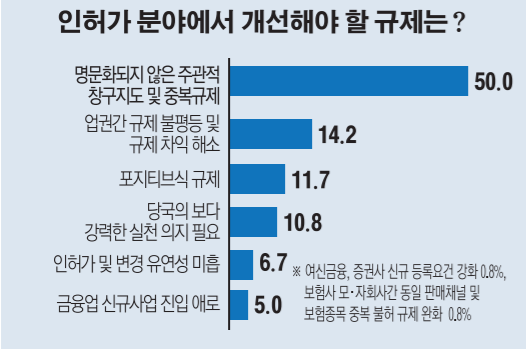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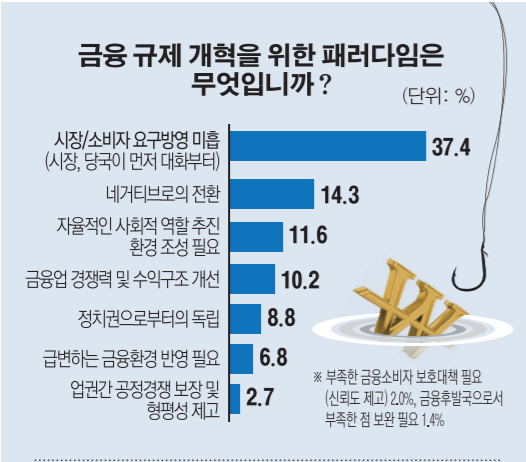
내일을 바꾸는 온가족 영양제
베콤씨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쉽게 피로해져서 걱정인가? 몸에 필요한 영양이 충분히 채워지지 못하면 지치고 피로해지기 쉽습니다. 하루 두 알씩, 몸에 필요한 비타민B와 C에 항산화성분까지 채운 베콤씨로 영양균형도 잡고 피로도 잡으세요.

신용의 상징 - 비둘기표 유한양행
www.yuhan.co.kr
광고심의필 : 1248-0100

*인터넷 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본시약은 의약품으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유한양행 소비자 상담실 080-024-1188 (수신자 요금부담)

“금융시장 변화 반영 과감한 규제 완화...소통이 최우선”



‘금융 개혁 어떻게’ 토론회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국과 업계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지난달 3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이투데이 주최 ‘금융규제 개혁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가한 금융권 관계자들의 발언이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관계자, 은행, 증권, 보험, 여신,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전 업권을 대표하는 금융 종사자 등 총 130여명이 참석해 열린 토론회를 펼쳤다.

인허가, 자산운용, 상품 및 영업, 지배구조 및 사회적 역할 등 총 5개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의 키워드는 ‘금융당국과 업계가 공감하는 과감한 규제 완화’로 요약됐다.

◇‘규제 일몰제 도입... 수시 청구지도 최소화해야’ = 인허가 규제와 관련해 대다수 금융권 관계

인허가·자산운용 등 5개 주제로 진행 금융권 종사자들 “규제 과도” 일성

RBC규제 등 유연한 적용 필요 강조 관치금융 근절대책 미흡 의견도 내놔

자들은 “유연성 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A은행 관계자는 “인허가시 효율과 상품문구 변경 등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고 있다”며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규제를 재검토하거나 없애는 규제 일몰제를 도입해 수시로 이뤄지는 청구지도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유권해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B생보사 관계자는 “시장논리에만 맡긴다면 소비자 논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불합리한 부분은 도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복 규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C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미 BIS비율로 건전성을 점검하고 있는데, 직접 설치 제한까지 하는 건 이중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RBC 등 추가 개선 필요’ = 자산운용 규제와 관련해 금융업 종사자들은 금융회사에 대한 당국의 자산건전성 규제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D생보사 관계자는 “지급여력비율(RBC) 규제를 당사자와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생보사나 은행 등의 자산운용 제한을 풀어달란 목소리도 높았다. E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자산상품 운용규제(50%)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금융기관 소유 부동산의 유희공간 임대 등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사에서는 파생상품 운용에 대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영업·마케팅 활동 규제 과도’ = 상품 및 영업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와 코리아스피커가 주최하는 2014 금융토론회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금융규제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가운데 금융종사자 130여명이 참석해 열린 토론회를 펼쳤다.

부분에서는 상품 규제 및 영업활동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H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억제 등의 근거는 통계의 오류에 의한 것이 많고 DTI, LTV 등 규제 절차가 많아 금융종사자의 징계 가능성이 높다”면서 “판매촉진비 제한 등 소소한 제한도 많은데 규제의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큰 규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가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금리인하 정책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생보 관계자는 “가격 재설정시 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부분 등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손실을 사측이 부담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규제가 사회적 분위기나 관련 법 해석에 상

충되는 부분은 당국이 확실하게 가이드라인을 세워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관치금융 근절 대책 미흡’ = 지배구조 부분에서 관치금융 근절 대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K은행 관계자는 “금융기관 신뢰도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지배구조다”며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문제다. 주주의 역할이 보다 커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규모와 여건을 고려한 지배구조 규제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L손보사 관계자는 “계열사간 거래가 있을 때 금융위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 거래 기준 금액이 실제 기업의 규모에 비해 너무 낮다”고 말했다.

◇‘강압적 사회기금 조성 지양’ = 토론 참가자들은 금융권의 강제적 사회기금 조성은 지양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회기금이 타의에 의해 조성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의 참여 의지를 떨어뜨린다는 주장이다. A은행 관계자는 “당국 주도로 사회기금을 조성하면 금융회사에겐 실익이 없다”며 “홍보 효과도 없고 기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잘 알지 못하게 돼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B손보 관계자는 “사회기금조성이 걸치레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회사 종사자들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금융권·당국 “규제개혁 공감의 장 됐다”

심도있게 의견 나눠...참심·유익 ‘숨은 규제’는 논의 안돼 아쉬워

“단순한 토론회인 줄 알았는데, 금융당국과 함께 규제에 대해 티끌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30일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금융규제 개혁 토론회에 참석한 은행, 증권, 보험, 여신금융, 저축은행 관계자들은 토론회 방식이 참신하고 유익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업계 참석자들은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함께 ‘규제 개혁’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서로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나눌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제 같은 자리에서 금융회사 실무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규제 관련 의견들을 접할 수 있었다”며 “당국의 입장에 대해 전달하고 규제 완화가 가능한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A증권사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금융규제 개혁에 실질적인 완화를 추진하는 분위기에 맞춰 금융당국과 업계간 보다 합리적으로 규제 조정을 위

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규제를 개혁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일방적 규제 강화나 규제 완화가 아닌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 데 의견을 같이해 유익했다”고 말했다.

B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의 진행이 매끄럽고 신선했다”며 “이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서 토론회하다 보니, 기존 생각들을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계 참석자들은 금융당국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규제와 관련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C생보사 관계자는 “사실 업계 의견을 당국에 말하기는 조심스러우나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며 “당국 입장에서도 수용하기에 수월했을 것으로 생각해 토론회 시도 자체가 좋았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민감한 사항들에 대해 속 시원하게 티끌고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귀찮았다.

D여신금융사 관계자는 “이미 알고 있던 내용에 대해 관계자들이 발표해 충분히 공감은 했다”며 “손톱 밑 가시와 같은 숨은 규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실의 벽을 실감했다”고 토론했다.

이재현 기자 nfs0118@

피부의 다섯 가지 균형을 바로잡아야 속부터 우러나는 촉촉한 윤기를 얻는다

여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음의 기운이 부족해져, 피부의 윤기를 잃게 됩니다. 피부 속 부족한 기운을 채워, 흐트러진 피부 균형을 맞춰주는 설화수 윤조에센스 - 귀한 원료들의 조화로 탄생한 자음단이 생기, 탄력, 투명, 자생력, 영양까지 피부의 다섯 가지 균형을 맞춰 건강한 피부에서 우러나는 촉촉한 윤기를 완성해줍니다. 이제 걸로만 빛나는 윤기를 넘어 피부 깊이 차오르는 윤기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피부 속부터 건강하게 우러나는 촉촉한 윤기로, 피부의 격이 한층 더 높아집니다.

근본에서 찾은 더 좋은 대담, 설화수 윤조에센스

Sulwhasoo

• 유명백화점이나 이모레 키오스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kr • https://www.facebook.com/sulwhasoo.kr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

작년 목표치 4조 미달 올해도 18조7000억원

공약가계부 '빨간불'

예산 허리띠 더 조인다

유사·중복 600개 사업 통폐합

군사시설용지는 전량 매각하기로

안전·복지·문화예산만 확대

정부가 내년 이후 예산절감 노력을 강화 하되 세월호 사고와 같은 재난 대비를 위한 안전예산과 복지예산, 문화예산은 확대하기로 했다.

예산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는 우선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축소하고 600개의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군용유류지의 매각도 활성화해 도심지 주변

의 군사시설용지는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운용전략 등을 논의했다.

◇ 세출절감 절실...공약가계부 목표치 4조원 미달 = 정부의 예산 여건은 갈수록 빠듯한 상황이다.

가계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출절감액은 약 5조원으로 당초 공약가계부 목표치 9조5000억원에 4조원 이상 미달했다. 임기 내 84조1000억원의 세출절감 목표를 달성하려면 올해 새로 18조7000억원을 줄이기로 한 것에 지난해 미달된 4조원을 추가로 줄여야 하는 이중고까지 생겼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박근혜 정부 임기 내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미만에서 안

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유지했다.

이를 위해 국무위원들은 예산편성부터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페이코(pay-go) 원칙 확립 등 재정 혁신 노력을 강화해 허리띠를 잔뜩 졸라매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분야 예산은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기초연금 본격 시행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복지예산 분야, 문화재정 2% 달성을 위한 문화분야 예산의 투자비중은 늘리기로 했다.

◇ 도심지 주변 軍유류지 전량 매각... 재정확충 = 회의에서는 재정사업을 재설계하기 위한 각 부처의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기됐다. 우선 군사시설용지의 매각 방안이 나왔다.

정부에 따르면 전국의 군용지 가운데 활용 가능성이 거의 없는 유류지는 여의도

14배 면적인 3988만㎡에 달한다.

정부는 이들 용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통해 민간 매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도심지 주변의 유류지는 전량 매각을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R&D(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기술북극방'(중개인)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GDP 대비 R&D 투자 비중(4.36%)이 세계에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화 비율이 27.1%에 그친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재 연구기관에 직접 지원을 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기업이 중개인을 통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찾은 뒤 사업화가 결정되면 지원하는 방식 등이 고려된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 핵심사업으로 올해에만 3조3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정부 3.0' 사업도 전면 재기획한다.

유종현 기자 lamuzia@

한계기업 33%가 부동산·건설업

3년새 900곳 이상 늘어

작년말 2965곳 집계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으로 대출 이자도 내기 어려운 한계기업이 금융위기 이후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기업 3곳 중 1곳은 부동산·건설업체였다.

한국은행이 30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계기업 수는 2009년 말 2019곳에서 2012년말 2965곳으로 늘었다. 외부감사 대상이자 12월 결산인 비금융법인 가운데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0.2%에서 15.0%로 높아졌다.

한계기업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비율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기업이다.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가 3년간 이어졌다는 의미다.

업종별로는 경기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건설업의 한계기업이 각각 739개와 255개 등 994개로 전체의 33.5%를 차지했다. 도·소매업(8.0%)과 운수업(7.0%)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해 말 한계기업 중에서는 2002~2011년 이미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적이 있는 '만성적 한계기업'이 76.1%로 대부분

을 차지했다. 만성적 한계기업은 부문별로는 부동산·건설업이 35.1%에 달했고,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한계기업 수가 2012년 말 기준 2428개로 대기업(537개)의 4.5배 규모였다.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수익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한계기업이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2011~2013년 매출액영업이익률 3% 미만(적자기업 포함)인 기업 비중은 6.0%포인트 높아진 반면, 매출액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인 기업 비중은 4.4%포인트 낮아졌다.

한편 한은은 보고서에서 가계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악화돼 사교육비 축소 등 가계 수지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가계 지출에서 주거비, 교육비, 공적연금·사회보험 및 의료·보건비 등 가계가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26.4%에서 지난해 29.0%로 늘었다. 주거비는 같은 기간 7.8%에서 8.2%로, 공적연금·사회보험 및 의료·보건비는 9.8%에서 12.1%로 각각 높아졌다.

그러나 민간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80.6%에서 2012년 72.8%로 오히려 떨어졌다.

김미영 기자 bomnal@

임시국회 마지막날

내일 법안 무더기 처리

'의원 겸직 완화'도 끼워 넣으

국회는 오는 2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크루즈산업육성법'(크루즈법),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등 최근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을 처리한다.

세월호 참사로 미뤄왔던 법안을 막판에 무더기 처리하면서 혼란을 틈타 '국회의원 겸직 완화'와 같은 암채안을 슬그머니 끼워 넣기도 했다.

크루즈법 제정안은 2만톤 이상 크루즈 선박에서 외국인에 한해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은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분양가상한제지법, 자본시장법 등과 함께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온 '5대 경제 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유일하게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크루즈법은 애초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장기간 표류해왔으나 동북아 크루즈 산업을 한국이 장악하려 선상 카지노 허용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면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은 작년 5월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이후 근 1년 만에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왔다.

이 법안은 △제조사도 휴대폰 보조금 규제 대상 포함 △휴대폰 출고·보조금·판매가 공시 △휴대폰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 가능 △휴대폰 보조금과 연계한 고가 요금제 강제 금지 등을 담고 있다.

김익중 기자 zerg@



총영사-기업인 해외진출 상담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4단체는 30일 롯데호텔에서 외교부와 공동으로 '총영사-기업인 일대일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담회에는 건설, 무역, 정보통신 등 80여개 대·중소기업과 해외주재 총영사 45명이 참가해 건설·플랜트 수주지원, 수출입 정보제공 요청, 진출계획 설명, 현지시장 애로요인 해소요청 등 총 146건의 개별상담을 벌였다. 연합뉴스

4월 소비자물가 1.5% 상승... 8개월만에 최고

저물가 기조는 18개월째 계속

지난 4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1.5% 오르며 지난해 8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11월부터 18개월 연속 1%대 상승률을 나타내 저물가 기조는 이어졌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 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1.5% 올라 작년 8월(1.5%)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전달에 비해서는 0.1% 오른 수준이다.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는 작년 10월 0.9%에서 11월(1.2%) 1%대로 올라선 후, 12월과 올해 1월 1.1%, 2월 1.0% 등으로 내리막을 타다가 1.3%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석유나 농산물 등 변동폭이 큰 요소를 뺀 근원물가는 전년 대비 2.3% 올라 2년 2개월 만에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달과 비교해서는 0.2%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에너지제외지수도 작년 같은 달보다 1.9% 올라 전달(1.7%)보다 상승폭이 다소 확대됐다. 생활물가지수도 1.0% 올라 지난해 8월 이후 최대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식품

은 전년 대비 0.1% 올랐고, 식품이외는 전년동월대비 1.4% 상승했다. 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2% 올랐고 신선식품지수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높았던 작년 같은 달보다 12.0% 떨어졌다. 신선아gabe(0.7%)는 올랐지만 채소(-25.3%)와 과일(-4.7%), 기타 신선식품지수(-23.9%)가 모두 하락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3.5% 떨어졌다. 축산물이 14.1% 올랐지만 농산물에서 -12.8% 하락한 영향이 크다. 수산물은 1.4%로 소폭 올랐다.

전민정 기자 puri21@

'조세불복' 작년 13조5889억

1년새 1조 넘게 늘어 역대 최고

50억대 74건... 고액소송 증가

조세심판원 3건 중 1건 '패소'

국세청이 지난해 부과한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조세불복 규모가 1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조세불복 청구 건수는 전년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1조원 넘게 늘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이학영 의원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매긴 세금에 대한 과세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조세불복 청구 건수는 총 1만7493건이었다. 조세불복 청구 건수는 2009년 1만7386건에서 꾸준히 늘어 2012년 1만7975건으로 증가했다가 3

년 만에 줄었다.

하지만 전체 금액으로 보면 증가세는 여전했다. 2009년 총 5조3012억원이던 조세불복 청구 금액은 2011년 10조원을 넘어서 2012년 12조3097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엔 13조5889억원까지 늘었다.

특히 행정소송에선 고액 소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해 새로 제기된 소송 1881건 가운데 소송금액이 50억원을 넘는 건수는 74건으로 2010년 38건, 2012년 52건에서 또다시 증가했다.

과세적부심 등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조세불복 청구 건과 달리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에서 담당하는 조세불복 건에 대한 국세청 패소율이 예년보다 높아졌다는 점도 눈에 띈다.

예로 국세청이 세금 고지 전 납세자에게 과세 내용을 미리 알리고, 납세자가 억울하다고 판단하면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

과세적부심	건수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과세적부심	건수	6,237	6,225	5,004	4,892	5,182
금액	14,242	26,414	26,069	19,912	28,975	
이의신청	건수	4,681	5,053	4,979	5,195	4,649
금액	7,701	8,962	15,097	14,867	13,479	
심사청구	건수	880	927	807	818	746
금액	2,408	2,107	2,097	3,023	3,880	
심판청구	건수	4,330	4,081	5,191	5,393	5,035
금액	17,563	28,838	42,190	55,423	61,867	
행정소송	건수	1,258	1,355	1,697	1,679	1,881
금액	11,098	22,178	17,847	29,872	27,688	
계	건수	17,386	17,671	17,678	17,975	17,493
금액	53,012	88,499	103,300	123,097	135,889	

하는 과세적부심은 지난해 5182건 제기됐고, 이 가운데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비율은 22%(1096건)으로 전년(32.2%)보다 10%가량 낮아졌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인용률도 각각 24.1%, 22.6%로 전년 인용률(23.4%, 22.3%)과 비슷했다.

하지만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제기된 심판청구 가운데 국세청의 '과실'이 인정돼 세금이 조정되거나 국세청 재조사 처분이 난 경우는 5035건 중 1471건으로 인용률이 31.7%에 달했다. 2009~2012년

23.5~26.4%를 기록하다 작년엔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선 것이다. 법원까지 간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도 13.5%로 최고점을 찍었다.

안장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세청이 지난해 세수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에 준할 정도로 무리하게 세무관리를 강화한 측면이 있다"며 "불복 청구 건을 유형별로 분석해 납세자들의 문제제기가 집중되는 부분을 살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미영 기자 bomnal@

與 14곳·野 12곳 후보 확정

새누리 '非박근혜' 약진

서병수·정진석 선출로 靑朴 치면

새정치연합 부산시장 첫 경선

김영춘, 이해성 제치고 본선행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6·4 지방선거에서 각각 14곳과 12곳의 광역단체장 후보를 확정, 본격적 본선 대진표를 짜고 있다.

세월호 참사라는 재앙으로 한동안 정치권에서는 모든 선거운동을 중단하며 국가적 애도 행렬에 동참했지만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조용한 선거운동을 재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전체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경선이 실시될 서울(12일)·경기(10일)·인천(9일) 등 수도권 3지역을 제외한 14곳의 후보가 확정됐다.

지난달 29일 대구시장 후보와 30일 강원시장 후보경선에서 각각 권영진 전 의원의 대구시장과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선출돼 '비(非)박근혜'의 약진을 보였다. 다만 30일 부산시장 후보와 충남지사 경선에서는 각각 서병수 의원과 정진석 전 국회 사무총장 등 친박(친박근혜) 후보들이 선출돼 체면치레를 했다.

앞서 14일 경남지사 경선에서는 비박계로 분류되는 홍준표 현 지사가 친박계인 박완수 전 창원시장을 제치고 본선에 오른 바 있다.

이에 따라 확정된 후보는 부산(서병수, 대구(권영진), 대전(박선효), 광주(이정제), 울산(김기현), 강원(최홍집), 충남(정진석), 충북(윤진식), 경북(김관용), 경남(홍준표), 전북(박철근), 전남(이중효), 제주(원희룡), 세종(유한식)이다. 향후 인천시장과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각각 오는 9일, 10일, 12일 치를 계획이다.

새정치연합은 경기, 광주, 전남, 전북, 경남 등 5곳을 제외한 12곳의 광역단체장 후보를 확정했다.

지난달 29일 단수 후보나 추대 등을 통해 확정된 곳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실시된 부산시장 경선에서 김영춘 전 의원이 이해성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제치고 본선 티켓을 따냈다.

이어 30일 실시한 경남지사 경선도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사사업본부장과 정영훈 전 새정치연합 부산시당 위원장을 제치고 본선 티켓을 따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후보가 확정된 곳은 서울(박완수), 부산(김영춘), 대구(김부겸), 인천(송영길), 대전(권선택), 울산(이상

6·4 지방선거 양당 대결구도

새누리당	서울시장	박완수 서울시장
정몽준 의원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해성 최고위원	서병수	박완수 서울시장
남경필 의원 정병국 의원	경기도지사	원해성 의원 김진표 의원
안상수 전 인천시장 유정복 전 장관	인천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서병수 의원 박민식 의원 권철현 전 주일대사	부산시장	김영춘 전 의원 이해성 전 대통령 홍보수석
서상기 의원 조원진 의원 권영진 전 서울시장 정우부시장 이재만 전 동구청장	대구시장	김부겸 전 의원
김기현 의원	울산시장	이성명 전 울산 북구청장
홍준표 경남도지사	경남도지사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사사업본부장 정영훈 전주립 지역위원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경북도지사	오승기 민주당 경북 도당 위원장
박선효 의원 이재선 전 의원 노병천 대전시장 행정부시장	대전시장	권선택 전 의원
유한식 세종시장	세종시장	이중희 전 장관
이명수 의원 홍문표 의원 정진석 전국회의사무총장	충남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윤진식 의원	충북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정제 광주시장 위원장	광주시장	김문태 광주시장 이용섭 의원 윤정현 새정치연합 공무원위원장
박철근 전 한국전기 안전공사 사장	전북도지사	유성명 민주당의원 강봉균 전 새정치 경제부총장 송하진 전주시장
이중효 가천대 컴퓨터교수	전남도지사	이노연 의원 주승용 의원 이석형 전 함평군수
이광문 전 춘천시장 정창수 전 인천공항 최충현 전 강원랜드 사장	강원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원희룡 전 의원	제주도지사	김유남 의원 고희범 전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신구병 전 제주도지사

* 후보 이름은 현역의원, 선수동일선수일 경우 가나다 순, 권위순으로 정리
* 현역 단체장일 경우는 가칭 먼저 표기

비리 온상 '관피아·낙하산' 척결 민간인재 등용 제도화해야



〈상〉 얼치기 안전 시스템은 안된다
〈중〉 공직사회 뿌리까지 바꾸자
〈하〉 경제·정치 시스템, 확 갈아엎자

정·관계 유착 온갖 부실 덩어리 낚아
고위직 퇴직과 동시에 기관장 맡아
관리·감독권 부여 막강한 권력 과시

해수부 산하기관 14곳 중 5곳 與 인사
세월호 참사에도 금융계 낙하산 투입
비전문가 정치권 인사 유입 제한해야

세월호 사건 이후 관피아(관료 + 마피아)를 비롯한 정·관계의 낙하산 인사의 심각성이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대통령이 관피아 추방을 외치고 있지만 정치권과 관료 낙하산이 서로 암묵적인 공생관계를 꾸리면서 비리와 부실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피아의 경우 그들의 배경엔 정부부처의 고위관료가 있다. 이들이 퇴직과 동시에 공공기관장·민간협회장을 맡는 구조가 이어져 온 것이다.

이들의 힘은 각 정부부처의 관리·감독을 받는 각종 협회에까지 뻗어 있다. 부실 감독을 통해 세월호 침몰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난 해피아(해수부 마피아)가 전형적이다. 해운조합·한국선급 같은 해수부 산하기관 14곳 중 11곳을 해피아가 장악하고 있다. 해운사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 안전운항 지도·감독권을 맡긴 게 대표적이다. 이밖에 38조원 규모의 정부 물품 구매를 담당하는 조달청에 근거한 조피아(조달청 마피아), 금융위원회 출신들이 장악한 금융권을 빚낸 금피아, 산하기관이 많은 산업통상자원부 출신들을 언급한 산피아 등도 비슷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관피아가들이 만연하는 근거로 '규제'를 들고 있다. 정부가 이들 기관에 규제 가능한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면서 이를 감시할 인력에 대한 당위성을 함께 준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때문에 부처에서 전문성을 가진 인물을 내려보낼 수 있는 배경이 마련돼 민간개방직이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부처에 배정된 고정 TO(인력배치)가 된 셈이다.

인사직제가 만연한 공직사회 구조도 한몫했다. 고위관료를 산하기관의 수장으로 내려보내 제때 자리를 비

우면 인사직제가 해소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조율에서 보다 유기적인 관계를 바라는 산하기관과 협회의 요구도 이를 거든 모양새다.

정치권 출신들의 낙하산 인사도 별반 다르지 않다. 문제가 된 해양수산부 산하 14개 공공기관 중 청와대나 여권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정치권 출신 인사는 5명이다. 지난해 취임한 부산항보안공사 최기호 사장은 대통령 경호실 경호안전교육원장을 지냈다. 인천항보안공사 최찬목 사장은 경호실 차장 출신이다. 주요 항만공사는 올해 정치권 인사를 상임이사로 대거 영입했다. 부산항만공사 박중식 운영본부장은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 울산항만공사 김진우 운영본부장은 한나라당 기획조정국 부장, 인천항만공사 양장석 경영본부장은 새누리당 부대변인 출신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기술금융보증기금 신임 상임이사로 금융권 경력이 전문한 강석진 새누리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세월호 참사로 금융계에 정치인 출신 낙하산 투입이 소리소문 없이 진행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관피아와 낙하산 인사의 만연을 실력만으로 인재를 뽑아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한 데서 찾고 있다. 때문에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인재의 유입을 유도해 자연스럽게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제도 보완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 취업에 유리하게 돼 있는 각종 예외 규정을 해소하는 한편 비전문가인 정치권 인사의 등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희준 기자 h9913@

주요 협회 및 산하기관 대표 출신

협회 및 산하기관	대표	출신	관련부처
한국표준협회	김정홍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한덕수	국무총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해협회	김해찬	지식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용근	산업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	오영호	산업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천항만공사	김준선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한국어촌어항협회	방기혁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기술협회	류영하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추성호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임광수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울산항만공사	박중록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전국은행연합회	박병원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수도권매립지공사	송재용	환경부	환경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병욱	환경부	환경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송영중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한국폴리텍대학	박중구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교통안전공단	정일영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재난 문외한 행시 출신 세월호 수습 지휘

‘고시 엘리트’ 그들만의 세상
부처 요직 행정고시 출신이 독식
“고시·비고시 효율적 점접 시급
행시 폐지하고 임용제도 개혁을”

“비고시 출신에게 국장자리를 내주는 것은 이제 떠나야 하는 신호다. 실제 일은 비고시 출신 서기관이나 사무관이 하고 있지만 실적은 고시출신이 챙기고 있고 비고시 출신이 핵심요직 자리에 오르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 쓸쓸하다.”- A부처 B사무관

“같은 고시 출신이지만 기술고시 출신들은 대부분 한직에만 떠도는 경우가 많고 중앙부처 핵심요직은 행정고시 출신들이 독점하고 있다.”- B부처 C국장
“기재부가 힘 있는 부처지만 내부에서는 같은 행시 출신이라도 예산실이나 세제실 출신인지 아닌지로 나뉘어 있어 이쪽 출신이 아니면 내부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C부처 E과장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는 안전행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구성했지만 재난 문외한인 행정고시 출신 고위 공무원들이 지휘하면서 탁상행정으로 초기 대응에 실패해 많은 인명 피해를 내 비난이 거세다. 행시 엘리트 그들만의 세상인 공직사회 폐쇄성이 이번 세월호 참사가 인재(人災)를 낳은 관재(官災)로 나타났다는 지적이 일면서 부처 순혈주의를 없애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처 이기주의와 폐쇄적인 관료사회를 타파하고자 공무원 임용제도를 개혁해 왔지만 행시 순혈주의에 막혀 실효성을 나타내지 못했다. 같은 행시 출신이라도 대학이나 처음 발디딘 부서 출신 성분에 따라 차별이 존재하는 기막힌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폐쇄성이 관피아(관료 마피아)를 만들었다. 관가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대통령과 정권은 잠시지만 공무원 조직은 영원하다’는 인식을 깨기에는 관료사회의 벽이 두텁다.

정치권과 전문가 일부에서는 이 같은 부처 순혈주의를 타파하려면 행정고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능력 있는 비고시 출신이나 민간전문가를 고위 공직자로 대거 등용해야 공직사회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민간 개방형 직위나 공모제는 민간인은 할량 미달이라거나 유능한 인재를 월급이 적어서 오지 않는다고 관료들이 깎아내리면서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방형 직위로 총원된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 중 민간인은 22.3%에 그쳤고 이들 중 상당수는 관료출신인 경우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잘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행정고시 폐지와 능력 없는 공무원 퇴출, 실질적 민간전문가 등용 폭을 넓혀야 한다는 방안이 세월호 참사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있다.

신동민 기자 lawsdm@

“관피아 차단, 셀프개혁으로는 안된다”

여·야 ‘관피아 방지’ 법안 발의 예정

세월호 침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관피아’(관료+마피아)와의 전쟁이 정치권으로도 옮겨 붙었다. 박근혜 대통령부터 관피아 척결을 위한 관료개혁을 강조하고 있지만 관료들에게 ‘셀프개혁’을 맡기는 건 어불성설이란 인식에서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관피아 방지 세트법안’ 발의를 앞둔 상태다. 민병두 의원 측은 1일 “관료는 심판이다. 심판이 공정해야 경기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데 이들이 곳곳에서 선수들과 결탁해 있다”며 “이들이 부당한 권력을 유지하는 근간인 정보 비대칭성, 권한 집중, 과도한 재량주의를 깰 법안들을 다음주 중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 의원의 구상은 △공무원 퇴직 후 10년간 실명제로 취업 이력 공개(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가고시 폐지(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비공개 운영 정부 산하 위원회 속기록 공개, 공공기관 정보공개 강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여기에 법원 판결문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 중이

다. 현재는 판사와 검사만이 비교적 자유롭고 편리하게 법원 판결문을 검색, 살펴볼 수 있어 법학대 교수나 변호사와도 정보 비대칭성이 생기고, 유사한 사건에서도 유·무죄가 갈리는 등 전관예우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에선 김재원 의원이 지난달 25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기업이나 법무법인 등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8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후 잠자고 있던 이 법안은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위원회가 심의에 착수, 입법화 단계를 밟고 있다. 공직자 처벌 기준이 비교적 약한 정부 법안과 상대적으로 강한 야당 법안이 같이 논의되면서 쟁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안은 직무 관련성이 없을 때는 과태료만 부과했고, 새정치연합 김영주 의원 안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등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수한 금품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미영 기자 bomnal@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4-01297호(2014.03.12 ~ 2014.12.31)
www.iprovest.com

KYOBO 교보증권

모바일 주식거래도 하고, 지원금도 받고~ 마음껏 누리세요!

SMART K
음껏~ 누리자!

이벤트 기간 2014.2.10 ~ 2014.12.31.

누림 하나	누림 둘
1. 매 2주간 10억원 이상 거래금액 상위200명 10만원 지급	은행연계 개설계좌 거래시 0.014%의 착한 주식거래 수수료 ※ 무기한 적용(정책 변경시 홈페이지 공지)
2. 월간 누적 거래금액 상위 5명 50만원 상품권 지급 ※ 기존이벤트 참가자는 참여 불가 ※ 월간 누적 순위는 해당월초부터 말일까지 집계하여 지급 ※ SMART K로 매매한 주식 거래금액만 인정 ※ 발표는 해당회차 종료 후 SMART K 및 홈페이지 공지 예정	누림 셋 고객님의 부담을 줄여드리는 4.95%의 저렴한 신용용자 이자율 용자사용기간 30일 이내 31~60일 61~90일 91~180일 연세이자율 이자율 4.95% 5.0% 5.5% 9.0% 12% ※ 무기한 적용(정책 변경시 홈페이지 공지) ※ 신용 거래이율시 신용거래 약관 및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13 스마트어워드 대상 금융/증권서비스 부문 대상 수상

최고 권위의 우수 모바일 앱을 선정하는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주관 [제3회 스마트어워드] 금융 증권서비스부문에서 전문가들로부터 최고 앱으로 인정받아 대상 수상하였습니다.

투자유 의사항

- 당사는 본 서비스 및 투자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존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원금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 연락처(휴대폰)불명 등의 이유로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당첨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사정으로 이벤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답보유지비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담보증권을 임의 처분할 수 있습니다.

AA APP AWARD WINNER SMART K

4대지주 지각변동... '우리' 탈락 '농협' 진입

우리금융 경남·광주銀 분할...부동의 1위서 5위로 KB금융 1분기 자산 387조6000억으로 1위 등극 우투증권 패키지 인수한 농협금융 4위 자리 올라

우리금융의 지방은행 분할로 금융지주 사들의 순위가 지각변동이 발생했다. 지난해 말까지 자산규모 1위를 지켜온 우리금융이 4대 금융지주사 명단에서 빠지고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한 농협금융지주가 그 자리를 꿰찼다. 우리금융은 지방은행 분할을 적격분할로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통과에 따라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떼어냈다.

앞서 우리금융은 우리투자증권 패키지(우투증권+우리아비바생명보험·우리금융저축은행)를 농협금융지주에 넘기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또 우리파이낸셜을 KB금융그룹에, 우리자산운용을 키움증권에, 우리F&I를 대신증권에 매각했다.

8개 계열사를 떼어놓으면서 우리금융의 총 자산은 439조7000억원에서 274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그런데 274조2000억원

의 총자산 가운데 270조4000억원이 우리은행 몫이다.

반면 농협금융의 자회사 수는 7개에서 10개로 늘어났다. 신한금융(13개), KB금융(11개), 하나금융(11개)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처럼 자산 기준으로 부동의 1위를 지켜온 우리금융이 5위로 떨어지면서 이 자리는 KB금융그룹이 차지했다. KB금융은 올해 1분기 총자산이 387조6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KB캐피탈(옛 우리파이낸셜)의 자산 3조9000억원을 합치면 390조원을 넘는다.

그 다음으로는 외환은행 인수로 급성장한 하나금융그룹(383조2000억원), 3위는 신한금융그룹(382조1000억원)이다.

4위는 농협금융지주다. 농협금융은 연결 기준으로 지난해 말 255조원인 총자산이 290조원으로 늘어났다.

금융그룹 자산 순위 변동

금융그룹	변동 전 자산규모(순위)		변동 후 자산규모(순위)	
	자산	순위	자산	순위
우리금융	439.7(1위)		274.2(5위)	
KB금융	379.8(2위)		387.6(1위)	
신한금융	371.5(3위)		382.1(3위)	
하나금융	368.6(4위)		383.2(2위)	
농협금융	255.0(5위)		290.0(4위)	

*KB·신한·하나금융은 2014년 1분기·우리·농협금융은 2014년 말 기준.

다만 수익성 측면에서는 신한금융이 가장 앞선다. 4대 금융지주로 올라선 농협은 당치는 컸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신한금융 총자산수익률(ROA)은 1분기 0.77%로 KB금융(0.51%), 하나금융(0.28%)을 앞섰다. 오는 9일 실적을 내놓는 우리금융은 지난해 1분기에 0.27%였다. 농협금융은 0.12%에 불과하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카드사 정보유출 '반사이익'

국민·롯데·농협카드 영업정지에 순이익 신한 14.5%·삼성 26.5%↑

신한카드업계는 카드 3사의 영업정지 반사이익을 없다고 밝혀 왔지만, 1분기 실적 분석 결과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고객 정보 유출 사고로 KB국민·롯데·NH농협카드가 3개월 영업정지가 취해지자 다른 카드사들의 신용판매액과 당기순이익이 일제히 증가했다.

신한카드의 신용판매액(일시불·할부)은 전년동기보다 5.7% 증가한 27조7440억원에 달했다. 신한카드는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1412억원으로 전 분기(1233억원)와 비교하면 14.5% 늘었다.

삼성카드는 지난 1분기 총 취급고가 4.5% 늘어난 22조4226억원을 기록했고 신용판매액은 19조836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9% 증가했다.

또 1분기 당기순이익은 676억20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7%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 분기(634억3300만원)와 비교하면 26.5% 급증했다.

그러나 현대카드는 1분기 취급고가 줄

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카드는 지난 1분기 신용카드 이용실적 규모가 17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4% 줄었다.

이는 현대카드가 지난해 6월 발표한 현대카드 '웹터' 전략으로 인해 '우량고객'을 확보한 대신 취급고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카드는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을 위한 복잡한 조건을 없앤 대신 월 50만원 이상 사용하면 한도 제한없이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변경했다.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 복잡한 상품 구조로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 수익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고객 1인당 사용금액은 약 80만원으로 업계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한편 정보 유출 카드 3사는 다음달 16일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매출 감소가 회복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정보 유출 사고가 카드사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서 "카드 시장이 외부 변수에 의해 변하는 탄력적인 시장이 아니어서 정보 유출로 인해 업계구도가 크게 재편되거나 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엘레 기자 ellee@

저축銀 보금자리론 판매

내달부터...주택금융공 업무협약

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6월 중순부터 저축은행에서도 주택금융공사의 'i-보금자리론(인터넷 신청)' 판매가 가능토록 하기 위해 30일 주택금융공사와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금자리론은 현재 고객이 시중은행과 일부 금융기관에서만 가입할 수 있으며 10~30년간 원리금을 나눠서 갚도록 설계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정책금융상품이다.

중앙회에 따르면 6월 중순부터 보금자리론 취급이 가능한 저축은행은 서울의 경우 △동부 △KB △OSB △현대 △다-케이 저축은행 등 5개사다. 인천·경기지역에서는 △남양 △세림 △안국 △키움 △평택 △한국투자 △SC스탠다드 등 7개사에서 취급할 예정이다.

충남북 지역에서는 △아주 △대명 △청주저축은행이, 부산·경남지역에서는 △국제 △BS △진주저축은행이,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드림, △오성저축은행이, 광주지역에서는 샌드립저축은행이 각각 취급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취급으로 인해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 신규 고객 유치에 통한 영업체력 확대 및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과 연계상품 판매 유인 가능성 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엘레 기자 ellee@



신한銀 '신한가족 만나기' 임직원 매달 1만원 기부

신한은행은 따뜻한 금융 실천을 위해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기부해 사회소외계층을 지원하는 '2014 신한가족 만나기(만원나눔기부)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신한가족 만원나눔기부 사업은 지난 2012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임직원들은 노사 합의를 통해 '신한가족 만나기' 이름으로 매월 본인 급여에서 1만원씩을 모아 향후 3년 동안 약 39억원을 기부할 예정이다. 서진원 행장(가운데)과 유주선 노동조합위원장(왼쪽), 권혁일 해피빈 이사장이 신한가족 만나기(만원나눔기부) 협약식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신한은행

금융 계열사, 고객정보 1개월 이상 공유 못한다

금감원, 정보 유출사태 후속조치 계열사에 정보 전달엔 고객에 통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금융지주 계열사끼리는 1개월 이상 고객정보를 공유할 수 없게 된다. 고의로 고객정보를 금융지주 계열사 밖으로 유출한 임직원은 면직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KB금융·신한금융·우리금융·하나금융·농협금융 등에 5월부터 이같은 내용의 관리 기준을 시행하라고 행정 지도를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당시 금융지주 계열사간의 무분별한 정보공유로 은행 등 계열사 개인정보까지 함께 빠져 나가는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금융지주 계열사의 고객정보 이용 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꼭 필요한 시점에만 쓰도록 해 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다만 신용 위험도 분석 등을 위해 1개월 이상 고객정보가 필요한 경우 고객정보 요청서에 필요한 이유를 자세히 명기해 고객정보관리인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용 기간이 지나거나 제공 목적을 달성하면

당 정보는 즉시 파기해야 한다.

고객 정보를 계열사에 제공하는 경우 금융사 이름과 목적, 제공 항목 등을 해당 고객에게 연 1회 이상 개별 통지해야 한다. 금융지주 계열사의 고객정보 관리위반에 대한 제재기준도 더욱 엄격해졌다.

임직원이 고의로 고객정보를 계열사 밖으로 유출하거나 손실, 위변조한 경우 면직된다. 계열사 고객정보관리인이 금감원 또는 금융지주사 고객정보관리인의 시정 조치를 2회 이상 받고도 지키지 않으면 면직 처분된다.

신태현 기자 holjiak@

"대출 연장 전화로 하세요"

금융위, 소비자 편의 위해 추진

앞으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를 통해 가계 신용대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고객이 가계 신용대출을 연장하려면 관련 서류 작성을 위해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추진 방안에 따르면 가계 신용대출 계약시 '전화 안내를 통한 대출 연장'에 대해 고객 동의를 받고 연장시기가 도래하면 다시 전화로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고객에게 확인해야 한다. 동의한 고객에 한해 전화를 통한 대출 연장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고객이 전화안내를 통한 대출 연장에 동의했다더라도 원치 않을 경우 영업점 방문을 통한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또 전화안내를 할 경우 적용 대출금리 변동 안내 등

금융 관련 사항을 방문할 때와 동일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번 방안은 대출 약정서·내규 개정 및 시행준비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우선 가계 신용대출에 한해 시행한 후 주택 담보 대출 등 기타 대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객에게 저축은행 신용공여 한도를 사전에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행 법령상 저축은행은 개별차주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 보증 등의 신용공여가 금지돼 있다.

저축은행의 경우 당기순손실 발생 등으로 자기자본 규모가 변동할 경우 신용공여 한도 축소 등 변동이 가능해 약정한 대출 한도 이내일지라도 추가대출이 제한되는 경우가 일부 존재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분기별로 일정기준(예: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5%)을 초과한 대출 고객에게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대출 한도와 고객의 대출 현황을 안내하도록 내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김민지 기자 kimmi@





산업군별 대표기업도 다양한 강소기업도

ERP는 역시, 더존 ERP

자체 데이터 센터 보유

세계 최고 수준의 자체 인터넷 데이터 센터인 D-클라우드 센터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화, 모바일, 보안시스템 등 최신 IT 기술을 적용

단계별 ERP Line-up

확장형 ERP, 건설 ERP, 비영리법인용 ERP 등 업종별 특화 솔루션 및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단계별 Line-up 보유

국내 독보적인 솔루션

IFRS 연결·개별 솔루션, XBRL 솔루션, FTA-원산지 관리시스템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국내 독보적인 솔루션 보유

안벽한 통합 시스템

22년 ERP업력으로 산업군별 표준 프로세스, 특화서비스 보유 및 자체 확장솔루션그룹웨어, MES, POP 등을 통한 완벽한 통합시스템 구현





www.duzon.co.kr

전국 통합 상담 **1688-5000**

※ 이 광고에 사용한 모든 서체는 KBIZ한마음체입니다



저작권 걱정 뚝! 중소기업 전용서체 무료배포

사용하는 문서프로그램의 서체에 이용 가능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를 위반하여 저작권 침해로 법적조치를 받는 중소기업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고민과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협동조합, 중소기업 등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KBIZ한마음체를 배포합니다.
저작권 고민 없이! 광고, 상표, 인쇄물, 현수막, 홈페이지 등에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KBIZ한마음체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무료배포하는 중소기업 전용서체 KBIZ한마음체 종류는? 고딕체, 명조체
KBIZ한마음체 사용방법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방문 > 메인화면의 '무료서체 배너' 클릭 > 다운로드 > 설치 후 사용
KBIZ한마음체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093~4 *자세한 사용방법 및 라이선스는 사이트에서 확인가능

KBIZ 중소기업중앙회

지멘스 '가게나우' 제2롯데월드 입점 추진

〈獨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

1%의 VVIP를 위한 지멘스의 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가게나우'가 한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국내 프리미엄 가전 시장이 한층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독일 가게나우는 한국 시장 확대를 위해 현재 작공 중인 잠실 롯데월드타워(제2롯데월드) 내 입점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현재 롯데 측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가게나우는 지멘스가 보유하고 있는 최고가 가전 브랜드로 세계 최고 수준의 브랜드 인지도와 제품력을 갖추고 있다. 독일의 경제주간지 비르츠샤프트보케(Wirtschaftswoche)가 2년에 한 번 선정하는 독일 내 럭셔리 브랜드 순위에서 가게나우는 가전 브랜드로는 유일하게 10위

국내 프리미엄 가전시장 고평가... 논의 진행중 삼성·LG·밀레 경쟁... 럭셔리 마케팅 가열될 듯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가게나우는 지난 2007년 국내에서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화인어프라이언스를 통해 한국시장에 첫 발을 디뎠다. 이후 지난 2008년 한남동 UN빌리지 트윈빌, 삼성동 아펠바움, 용인 루아르빌리에를 시작으로 흑석동 마크힐스, 청담동 빌폴라리스, 논현동 라폴리움 등에 공급되며 국내에서도 인지도를 점차 높이고 있다.

가게나우가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입점을 추진하는 데는 국내 프리미엄 가전 시

장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데 있다. 국내 프리미엄 가전 시장은 삼성전자, LG전자를 필두로, 독일 브랜드 '밀레'까지 가세하면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세프컬렉션'이란 브랜드를 내세워 프리미엄급 가전제품 라인업을 구축했다. 지난 3월 냉장고를 출시한데 이어 오븐, 세탁기를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LG전자도 600만 원대에 달하는 냉장고를 선보이는 등 프리미엄급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가게나우의 경우 일부 전기레인지 제품이 20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고가의 제품군을 형성하고 있다. 제품의 제조 전 과정은 장인들의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가전 시장은 최근 소형과 프리미엄으로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 추세"라며 "가게나우의 행보로 프리미엄 시장은 지금보다 더 다양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입점한다는 것은 해당 지역은 물론, 프리미엄급을 지향하는 소비자들까지 겨냥한 것"이라며 "최근 프리미엄 트렌드를 앞세우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전통의 강호인 밀레 등과 치열한 마케팅 경쟁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서지희 기자 jhsseo@

한국의 터키 승용차 수출 동향

(단위: 만 달러)

분류	2012년	2013년	FTA 1년차 (2013. 5~2014. 2)	증가율
승용차	4억1920	3억2820	2억6510	-22.7%
소형 가솔린	7910	7150	5740	-9.9%
소형 디젤	8550	5230	4810	-32.4%
중형 가솔린	8110	5800	4110	-27.5%
중형 디젤	1억7330	1억4630	1억1850	-21.7%
경차 가솔린	10	10	-	-

*자료: 한국무역협회

韓·터키 FTA 발효 1년 車 수출 오히려 줄었다?

현대차 현지생산 확대 여파 승용차 수출 22.7% 감소

FTA 혜택 기반 기어박스·운전대 등 부품은 25.8% ↑

한국과 터키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對) 터키 승용차 수출은 2012년 4억 1920만 달러에서 지난해 3억2820만 달러로 22.7% 감소했다.

FTA 관세 혜택이 기대됐던 주력 수출 품목인 소형차도 전년 대비 25% 감소한 1억2380만 달러의 실적을 올리는 데 그쳤다. 중형 가솔린과 디젤도 지난해 각각 5800만 달러, 1억463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7.5%, 21.7% 감소한 수출 규모를 기록했다.

이 같은 감소는 현대차의 현지 생산 확대로 완성차 수출 증가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현대차는 2012년 4월 터키공장의 대규모 증설작업에 돌입했다. 작년 9월부터 터키공장은 연간 생산 능력이 10만대에서 20만대로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이는 터키 직수출 물량의 감소로 이어졌다.

완성차 수출 감소와는 반대로 자동차 부품의 터키 수출은 확대됐다. 한·터키 FTA 발효 이후 자동차 부품 수출은 25.8%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인도(45.0%), 중국(36.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 수출 증가는 터키의 세계 자동차 부품 수입 증가율인 9.2%를 큰 폭으로 상회했다.

특히 기어박스, 차량용 부분품, 운전대 등 자동차 부품 분야의 주력 수출품이 FTA 혜택을 바탕으로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한국산 조달 비중이 미미하던 차량용 방열기, 차량용 로드 휠 등이 FTA 발효를 기점으로 수출이 급증했다.

이해연 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연구원은 "현대차가 터키공장의 생산량을 늘리면서 자연스럽게 완성차 수출이 감소했다"며 "자동차 관세가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만큼 터키 수출 증감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카셰어링 확대 무기는 '차별화'

그린카, 수입차 서비스 전국으로

씨티카, 전기차 'SM3 Z.E.' 도입

시간 단위로 차량을 대여해주는 카셰어링 산업이 확대되고 있어 주목된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카셰어링 업계 1위 그린카는 수입차용 카셰어링 서비스를 서울지역에서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주요 광역시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확대 서비스지역에 제공하는 수입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 'A 클래스', MINI '페이스맨'과 '컨트리맨' 등이다. 수입차량은 지역별로 서울 10곳, 인천 5곳, 부산 4곳, 대전·대구·광주 2곳의 그린존에 배치해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양성식 그린카 팀장은 "서비스지역 확대 심시는 수입자에 대한 카셰어링 고객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LG CNS의 자회사인 씨티카도 카셰어링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시와 전기차 공동이용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씨티카는 최근 르노삼성자동차의 전기차 'SM3 Z.E.' 78대를 도입했다. 이로써 씨티카가 운영하는 전기차는 총 198대로 늘었다.

씨티카는 SM3 Z.E. 도입과 함께 새로운 요금체계를 선보였다. 씨티카 홈페이지와 앱에서 정회원으로 가입한 예회원은 레이EV 이용시 40% 할인된 30분당 3050원, 주말에는 29%할인된 3550원에 이용할 수 있다. SM3 Z.E.를 이용할 경우 주중에는 40% 할인된 3600원, 주말에는 30% 할인된 4200원이다.

현재 씨티카는 서울시내 56개 지역에 설치된 씨티카에서 충전비 없이 30분당 최소 3050원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카셰어링 사업이 확대되면서 차를 구매하기 보다 나눠타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며 "렌터카 산업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의 차량 구매 의욕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저수조 없이 '순간 냉수' LG전자 냉정수기 출시

LG전자는 저수조 없이 바로 정수하는 직수방식을 채택하면서도 순간 냉수 기술을 적용한 냉정수기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제품은 전면에 청정램프를 적용해 필터 교체 시점을 간편하게 알려주는 기능도 갖췄다. 초기부담 비용 10만원 기준으로 월 렌탈료는 2만4900원부터 2만7900원까지다. 사진제공 LG전자

이통사 영업정지에 SK텔링크 뿔뿔

가입자 5만2346명 유치하며 알뜰폰 1위 CJ헬로비전 바짝 추격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기간 알뜰폰 업계 2위인 SK텔링크가 부동의 1위 CJ헬로비전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이 기간 SK텔링크의 가입자가 증가 수치가 CJ헬로비전을 넘어섰으며 시장을 흔들고 있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의 영업정지가 시작된 지난 3월13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SK텔링크는 5만2346명(타사이동 제외)의 가입자를 유치했다. 같은 기간 CJ헬로비전은 4만4840명의 가입자를 유치하는 데 그쳤다.

경쟁사에서 넘어온 가입자 수에서 경쟁사로 이탈한 가입자 수를 뺀 순증가입자 수에서도 SK텔링크가 CJ헬로비전을 앞도했다. SK텔링크의 3월과 4월(24일 기준) 순증 가입자 수는 각각 2만4961명, 3만2628명을 기록했다. 반면 CJ헬로비전은 3

월 1만8583명, 4월 2만2661명만 늘었다.

SK텔링크 관계자는 "최근 오프라인 대리점 수 확대와 홀소핑 등 유통채널을 다변화한 것이 주요했다"며 "특히 홀소핑을 통한 타깃 가입자의 모집 전략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 피쳐폰에서 벗어나 스마트폰 중심의 저렴한 요금제를 선보이면서 가입자가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회사는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TV홀소핑 판매를 20회 가량 진행했다. 1회당 600~700명의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효과를 특별히 보고 있다.

SK텔링크가 홀소핑을 통해 내놓는 단말기는 갤럭시S3와 갤럭시 코어 어드밴스드로, 폰드림 실속 3G(기본료 2만3000원) 요금제에 가입하면 요금할인을 통해 단말기 할부금이 따로 나가지 않는다.

김범근 기자 nova@

스마트폰 보조금 공개된다

단통법 국회 상임위 통과 10월부터 시행 전망

이르면 10월부터 스마트폰 단말기별 보조금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된다. 어떤 사람은 보조금을 많이 받아 '공짜폰'으로 구입하고, 다른 이는 같은 단말기를 50만 원 이상 주고 사는 경우가 없어지는 것이다.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통과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이 5월 국회에서 입법화하면 오는 10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는 물론 휴대폰 제조사들도 보조금 규모를 밝히야 한다. 결국 누구나 투명하게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때문에 그동안 보조금으로 얼룩진 통신시장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됐다.

단통법의 연내 시행이 유력해지면서 앞으로 통신시장에 미칠 파급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단통법의 태생 자체가 보조금으로 인한 사용자 차별을 없애는 데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이동사는 단통법 통과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 장

관은 신년사에서 "올해 단통법 제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이 통과되면 고객들은 안심하고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다"며 "단통법이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의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경), 요금제, 거주지역 등의 사유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삼성은 단통법이 통과되면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단통법 안에는 휴대폰 제조사가 단말기 판매량과 장려금 규모, 매출액, 출고량 등의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게 돼 있는 부분이 부당스럽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단통법이 아직 통과된 것이 아니고, 관련 법 조항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며 "단통법이 정식 통과되면 공식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SM그룹 품에 안긴 대한해운, 주력사업 본격 시동

부채비율 200%대 안정화... 남동발전과 올 첫 장기운송계약

SM그룹(삼라미디스) 품에 안긴 대한해운이 주력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며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해운은 지난달 9일 한국남동발전과 1649억원 규모의 발전용 유연탄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했다. 케이오 선박 1척을 투입해 연간 126만 톤 가량의 유연탄을 오는 2017년 2분기부터 10년 동안 호주에 운송한다. 올해 들어 첫 벌크선 운송계약으로, 2017년 수익원까

지 이미 확보하게 된 셈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에는 해외에서 중고선박을 처음으로 사들였다. 2100만 달러(약 218억원)에 매입한 17만1199DWT(재화총화물톤수) 규모의 '오크라호'는 한국남동발전과 맺은 10년 장기운송 계약에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대한해운은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이 이어 또 다른 자회사인 한국남발전과도 장기운송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계약이 체결되면 대한해운이 이들 두 회사와 맺은 계약(매출) 규모는 총 3350억원이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SM그룹에 인수되기 전 부채 비율은 3000%에 달했으나 올 1분기 부채 비율을 200%대로 끌어내렸다"고 말했다.

해운업계 4위이자 벌크선 업계 2위인 대한해운은 세계 경기 침체와 해운업계 불황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아 지난 2011년 초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해 10월 SM그룹에 인수되면서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 자금으로 회생채권도

모두 갚았다.

특히 대한해운은 해운사와 관련 사업이 없는 SM그룹에 인수됐지만, 재무적 지원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탈피하고 다시 주력사업에 매진하는 상황이다. 특히 오는 7월에는 한국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 전용선 입찰에 참여하는 등 LNG 사업에도 진출할 방침이다.

대한해운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장기 운송계약으로 주력해 수익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선대규모를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거대해지는 꾸준히 발굴하는 동시에 포스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과 영업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해외 우량화물물 수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SPC그룹, 연세암병원 편의시설 운영권 획득

상업·편의시설 사업 확대

SPC그룹은 최근 개원한 신촌 연세암병원의 상업 및 편의시설 운영권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14일 문을 연 연세암병원은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단지 안에 전체 면적 10만5000㎡, 지상 15층(지하 7층) 규모로 들어섰다. 병상은 510개다.

이 중 SPC그룹이 운영하는 상업 및 편의시설 면적은 10만23㎡로, 이곳에는 외식과 음료 매장 8개가 입점한다.

지하 1층에는 퓨전 일식을 판매하는 삼립 스트리트를 비롯해 카페 파르키라상, 배스킨라빈스, 빗은, 파스쿠찌가 들어선다. 3층에는 잠바주스, 5층에는 파스쿠찌, 7층에는 카페테리아 한상차림이 입점한다. 사업 기간은 5년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2007년 인천공항의 상업 및 편의시설 사업을 시작한 이후 김포공항, 제주공항, 김천휴게소, 속리산휴게소 등 모두 7곳의 시설을 운영하는 등 사업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isa@

얼음에 빠진 한라봉·벌꿀·와인 '핫'한 빙수들이 뜬다

외식업계 때 이른 '빙수전쟁'

최근 낮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치솟은 초여름 날씨를 보이면서 업계가 여름철 대표 메뉴인 빙수를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더위에 지친 고객을 잡기 위해 브랜드마다 맛과 콘셉트를 살린 빙수를 내 놓고, 한 바탕 '빙수 전쟁'을 벌일 준비를 마친 것. 특히 올해 빙수는 건강에 대한 관심과 맛에 대한 가치가 높아진 고객들을 위해 재료와 맛을 살린 '프리미엄 건강 빙수'와 특색 있는 맛과 콘셉트를 찾는 마니아층을 위한 '이색 빙수' 과거 향수를 자극하는 '정통 빙수'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인터컨티넨탈의 '빙수' '망고 스파클링'

프랜차이즈업체 여름 매출 절반이 빙수

정통·퓨전스타일 다양한 신메뉴 선보

딸기 디저트로 흥행 단맛 본 호텔업계

특별한 재료·세프 앞세워 럭셔리 유혹

◇여름 시즌 매출 50% 좌우 = 빙수는 여름철 디저트 시장 최대 블루칩이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5-8월 매출에서 40-50%가량을 빙수가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은 절대적이다. 올해 각 업체들은 예년보다 한 달가량 빨리 정통 빙수부터 다양한 퓨전 스타일의 빙수를 대거 내놓고 있다.

카페베네에서는 작년 6월 기준 팔빙수가 전체 매출액의 41%를 차지하면서 아메리카노를 제치고 매출 비중 1위에 올랐다. 월별 기준으로 팔빙수 매출이 아메리카노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이에 카페베네는 올 여름 신제품 '초코약마빙수'로 매출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초코약마빙수'는 출시 보름 만에 10만개 판매를 돌파하며, 인기가 치솟고 있다. 자체 개발한 진한 초코베이스 위에 초콜릿 쿠키와 브라우니를 올려 진하고 부드러운 초콜릿 맛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회사 관계자는 "초콜릿 맛을 찾는 여성 고객과, 축구를 좋아하는 남성 고객까지 남녀 모두에게 인기가 좋아 판매량이 치솟고 있다"며 "올 여름에도 빙수 매출을 기대해볼 만하다"고 자신했다.

할리스커피는 건강에 초점을 둔 '녹차빙수', '제주한라봉빙수'와 전통을 살린 '딸빙수' 3종으로 올 여름을 공략한다. '제주한라봉빙수'는 올 봄 제주에서 갓 수확한 당도 높은 한라봉만을 엄선해 국산 재료의 특색을 살렸다. '녹차빙수'도 범산 유기농 녹차 아이스크림과 국내산 팥, 고소한 견과류를 넣어 진한 녹차의 맛과 함

께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

카페 리맨즈는 '생(生)망고 눈꽃빙수'와 '밀크빙수' 2종의 이색 빙수를 들고 나왔다. '생(生)망고 눈꽃빙수'는 필리핀산 생 망고를 사용, 망고 본연의 맛과 함께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순수한 맛이 특징이다. 눈꽃이 연상되는 우유 얼음과 망고의 색이 이루는 조화는 시각적인 시원함까지 제공한다.

◇호텔업계도 세프 앞세워 경쟁 가세 = 특급호텔들은 저마다 특별한 재료와 세프의 노하우로 만든 빙수를 선보인다. 봄철 딸기 디저트 흥행으로 단맛을 본 데다, 여름이 앞당겨짐에 따라 한 달가량 서둘러 빙수 판매에 나선 것.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로비 라운지는 지난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쿨 빙수' 메뉴를 새롭게 준비해 5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인터컨티넨탈 관계자는 "쿨 빙수를 위해 호텔 세프가 총동원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귀띔했다.

실제로 인터컨티넨탈 호텔 세프들은 올해 초부터 빙수 30여 종류를 만든 후 매주 사전 프레젠테이션 및 자체 시식회 등을 통해 높은 점수를 받은 빙수를 추려냈다. 다음으로는 빙수 품질을 높이고, 먹는 동안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 대표 제품인 '망고 스파클링 시라즈 빙수'는 얼린 스파클링 시라즈 막대기에 스파클링 와인의 탄산감과 시라즈 와인의 과일 풍미를 유지하기 위해 와인 30병 이상을 사용했다.

파크 하얏트 서울 역시 세프들이 각자의 특별한 방법으로 만든 빙수 4가지를 내놨다. '하니 빙수'는 밀크 아이스에 월약산 천연꿀과 사과 퓨레를 얹고, 별집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는 꿀 덩어리와 구운 피칸 등을 올렸다.

호텔업계 관계자는 "빙수는 다른 음료수보다 가격대가 높은 편인 데다, 식사시간 외에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여름 효자상품"이라며 "특히 신라호텔에 플라멩고빙수처럼, 히트 빙수는 여름이 지나도 꾸준히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호텔마다 자존심을 걸고 경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애·이다람 isa@

하나론 부족하다 vs 하나만 고집한다

유통가, 믹스매치·헤리티지 마케팅 열풍

식품 '음료+요가' '차+자동차' 이색조합 패션은 브랜드 역사로 고객 눈도장 찍기

유통업계에 상반된 마케팅 바람이 불고 있다. 서로 다른 내용을 섞는 '믹스 매치(Mix Match)'로 소비자를 유혹하는가 하면, 전통을 강조하는 '헤리티지(Heritage)'로 눈길을 끌고 있는 것.

최근 식품업계는 요가·자동차·축구 등 다른 성격의 브랜드와 손잡고 색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쉽게 관계자들은 이같은 믹스 매치 마케팅이 단순히 제품 매출을 높이는 것을 넘어, 브랜드와 소비자 사이 감성적 교류에도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스무디 브랜드 '스무디킹'은 최근 스포츠 브랜드 르코프와 '우먼스 트레이닝&슬림다운 스무디' 쇼케이스를 펼쳤다. 전유광 스무디킹 마케팅 팀장은 "활동적인 브랜드 르코프와 함께 삶의 에너지를 높일 수 있는 색다른 형식의 쇼케이스로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고 설명했다.

카페 드롭탑은 매장에 기아자동차 차량을 전시하고 있다. 서울 강남아이파크점과 부산 센텀점에는 K3, 서울 화동사거리점에는 쏘울을 배치했고 대전, 광주, 대구 등 전국 매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패션업계에서는 브랜드 초창기 오리지널 제품이나 스테디셀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출시하는 경우가



스무디킹과 르코프의 콜라보레이션 매장(왼쪽)과 인디안 40주년 기념 브랜드인 '엘메이드 아카이브'.

늘었다. 레트로 트렌드가 지속되면서 '리에디션(re-edition)' 제품들이 기존 고객뿐 아니라 잠재 고객의 관심까지 끌고 있기 때문이다.

세정은 '인디안' 40주년을 기념해 최근 인디안의 역사와 정신을 이어받은 브랜드 '엘메이드 아카이브'를 론칭했다. '아카이브'는 기록보관소를 뜻하는 독일어로, 지난 40년간 최고의 품질을 고집해온 남성복 인디안의 장인정신과 브랜드 히스토리를 지켜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업계 관계자는 "높은 인지도와 고객 충성도를 보유한 브랜드들은 새로움을 추구해야 하는 동시에 오랜 세월 고객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이유를 잃지 않고 진화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헤리티지'에 집중한다"라고 말했다.

이다람 기자 zing@

현대아울렛 가산점 내일 오픈 "연 매출 2000억"

현대백화점 위탁운영 사업 본격화
면적 3만9000㎡ 도심형 최대 규모
타임·오브제 등 230개 브랜드 입점
2030세대 타깃 영캐주얼 대폭 강화

현대백화점의 첫 도심형 아울렛이 가산동에 서 문을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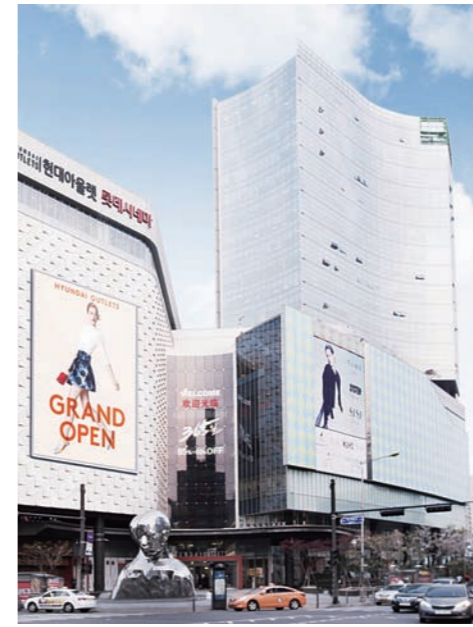
현대백화점은 2일 현대아울렛 가산점을 오픈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월 한라와 아울렛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지 2개월 만이다.

새로 선보이는 현대아울렛 가산점은 영업면적 3만9000㎡으로 국내 도심형 아울렛 가운데 가장 넓다. 전체 입점 브랜드는 식음료시설을 제외하고 총 230개에 달한다.

타임, 시스템 외에 타임옴, 시스템옴, 마인, 주시꾸꾸, 올라카일리 등 한신 브랜드가 대거 입점했고 미샤, 오브제 등 90개 인기 브랜드가 새로 자리를 잡았다.

전체 입점 브랜드 약 40%가 첫 선을 보이는 셈이다.

이윤규 현대아울렛 가산점장은 "젊은 고객이 선호하는 영캐주얼 브랜드가 대폭 강화된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아울렛 가산점 전경.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현대아울렛 가산점은 도심형 아울렛으로는 이례적으로 6층에 약 500㎡ 규모 복합문화 공간인 컬처스퀘어존(Culture Square Zone)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주차공간도 지하 5층부터 지하 1층까지 약 1000여대의 공간이 마련됐다.

현대아울렛이 출점하는 가산동은 마리오 아울렛과 W몰을 중심으로 약 8000억원 규모의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다. 현대백화점은 차별화된 MD와 서비스를 통해 개점 후 1년간 매출 2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현대아울렛 가산점은 멤버십카드 제도를 운영해 구매금액의 0.1%를 포인트로 적립해 주며 현대백화점 상품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백화점 문화센터 등과 연계해 20-30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은 현대아울렛 가산점을 20년간 위탁운영하게 되며, 영업이익의 약 10%를 위탁운영 수수료로 받게 된다. 앞서 현대백화점은 KTB자산운용 펀드에 400억원을 투자했고, KTB자산운용은 현대백화점 외에도 한라와 KCC에서 각각 500억원, 400억원을 투자받아 하이힐을 3293억원에 구입했다.

한편, 현대백화점은 아울렛 가산점을 시작으로 아울렛 출점에 속도를 낸다. 당장 올해 8월에는 문정동 가든파이에, 연말에는 김포 프리미엄 아울렛을 오픈할 예정이다. 2015년 8월과 10월에는 각각 판교 복합몰, 송도 아울렛을 공개하고 2016년에는 아산점을 개점한다. 현대백화점은 2016년까지 이 6개점에 신규 점포를 더해, 20개 이상의 점포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다람 기자 zing@



세상에서 가장 욕심부리지 않는 추출

커피의 맛은 좋은 원두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원두도

추출에 욕심을 부리면 품질이 낮아지죠. 카누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엄선된 콜롬비아 원두를 카누만의 기술로

욕심부리지 않고 추출합니다. 여기에 미세원두의

품이가 더해지면 신선한 아메리카노

카누가 탄생합니다



석유·천연가스·금·은 등 에너지·광물 자원의 보고 '북극' 얼음이 녹는다... 新골드러시 열린다

英로이드 "글로벌기업들 10년동안 103조원 투자" 전문 사모펀드 설립·석유시추 계획 등 관심 고조

다이하드에서 석유까지 풍부한 자원이 매장된 북극에 골드러시가 일고 있다. 지구 온난화에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이곳에 묻혀 있는 막대한 자원을 채굴할 길이 열리고 있으며 에너지업체는 물론 금융기관들도 새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북극은 전세계 미개발 석유와 천연가스의 22%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북극권에는 금과 은 구리 아연 다이아몬드 등 각종 광물자원도 풍부하다.

이전에는 영하 수십 도가 넘어가는 추운 날씨와 두껍게 싸여 있는 얼음 등에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러나 북극 온도는 앞으로 30년간 4°C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여름 동안 북극 얼음 면적은 1999년의 절반에 불과하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보험업체인 영국 로이드는 앞으로 10년간 글로벌 기업들이 북극권에 약 1000억 달러(약 103조1600억 원)를 투자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불확실해졌지만 미국 엑스모빌과 러시아 로스네프트가 세운

합작벤처는 연내 러시아 북극 카라해에서 북극 첫 석유시추를 할 계획이다.

미국 알래스카의 소도시 베델 시장을 역임했던 휴 스톤도 북극 골드러시에 뛰어든 인사다. 그는 지난해 미국 최초로 북극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PT캐피탈을 설립했다. 그는 연내 2억5000만 달러 규모의 펀드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스톤 설립자는 "북극권 경제는 52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며 이 지역 성장률은 연평균 7.1%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엔하임파트너스의 스킵 미너드 최고 투자책임자(CIO)도 "새 항구와 고속도로 등 자원은 물론 인프라도 동반 발전할 것"이라며 "북극은 우리 세대뿐 아니라 앞으로 1만2000년에 걸쳐 인류에게 최고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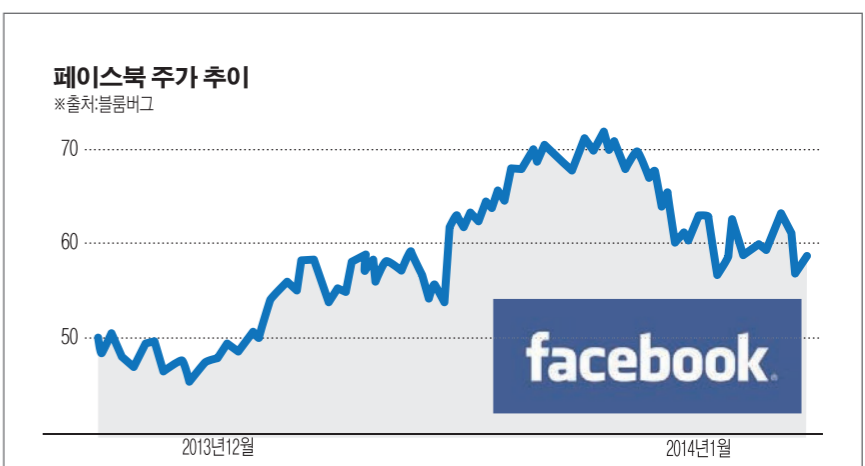
일각에서는 북극의 혹독한 기후와 환경오염을 우려한 반대 여론 등을 들어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모펀드 칼라일그룹 산하 칼라일인터내셔널에너지파트너스의 마셜 반 피케 매니저는 "북극은 여전히 개척지에 속하며 아직까지는 대형 석유기업만이 이 지역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에서 회수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톤 설립자는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환경과 북극 원주민의 문화도 보호하는 한편 자원도 개발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원주민의 열악한 삶을 개선하려면 일자리가 필요하다. 북극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원개발"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시진핑 떠난 직후 신장 위구르 테러 중국 경찰이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저녁 중국 신장 위구르자치구의 구도 우루무치 기차역에서 발생한 폭탄테러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이번 폭탄테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신장 위구르자치구 시찰을 마치고 떠난 지 몇 시간 만에 발생했다. 이날 테러로 3명이 사망하고 79명이 다쳤다.



“사람이 먼저” 페이스북 ‘익명 로그인’ 기능 도입

샌프란시스코 F8 개발자 회의 제3차 앱 사용하고 싶지만 실명공개 꺼리는 고객 위해 모바일 플랫폼 구축도 박차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익명 로그인' 기능을 도입한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저커버그는 이날 샌프란시스코 코코스 전시장에서 열린 F8 개발자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 제공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제3자가 개발한 응용프로그램(앱)을 시험적으로 사용할 때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저커버그는 “사람이 먼저(people first)”라는 것이 페이스북의 기본 방침”이라며 “앱을 사용해 보고는 싶은데 실명으로 로그인을 꺼리는 것을 감안해 ‘익명 로그인’이라는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사용자에 대해 고유 식별자를 생성해 전달하기 때문에 익명으로 로그인하더라도 앱 상태 동기화 기능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저커버그는 덧붙였다.

페이스북은 새로운 로그인 시스템을 통해 제3차 앱에 제공할 정보가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저커버그는 이와 함께 “안정적인 모바일 플랫폼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디언스 네트워크(Audience Network)’라는 모바일 광고 네트워크를 공개하고 광고주들이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다른 모바일 앱에도 광고를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은 페이스북의 모바일 사업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페이스북의 광고비즈니스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분기 59%로 상승했다.

저커버그는 이날 참석한 개발자들과 협력사 관계자들에게 안정된 모바일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에 대해 2년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이날 지난 2012년 기업 공개 이후 처음으로 F8 개발자 회의를 열었다.

이날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페이스북 주가는 오전 장에서 약세를 나타냈으나 저커버그 CEO의 발언이 전해지고 나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2.8% 오른 59.78달러로 마감했다.

뉴욕=민태성 특파원 tsmin@

HP·팍스콘 손잡고 서버사업 ‘합작벤처’ “아메, 메인 먹기 전 디저트에 배불러”

휴렛팩커드(HP)가 세계 최대 전자제품 위탁생산업체인 중국 팍스콘과 손잡고 서버사업에 주력할 새 합작벤처를 설립한다고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양사는 갈수록 발전하는 빅데이터 관련 시장에서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는 평가다. 시장조사업체 IDC는 올해 빅데이터 인프라와 관련 서비스 시장규모가 161억 달러(약 16조615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IDC는 빅데이터 시장 성장속도가 IT 시장 전반과 비교하면 여섯 배가량 빠르다고 강조했다.

IDC에 따르면 HP는 지난해 4분기 글로벌 서버 시장에서 28% 점유율로 1위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중국 레노버가 올 초 IBM 저가서버사업부를 23억 달러에 사들이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자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팍스콘과 연계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대만 위탁생산업체인 콰터컴퓨터도 자체 브랜드를 달고 고객들에게 직접 서버를 팔고 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인플레이 해결되고 있지만 정부 재정적자 축소 등 중요한 과제 여전히 남아 투자자 불안감 계속 커져

일본증시 닷케이225지수 추이
*출처:블룸버그

일본 증시 닷케이225지수 추이 *출처:블룸버그

17000
16000
15000
14000

2013년12월 2014년1월

지난달 30일 종가 1만4304.11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기부양책 이른바 '아베노믹스'가 시행된 지 1년 반 정도가 지났으나 오히려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2012년 12월 총리 자리에 오르면서 재정지출 확대·통화완화·성장전략을 골자로 하는 아베노믹스 3가지 화살을 꺼내 들었다.

지난 10년간 일본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은 디플레이션 타격을 위해 시행된 통화완화 정책은 일본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이날 일본은행(BOJ)은 2016회계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BOJ의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넘어선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리서치회사 롬바르드스 트리트리서치의 프리아 비미시 이코노미스트는 "아베 정권이 '메인요리'를 먹기도 전에 디저트만 먹고 만족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미시 이코노미스트는 "디플레이션 타격이 디저트 수준이라면 구조개

혁이나 정부 재정 적자 축소 등 아베 총리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메인코스는 한참 남았다"고 설명했다.

교착화된 구조 개혁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일본 시장을 빠져나오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난해 60% 가까이 상승세를 보였던 일본증시 닷케이225지수는 올 들어 12% 빠졌다.

이달부터 시행된 소비세 인상이 일본 내수에 부담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시장은 일본 당국이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개혁에 대한 진척이 거의 없어 구도다 하더라도 BOJ 총재가 추가 부양책에 베푼다는 나서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고 비미시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비미시는 "실제로 아베 정권은 구조개혁을 아예 시작조차 안했다"면서 "구도라는 위험한 베푼을 더욱 확대하지 않으면 뒤로 물러서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지 결정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글로벌 리포트

“美저신용자 기아 포르테 구입”

신용도가 낮은 미국인들은 낫산과 기아 자동차의 소형 모델을 많이 산다고 야후파이낸스가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스피리언트모터브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신용도를 나타내는 벤치마크인 어를 기준으로 맞춘 이번 저신용자 구매자의 신용점수는 619점이었다. 이는 주요 모델 중 최저 수준이다.

기아차 포르테(650)가 두 번째로 낮았다. 크라이슬러의 200(651) 기아차의 리오(656) 닛산 베르사(657) 순으로 포르테의 뒤를 이었다고 야후파이낸스는 전했다.

벤치마크어는 600-649를 '취약(poor)'으로 보고, 650-699는 '적정(fair credit)'으로 평가한다.

美 지재권 감시대상 한국 또 제외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적재산권(IPR) 분야 감시대상국에서 한국을 6년째 제외했다.

USTR은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발표한 '2014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한국을 우선 감시대상국이나 감시대상 명단에서 제외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주요 교역국의 지적재산권 보호현황을 검토 분석한 것이다. 한국은 2009년부터는 명단에서 빠졌다.

USTR은 지적재산권 보호 진전 사례로 한국을 예로 들면서 "한국은 1989년부터 감시 대상에 올랐으나 이제 지적재산권 보호조치가 필요한 국가에서 고품질 고기술의 제조업 분야에 있어 최첨단 혁신 국가로 변모했다"고 설명했다.

英 자동차시장 시동 꺼지나 올해 승용차·소형 밴 280만대... 2017년 290만대 전망

유럽 자동차시장 성장을 이끌었던 영국 시장의 열기가 올해를 기점으로 식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자동차업체 르노는 올해 영국에서 승용차와 소형 밴의 판매가 전년보다 10% 증가한 280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올해 이후 성장세가 둔화해 2017년에는 290만대에 그칠 것으로 내

다했다. 이와 관련해 FT는 최근 영국 자동차공업협회(SMMT)도 르노와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고 전했다.

앞서 영국 시장은 대대적인 할인과 이전보다 쉬운 자동차 대출 등에 힘입어 호황을 보였다. 이는 다른 유럽 지역이 지난해 2년래 가장 저조한 판매고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난해 영국 소비자가 구입한 신차 4대 중 3대가 대출을 통해

이뤄진 것이어서 자동차시장 수요 증가 편 더뎠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소비자들 빚을 내 자동차를 구매하고 있어 대출조건이 까다로워지면 언제든 그 열기가 식을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다국적 컨설팅 기업 KPMG의 자동차 부문 대표인 존 리치는 "영국 시장이 올해도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현재 신용대출 조건이 아직까지는 비교적 완화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OECD “선진국 소득불균형 심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선진국의 소득불균형 현상 심화를 경고했다.

OECD는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발표한 '소득 분배와 빈곤' 보고서에서 지난 1981-2012년 30년간 상위 계층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OECD는 미국과 영국 독일 등 회원국 1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30년간 미국 상위 1%의 실질 소득은 47%나 늘었다. 캐나다도 증가폭이 37%에 달했다.

이에 과세 전 미국 상위 1% 소득이 전체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년 전의 8.2%에서 19.3%로 배 이상 커졌다.

전체 소득 대비 상위 1% 비중은 18개 회원국 평균이 2012년 기준으로 9.7%에 이르렀다. 이는 30년 전의 6.5%에서 높아진 것이다. 빈부 격차가 상대적으로 덜한 노르웨이와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도 상위 1% 비중이 7-8%에 달했다.

빈곤계층은 소득 증가가 평균에 못 미쳤으며 심지어 1980년대 중반보다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OECD는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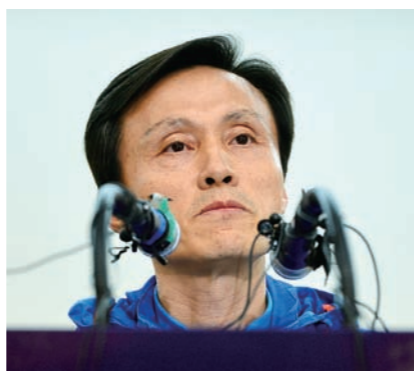
세월호 침몰 참사 해경 수사국장 '유병언 장학생' 의혹

세모그룹 7년간 근무하며 박사 학위 따

사고 현장 수습 지휘... 해경 특채전 이력 드러나 논란
구원과 행적에... 논문선 "면학 기회준 유희장에 감사"
이국장 "현재 구원과 탈퇴... 수사 개입할 여지 없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현장 수습을 지휘했던 이윤욱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장이 과거 '구원파' 신도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절성 논란이 겹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해경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사고의 초기 부실 대응 등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상황에서 타진 약재여서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해경은 즉각 이국장을 수사라인에서 제외시켰다. 이 국장은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모체격인 세모그룹으로부터 7년 동안 장학금 지원을 받으면서 근무했던 경력까지 확인되면서 '유병언 키즈'라고 불리고 있다. 그는 세월호 침몰 당시인 지난달 16일 오전부터 진도 팽목항 현장에서 사고 수

습을 지휘했던 인물이다. 진도군청에서 사과 관련 브리핑을 계속 한 것도 그다. 이 국장은 7년 동안 세모의 조선사업부에서 대리 근무하다 1997년 경정 특채로 해경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세모그룹 조선사업부에서 근무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세모는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이끌었던 회사다. 이 국장은 해경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구원과 신도이기도 했다. 그는 대학에 진학할 무렵인 1980년대 초 친구 소개로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를 알게 돼 신앙생활



해양경찰청 이윤욱 정보수사국장이 1일 오전 진도군청에서 논란의 '해경 정보수사국장 유병언 키즈' 보도에 대해 직접 해명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그러나 해경에 투신한 직후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 구원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후 구원과와 모든 연락을 끊고 다른 교회를 다녔다고 해명했다. 그는 세모그룹 재직시 회사의 학비 지원으로 1997년 부산대에서 조선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같은 해 해경청에 경정으로

특채됐다. 그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유 전 회장에 대해 감사함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국장은 박사 학위 논문에서 "면학의 계기를 만들어 준 유병언 회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이 국장은 경비함 건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조함기획계장을 시작으로 군산 해양경찰서장, 여수해양경찰서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거쳐 2012년 정보수사국장직을 맡았다. 이 국장은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한 수사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주관하고 있고 해경에서는 서해지방해경청이 참여하기 때문에 자신이 수사에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국장은 "세모그룹에서 근무하긴 했지만 당시 말단 대리여서 유병언 전 회장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종교적 신념의 차이로 해경에 몸담게 된 이후부터는 구원과와 연락을 아예 끊고 지나오며 그쪽에서는 나를 배교자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박태진 기자 tipippo@

한국선금, 공무원에 수백만원 상품권

檢, 본부장 등 4~5명 소환조사
해수부 관료·정치인 계좌 분석
오공군 前회장 로비 집중 수사

원과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이들의 계좌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선박 검사와 인증을 담당하는 한국선금의 선박검사와 관련한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선박의 증축 및 구조변경과 관련해 설계업체에서 비자금을 만들어 한국선금에 금품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29일 부산의 한 선박설계회사를 전직 압수수색했고 회계장부와 설계자료,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한국선금 본부장과 팀장급 직원 4~5명을 소환조사했고 이 중 일부는 해경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한국선금 오공군(62) 한국선금 전 회장이 재임 시절 거액의 비자금을 만들어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박태진 기자 tipippo@

세월호 침몰 인명피해 현황 (30일 오전 10시 현재)
탐승 476명, 구조 174명, 사망 213명, 실종 89명

이재현 CJ회장 8개월만에 재수감

법원, 구속집행정지 신청 불허
그룹측 "건강 심각 재신청할 것"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이 회장은 유전적 질환, 신장이식 수술 및 면역 억제제 투여 등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됐다"며 "사소한 병균에도 감염될 수 있고, 그 경우 생명까지 위협해질 수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항소심을 출석한 이재현 회장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팡이를 짚은 상태였고, 부축을 받아 겨우 이동했다. 상당히 아픈 모습으로, 현재 몸무게가 50kg 초반에 불과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진 상태다. CJ그룹과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은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후, 이식받은 장기가 몸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계속해서 면역 억제제를 투여받고 있다. CJ그룹 관계자는 "환자의 건강상태와 구조소 내 위생환경 등을 감안할 때 단순한 감염도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치의와 전문가의 객관적 의견을 보강해 구속 집행정지 연장을 재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다람 기자 zing@



친구야, 나 왔어... 단원고등학교 생존자 학생과 학부모들이 30일 오후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에 마련된 정부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뉴스시스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35%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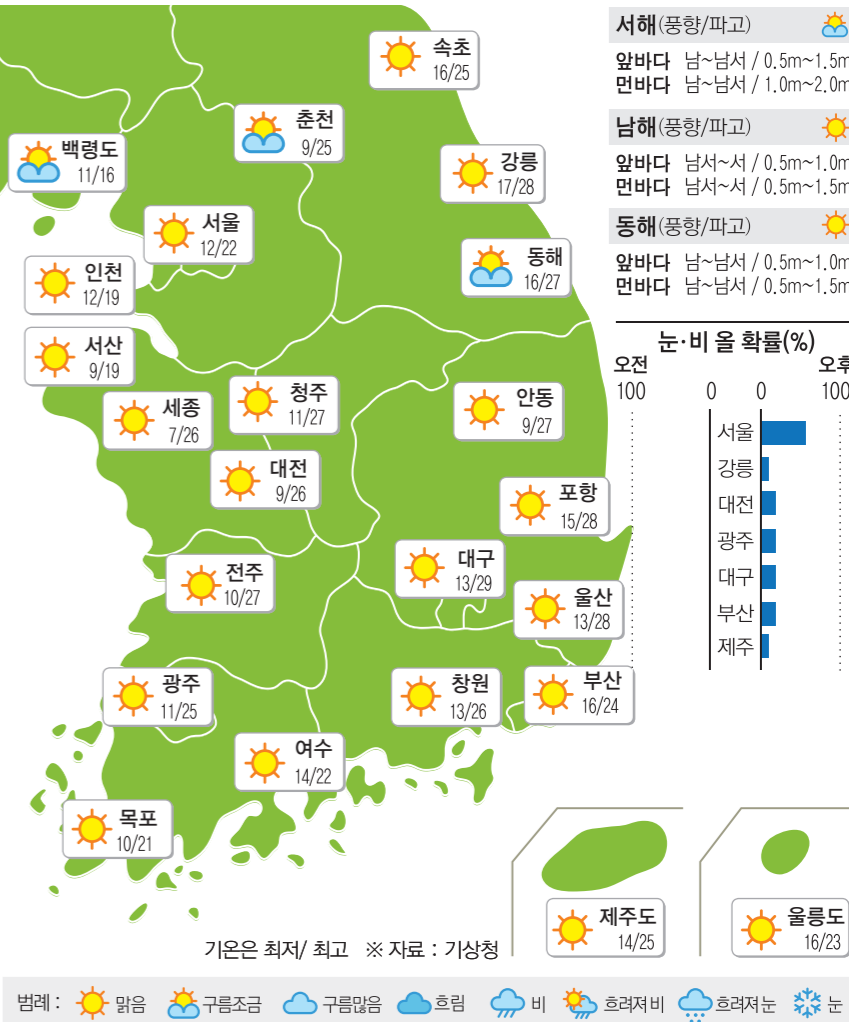
복지부 8월부터 개정안 시행
저지·마취·부항 등 절반 '뚝'

오는 8월부터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선택진료비의 환자 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한 3대 비급여 개선 대책에 따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선택진료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10년 이상 전문의에게 진료나 수술 등을 받을 경우 현재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내는 것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선택진료비 산정비율이 저지·수술, 마취, 침·구·부항은 100%에서 50%로 절반이 줄어들고 '진찰'은 55%에서 40%로, 검사와 정진은 50%에서 30%로 각각 감소한다. 아울러 영상의학과, 의학관리 항목의 산정비율은 각각 25%, 20%에서 20%로 줄어 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올해 하반기 선택진료 환자의 평균 부담은 현재의 65% 수준으로 낮춰진다. 예를 들어 승모판재치환수술을 받고 64일간 입원한 환자 A(67)씨는 선택 진료비로 총 441만원을 부담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8월부터는 210만원에 경감액 약 23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선택 의사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6년까지 현재의 약 34% 정도로 줄일 방침이다. 남아있는 선택 의사도 2017년까지 '전문진료의사 가산' 제도로 전환해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한다는 계획이다. 김부미 기자 boom@

내일의날씨

5월 2일 해돋이 05:36 해질 19:23 달출 07:44 달짐 22:15

전국이 맑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고, 서울·경기도와 강원영서북부에는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중부지방에는 오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서해안과 내륙에는 오후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9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2.5m로 일겠다.



연휴 고속도로 "3일 가장 혼잡"

서울-대전 차로 5시간 걸릴듯

(어린이날) 418만대 △6일(석가탄신일) 384만대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체도 빚어져 대도시간 최대 예상 소요시간은 토요일은 서울에서 대전까지 5시간, 강릉까지는 6시간 50분이 걸릴 전망이다. 월·화요일은 대전에서 서울까지 3시간, 강릉에서 서울까지는 5시간 3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공사에 출발 전에 '고속도로 교통정보' 등 스마트폰 앱이나 도로 전광판, 콜센터(1588-2504)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포스텍, '차세대 세계적 대학' 1위

타임스하이어에듀 3년연속 선정

포스텍(포항공과대학)이 글로벌 신생대학 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세계대학 평가기관인 타임스하이어에듀케이션(Times Higher Education)이 설립 50년 이내의 신생대학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포스텍이 '차세대 세계적 수준의 대학'이 될 가장 잠재력 있는 대학'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설립 50년 이전까지 합친 전체 세계 대학 순위에서는 60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교육 성과, 연구 실적, 논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규직 26명 공채



23일까지 우편·방문 접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가 정규직을 공개 채용한다. 채용직종은 연구직(일반연구직 및 전문연구직) 신규편입 대상자 7명, 행정직 3명 이내이다. 모집 분야는 일반연구직은 소프트웨어·콘텐츠, 융합기술, 부품소재, 통신인프라, 기술정책·정보통신표준·창의연구, 광융합부품, IT융복합이며 전문연구원은 소프트웨어·콘텐츠, 융합기술, 통신인프라, 기술정책·창의연구이다. 행정직은 경영기획, 경영관리, 기술경영 등 제반 행정업무로 모집한다. 접수기간은 5월 23일 18시까지이며 우편접수와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온라인 지원 접수는 할 수 없다. 자세한 문의는 연구직은 전화(042-860-5331)·이메일(heewonetri.re.kr)로, 행정직은 전화(042-860-5616)와 이메일(sybyunetri.re.kr)로 하면 된다. 박용남 기자 bangnam@



우재룡의 똑똑한 은퇴 내 집에서 나이 들기

중장년층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한다. 게다가 은퇴 후에는 친구가 부족해 외로워지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다. 건강이 나빠지면 간병을 받아야 하는데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지내는 것은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다양한 고민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계획이 필요하다.

은퇴 후 어디서 살 것인가? 노후에 거주할 수 있는 곳은 자기 집, 전원주택, 실버타운, 해외 은퇴이민, 노인전문주택 등이 있다. 노후생활을 조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은퇴자 중 약 70%는 자기 집에서 계속 지내길 원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10명 중 9명이 도시에서 살고 있으니, 결국 은퇴 후 도심에 있는 내 집에서 계속 살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다. 중소도시로 옮겨거나 농촌으로 떠나려는 사람은 50대의 경우 30% 정도, 60대는 20%대로 줄어든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살던 도시의 내 집에서 계속 지내고, 간병기도 여기서 보내길 원한다. 이런 경향을 '내 집에서 나이 들기'라고 한다.

내 집에서 나이 들기란 영어로 'aging in place'다. 현재 사는 곳에서 나이 든다는 말은 자신이 익숙한 곳에서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멀리 중소도시나 농촌에 있는 전원주택으로 이사해 좋은 환경 속에서 살면 멋진 삶이 되겠지만, 이사를 해야 하고 새로운 곳에서 인간관계와 사회활동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 큰 부담이 된다. 은퇴 후 나이가 들어 이사를 자주 하거나 너무 멀리 옮기면 자신이 속해 있던 공동체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장수시대를 맞이하며 '내 집에서 나이 들기'가 널리 퍼지고 있다.

노후 주거계획의 핵심은

간병기를 어디서 보내느냐는 것

생활에 편리하도록 고치고

지금의 집, 공동체 유지 바람직

은퇴 후 노후생활을 멋있게 보내기 가장 좋은 곳은 전원이 아니라 도심의 내 집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은퇴를 하더라도 왕성하게 취미, 여가와 사회봉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은퇴 설계를 잘 세워야 한다.

이런 추세는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은퇴자협회(AARP)에서 4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 86%가 자기 집에서 사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의 경우에도 65세 이상 노인 중 94%가 자기 집에서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선진국에서는 내 집에서 사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고령자들이 내 집에서 오랫동안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으려면 집을 고쳐야 한다. 노인들이 가장 많이 낙상사고를 당하는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해야 하며, 휠체어를 타고 집안에서 불편하지 않게 지낼 수 있도록 문턱을 없애고 출입문을 넓혀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집을 개조하는 것을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쉬운 말로는 '문턱 없애기(barrier free)'라고 한다. 본래 장애의 유무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포괄적 개념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고령자가 다치지 않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생활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하지만 이제야 고령사회를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보급이 미흡하기 짝이 없다.

은퇴 후 노후생활을 멋있게 보내기 가장 좋은 곳은 전원이 아니라 도심의 내 집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은퇴를 하더라도 왕성하게 취미, 여가와 사회봉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은퇴 설계를 잘 세워야 한다.

한국은퇴연구소장

배국남의 직격탄



문화경제국장 겸 문화부장

통곡이다. 절망이다. 원망이다. 그리고 분노. 올 들어 연이어 터지는 대형 참사와 사건, 사고로 촉발된 국민의 감정은 대통령, 정부, 정치권을 향해 있다. 기업과 언론에도, 대통령, 정치지도자, 기업과 언론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갑오년 새해 벽두 '경장(更張)'을 언급했다. 이들은 앞다퉈 다짐했다. 느슨해진 거문고의 줄을 다시 팽팽하게 조여 명징한 소리가 나게 하듯 2014 갑오년에는 한국사회의 비리와 병폐, 정부의 무능,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구태 등을 일신하고 경장하자고. 그래서 수많은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그리고 행복을 주겠다고.

그런데 말이다. 경장이라는 단어의 뜻을 헤아리기도 전에 대형 참사가 터지기 시작했다. 2월 17일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참사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꿈도 꾀지 못한 부산의 대생 10명이 숨졌다. 그리고 10일 뒤 하나의 메고가 발견됐다.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2월 26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단독

경장? 개혁? 결론은 분노!

주택 지하 1층, 박모(60)씨와 큰딸 김모(35)씨, 작은딸(32)이 목숨을 끊으며 70만원과 함께 지상에 남긴 마지막 글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낸 세 모녀의 죽음은 사회안전망 부재가 빚은 사회적 타살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지난 16일 발생한 세월호 대참사는 희생자 가족은 물론 전 국민을 비탄과 절망으로 몰고 간 비극 그 자체였다. 1일 오전 8시 현재 집계된 희생자 수는 꽃도 피우지 못한 채 숨진 단원과 학생 등 사망 213명, 실종 89명에 달한다.

푸른 말(靑馬)의 해답게 도약과 비상을 다짐한 2014 갑오년, 경장의 각오는 사라지고 충격적인 사건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경장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다고 다짐은 허언(虛言)이 됐다. 국민에게 절망과 슬픔, 황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길 뿐이다.

2014년 대한민국은 세계 언론이 조롱하듯 '사고공화국'으로 전락했다. 문제는 사고공화국의 오명이 오롯이 인재(人災)로 촉발된다는 점이다. 경장과 개혁은 외치지만 무책임과 무능으로 절멸된 대통령과 정부, 국민은 안중에 없고 권력에만 눈이 어두운 정치권, 탐욕으로 일쫓은 기업, 기득권을 확대 재생산하려는 권력층...

이들로 인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비리와 부패가 대한민국을 뒤덮게 되고 사람보다는 돈을 우선시하는 욕망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게 됐다. 비리와 부패, 탐욕은 결국 꽃도 피우지 못한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리고 정

의와 원칙은 불의 앞에 설 자리를 잃고 온갖 부패와 비리가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은 다시 개조를 외친다. 개혁을 다짐한다. 그런데 우리는 안다.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 국민전환용 공허한 다짐과 외침은 이내 사라졌다.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는 사고가 일어날 때 또 다시 등장한다는 것을.

이젠 안 된다. 국민의 분노로 비리와 부패, 무능이 낳은 사고공화국을 끝내야 한다. 평생을 인간의 생명과 인권, 민주주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싸웠던 스테판 에셀의 지적처럼 분노는 우리를 자각하게 해주고, 의식을 일깨우고, 체념한 사람을 무관심에서 깨어나오게 하고, 좌절로부터 걸어나 불의와 부패, 비리에 맞서 저항하고 싸우게 한다. 에셀은 '분노하라'에서 강조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귀하게 대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불의를 바로잡아 정의를 세우는 개혁도 철저히 해야 한다. 그 래야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갈 수 있다. 이것을 위협하는 불의에는 분노하자.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분노하고 저항할 권리가 있고 충분히 정당하다."

수많은 사람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정의가 불의에 무릎 꿇고 부패와 비리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판을 쳐 절망과 고통으로 살아야 하는 사건공화국,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분노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분노하라!
knae@

온라인 와글와글

운전면허 따기 쉬운 한국, 중국인들이 몰려온대요

○...2011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10명 중 9명이 장대 가능시험을 통과하면서 그 소문이 중국까지 퍼져 운전면허 취득 원정이 늘었다는 소식이다. 네티즌들은 "운전면허 간소화 때문에 감여자들이 넘쳐나지", "중국 은 면허 따기 어려우니", "운전하는 사람은 늘 관심할 게 있다. 차 자체가 예뻐 살인 무기라는 걸", "왜 운전면허시험을 간소화해 도로를 엉망으로 만드냐", "국제적 망신이다. 딴 나라에서 우리나라 면허 따기 쉽다고 오는 거", "다시 어렵게 만들자", "외국인이 운전면허시험 치를 수 있는 조건을 바꿔라", "모든 면허는 어렵게 해야 소중함도 알고 사회악도 줄어들지. 중국인까지 올 정도로 정말 우리나라 면허는 거저 준다는 의미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탁상행정이다", "성형도 수출하더니 면허도 수출하려고? 창조경제 맞네"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불공정 계약의 온상인 예약장 약관이 바뀐다



는 소식이다. 결혼식 90일 전까지 예약장에 계약해제를 통보하면 계약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고 과도한 위약금 부과조항도 시정됐다. 이와 관련해 네티즌은 "결혼식 은 간소한 게 좋지", "예약장에서 결혼하는 풍습 없애자. 양가 부모 형제 모시고 조출하게 하는 것이 제일 좋다", "무슨 결혼식 예약을 90일 전

에 하나, 일주일 전으로 바꿔라", "예약장이 결혼 90일 전에는 예약을 안 받는다"고 하면?", "저렇게 해도 부당한 조항 분명 있다", "우리나라 결혼 문화는 정말 이상해", "불공정하지 뭐든지", "거짓말", "약관을 제대로 다 읽고 결혼식 예약하는 사람 있을까", "특정 사람들이 예약장 예약을 미리 좋은 날, 좋은 시간 다 선점해 버리면 어찌지? 그런 대비책도 있어야지", "정말 불공정 계약 없어질까? 새로운 평가가 생길 거야" 등 불공정 관행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준형 기자 junior@

오늘의 **이국남**

www.baekn.com

'너희들은 포위됐다' 베테랑 형사, 차승원



배국남닷컴은 30일 SBS 새 수목드라마 '너희들은 포위됐다'(극본 이정선, 연출 유인식)로 안방극장 복귀를 앞둔 배우 차승원을 만났다. 2010년 '이태원: 전쟁의 여신', 2011년 '최고의 사랑' 독고진으로 안방극장에 강렬한 존재감을 선사했던 차승원은 2년여 만에 베테랑 형사 서판석으로 분해 특유의 코믹하면서도 감성적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차승원은 '너희들은 포위됐다' 제작 발표회에서 "20년째 형사 생활하는 베테랑 형사 서판석 역을 맡았다. 범인 검거와 추격에 있어서 맹수와의 같은 존재이며 4명의 신참 형사에게는 멘토이자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승원은 "개인적으로 정극과 희극을 오가는 연기를 선호하는 편이다. 서판석이란 인물이 그런 필요충분조건을 다 갖고 있었다. 또 좋은 배우와 스태프가 포진돼 있어 선택했다"고 출연 이유를 밝혔다.

차승원은 또 상대역 이승기와 호흡에 대해 "이승기와는 첫 만남이 아니다. 예전에 이승기가 '최고의 사랑' 카메오로 출연했고, 함께 광고도 촬영했다"며 "이승기는 파란색에 가까운 청년이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프로 근성을 가진 친구다. 자기관리를 위해 소량의 음식을 먹고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고 있다. 나보다 한참 어리지만 그런 면에서는 부럽고 존경스럽고 대견하다"고 말했다.

'너희들은 포위됐다'는 강남경찰서를 배경으로 한 정춘성 장로맨스 수사물이다. 고아라와 동료 신입경찰 역의 이승기, 그리고 레전드 탐정 차승원뿐만 아니라 오윤아, 안재현, 성지루, 임원희, 박정민 등 호화 캐스팅으로 방송 전부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5월 7일 밤 10시 첫 방송된다.
최두선 기자 sun@

오늘의 Hot Click

이투데이 온라인 집계

- 1 "해경 국장-연단, 다이빙벨 투입에 지장 줬다" 의혹 제기
- 2 광주 햇빛 시위, SNS로 퍼져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 3 박근혜 할머니 사진 연출 논란에 할머니 오씨 직접 해명
- 4 이윤옥 해경 국장 "세모그룹 장학생" 의혹
- 5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정선근무 업종 찾아보니

(주)지앤에스지

골프용품 전문생산 전문업체

받는분께 강한 만족감을 드리는 꼭 필요한 선물!!
G&SG에서 선물하세요~



기업홍보용품 / 선물용품 / 골프장개장기념품

골프필드용품 제조전문

02-744-7444/765-7404 www.gnsg.co.kr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208 (주)지앤에스지

VIP GOLF GIFT SET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G&SG의 골프필드용품



*당고에 기재된 로고나 상호는 이베를 허가받은 이미지입니다.

NAVER 지앤에스지

正論

다문화사회, 지구촌 시민의식 교육

20세기 후반부터 급격하게 진행된 세계화는 개인의 삶의 환경을 국민국가 영역에서 세계로 넓혔다. 아직도 절대 다수의 빈곤국과 세계 도처에 소수민족들은 세계화와 먼 거리에서 살아가지만, 그들 또한 세계화의 영향 하에 살아...



김준식 (사)아시아프렌즈 이사장

우선의 지구촌 의제이자 UN이 존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명분이다.

미국에서는 다문화 교육이 1960년대 1970년대 초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시민운동으로 출발해 학교에 존재하는 인종차별주의를 반대하는 교육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미국에서는 다문화 교육이 1960년대 1970년대 초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시민운동으로 출발해 학교에 존재하는 인종차별주의를 반대하는 교육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다문화 교육을 다문화가

족과 그 자녀들을 위한 교육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다른 문화를 단순히 소개하고 보여주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년 '국민의 다문화 수용성 현황'이란 연구에 의하면 한국인들의 문화 공존 인식은 36.2%로 유럽 8개국 평균 74%의 절반밖에 안 될 정도로 폐쇄성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한국정부는 2012년 8월 17일 '다문화 인식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의하면 2013년부터 유치원, 초, 중등 교과서에 다문화 교육 내용을 반영하여 학습하도록 했으며 공무원, 경찰, 군인, 다문화 관련 시설 종사자와 지역의 문화시설, 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이러한 국가정책이 지자체나 일선 교육기관에 이르면 그 본질이 변색돼 단순히 다문화 가족 복지정책을 설명한다거나 아니면 결혼이민자들 나라의 의복 문화나 음식문화를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고 만다. 안타까운 일이다.

다문화 교육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워싱턴 대학의 제임스 벅스 교수는 다문화 교육은 '세계 시민성 교육으로서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 공동체와 국가, 지역, 나아가 세계 공동체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식과 기술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결국 다문화 교육은 우리 한국 국민과 젊은이들에게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가르치는 지구촌 시민의식 교육이다. 한국의 공직자들과 교육자들은 이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한다.

객석

복리의 마법은 '시간'에 있다



권기홍 신한금융투자 부사장 겸 PB

년이 더 가면 재산은 3배의 3배, 즉 최초 자산의 9배가 된다. 그 뒤는 27배, 81배 순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복리의 가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민족은 유대인이다. 그들은 수세대에 걸쳐 복리투자를 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의 재산 규모는 후조조차 할 수 없는 수준에 달했다. 수세대에 걸친 긴 호흡이 주는 복리의 마법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박을 노리는 마음이 강한 투자자들은 복리의 마법을 절대 누릴 수 없다. 그들에게 투자란, 쌓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늘 원금을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이 따라다닌다. 당연히 수익률 위에 또 다시 수익률을 쌓아 나가갈 수가 없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복리투자의 기본은 긴 호흡이라고 충고하는 것은 상품을 팔기 위해서가 아닌 남을 알아야 한다.

아인슈타인은 복리를 두고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 인류의 8대 불가사의'라며 복리의 가치를 칭송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역시 '스노우볼'을 자서전 제목으로 선택할 정도로 복리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느긋하게 투자하라.

마법의 복리. 참 많이 들은 문구다. 그러나 복리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저 저축성 보험의 홍보 문구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복리의 중요성은 결코 투자 상품에 국한되지 않는다. 투자 '마인드' 그 자체다.

복리는 초기 원금에 매년의 수익률이 더해져 금액에 다시 수익률을 쌓는 방식이다. 그야말로 시간 위에 재산을 쌓는다는 개념이다. 복리와 시간은 불가분의 관계다.

전문투자자가 아니더라도, 금융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춰 꾸준히 투자한다면 연평균 10% 수익률 달성은 어렵지 않다. 10% 수익률을 복리계산을 해보자. 쉽게 말해 복리의 마법은 10년마다 자산을 3배로 늘려주는 수익률이다. 이후 10

기자의 눈

공지 몰려서야 머리 숙인 해경



유충현 정치경제부/lamuziq@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기 구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들의 질타를 머리 숙여 받아들입니다. 사고 발생 보름째 지나서야 들 수 있었던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의 공식 사과 발언이다.

잘못이 있었다면 인정하는 게 올바른 반응이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해경의 구조 작업에 대한 여러 의문점이 제기된 것은 사고 직후부터였다. 실종자 가족들은 물론 온 국민이 현장의 구조활동에 대해 답답해했다. 그때마다 해경은 기상상황을 들먹이거나 '알아서 잘 하고 있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러다가 지금에서야 당시 구조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진짜 대답'을 한 것이다.

사과가 실종자 가족을 비롯한 국민들의 요구에 의한 것인지도 의구심이 든다. 시점 때문이다. 28일에는 해경에 대한 합동

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30일에는 해경이 사고 초기 해군 잠수병력 투입을 막았다는 사실이 국방부를 통해 확인됐다. 정부가 민간의 투입을 작-간접적으로 막았다는 잠수사들의 증언도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났다. 해경으로서는 공지에 몰려 잘못을 시인했다는 비판을 산다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발뺌할 수 없을 때가 된 후에야 나온 사과라면 그 진정성도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고 초기부터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사항은 구조작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숨기지 말고 알려 달라는 것이었다. 만시지탄이지만 해경이 좀 더 일찍 잘못을 시인했다면, 그래서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 수색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아쉬움이 남는다. 진도실내체육관에서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마련된 진도군청까지의 거리는 약 2km에 불과하다. 걸어서는 30분, 차량으로는 5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다. 하지만 해경의 진짜 대답까지 걸린 기간은 보름이 넘게 넘었다. 정부와 국민 간의 '진짜 거리'다. "우리는 어느 나라 경찰을 붙들고 애들을 살려달라고 해야 하나"던 학부모의 절규가 웃음을 띠며 가슴이 먹먹해진다.

노경아의 라온 우리말터

늦장·늑장 다 되지만 '늦장 기관은 아웃!

친구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준 후 또 다른 친구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졌다 희생된 단원고 정차웅군의 장례가 고대 안산병원에서 치러졌다. 차웅군의 유족은 아들의 마지막 길에 최하등급인 41만6000원짜리 수의(壽衣)를 입혔다. 김도 유단자로 키 180cm가 넘는 등직한 덩치에 맞춰 제작한 특수관(棺) 역시 27만원짜리로 가장 저렴했다. 장례비가 국가에서 지급되는 만큼 한 푼의 세금도 낭비해선 안 된다는 차웅군 아버지의 뜻이었다. 부자의 의연한 이별 모습이 더욱 숙연해지고 애소해지는 느낌이다. 의로운 청년 차웅군은 그렇게 마지막 길 역시 아름답게 떠났다.



하는 단어가 여럿 있다. 쇠고기/소고기, 명계/우렁챙이, 애순/어린순, 거짓 부리/거짓불, 노을/놀, 막대기/막대, 망태기/망대, 찌꺼기/찌꺼 등이 대표적이다.

가슴 먹먹해지는 감동과 긴 한숨을 남긴 채 사고 희생자들이 하나 둘씩 떠나는 가운데 참사 16일째를 맞았다. 하지만 1일 오전 9시 현재 아직도 실종자 89명의 생사는 확인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실종자 구조와 희생자에 대한 애도에 마음을 모으던 국민들은 이제 청와대 게시판에 정부의 늦장대응을 질타하는 글들을 쏟아내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보여준 정부의 늦장대응 등 무능함과 진정성 없는 태도 등을 질타하는 내용들이다.

특히 늦장대응 대목에서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전 정부기관의 위기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느껴져 부아가 치밀어 오른다. 전 국민을 화나게 한, 느릿느릿 꾸물거리는 태도가 바로 '늦장'이다. 그런데 어떤 매체들은 '늑장', 또 다른 매체들은 '늦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늑장대응'과 '늦장대응' 어느 것이 바른 표현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맞다. 표기는 다르지만 뜻은 같은, 소위 복수표준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늑장보고/늑장보고', '늑장행진/늑장행진' 등 단어 선택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우리말에는 '늑장/늑장' 외에도 복수표준어로 인정

2011년에는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지만 표준어 대접을 받지 못해 논란이 컸던 짜장면(자장면), 떡거리(떡을거리), 맨날(만날), 허접쓰레기(허접쓰레기), 노꼬리(눈초리), 복숭아뼈(복사뼈), 택견(태견), 개발새발(괴발개발) 등 39개 단어가 표준어로 인정됐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언어가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국립국어원이 언어 규칙에 예외를 허용해 이들 단어를 표준어로 인정할 가장 큰 이유다. 같은 뜻이지만 형태가 다른 두 단어 모두 활발히 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가 조직은 언어와 다르다. 모습과 이름은 다르나 기능과 역할이 비슷하다면 두 개 이상의 조직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 책임을 두고 국가 재난관리를 총괄하는 안전행정부와 해상재난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 국토부 등이 책임 공방을 벌여 빈축을 사고 있다. 사고 수습에 부처 간 혼선이 일었다는 건 분명 필요없는 조직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해수부든 안행부든 국토부든 정리할 건 빨리 정리해야 한다. 국민을 위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조직을 감싸고 갈 이유는 없다.

편집부 교열기사 jsiysh@

이투데이

社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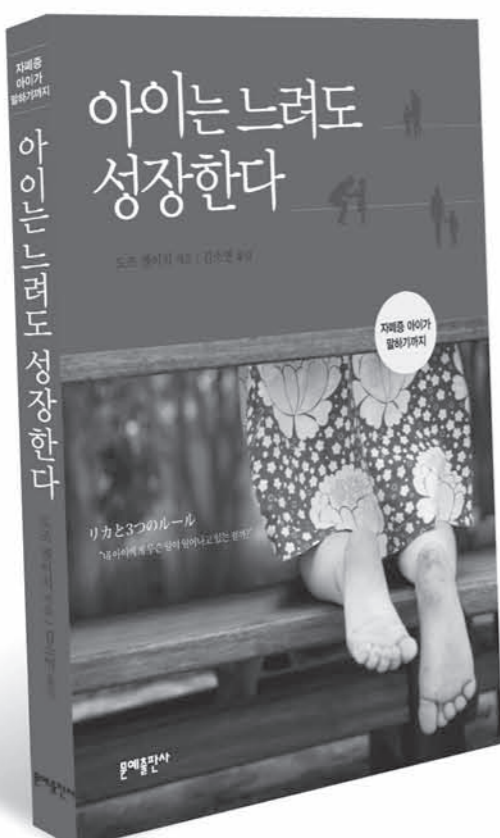
발행인·편집인 김상우 편집국장 이종재 광고국장 임영재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partments: 논설실, 정치경제부, 산업부, 문화부, 광고접수, 광고문의, 온라인뉴스부, 시청부, 미래산업부, 국제경제부, 구독신청, 배달안내, 금융부, 사회생활부, 사진팀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10.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자폐증 딸의 말문을 열어준 한 아버지의 감동 실화!



아이느느려도 성장한다

도조 캔이치 지음 | 김소연 옮김 | 280쪽 | 13,000원

딸을 언어 천재로 키우고 싶었던 아버지에게 내려진 청천벽력 같은 선고. "딸아이는 자폐증입니다. 말은 평생 못하겠네요."라는 의사의 말! 그러나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낸 아버지의 마법 같은 3가지 규칙은 마침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다.

"논픽션으로서의 감동뿐만 아니라 육아로 고민하는 부모,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책." _일본 아마존 독자평 "어떻게 보면 처절한 고투를 기록한 논픽션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한 인생 지침서." _일본 아마존 독자평

병원에 의지하지 않고 건강한 아이 키우기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최고의 의사는 엄마와 할머니, 그리고 자연의 힘이다!



로버트 S. 멘델존 지음 | 김세미 옮김 382쪽 | 15,000원

내 아이를 망치지 않는 놀라운 육아법 양육의 기술

양육에도 매뉴얼이 필요하다! 아이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이해하게 해주는 책



앨리스 셰이퍼 지음 | 김이숙 옮김 340쪽 | 14,000원

2관왕 박소혜 “신지에 언니 닮고 싶어요”

〈개인전·단체전 우승〉

이투데이·서울특별시골프협회장배 아마추어 골프대회 초등부터 대학·일반까지 남녀 12개 부문 챔피언 가려

한국 골프의 미래는 쾌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온 국민이 비통함에 빠졌지만, 한국 골프의 미래마저 침몰하진 않았다. 미래의 한국 골프를 이끌어갈 꿈나무들의 기량은 날새만큼이나 화창했다.

4월 30일 경기 여주의 여주컨트리클럽에서 끝난 이투데이·서울특별시골프협회장배 아마추어 골프대회에서는 초등부부터 대학·일반부까지 남녀 12개 부문 챔피언이 모두 가려졌다.

남자 초등부에서는 김근우(일원초6)가 149타(75-74)로 유현준(양남초6-156타)과 이재신(대명초6-157타)을 제치고 우승했다. 여자 초등부에서는 윤민아(반포초5)가 144타(73-71)로 홍정민(영풍초6-153타)과 김세희(영훈초6-157타)를 누르고 정상에 올랐다.

김규환(영동중2)은 153타(75-78)를 쳐 박동진(대정중2-153타)과 진현승(화곡중3-153타)을 제치고 남자 중등부 우승컵

을 들었고, 문제립(은성중2)은 153타(79-74)를 쳐 손연정(양동중3-153타)과 김태연(명지중3-153타)을 꺾고 우승했다.

남자 고등부 챔피언 황진명(동북고3)은 142타(71-71)로 김동은(중산고2-144타)과 박대봉(경기고2-146타)을 제쳤고, 여자 고등부 챔피언 박소혜(은광여고2)는 146타(74-72)로 노수빈(영과여고2-150), 김슬기(한서고3-150타)를 눌렀다.

권오상(한체대1-146타)과 이경민(서울대1-159타)은 각각 남녀 대학·일반부 정상에 올랐고, 동북고(안우진·이승학·황진명)와 은광여고(박소혜·이화윤·허다빈)는 각각 남녀 고등부 단체전 우승 영광을 안았다.

여고부 개인전과 단체전 우승으로 2관왕에 오른 박소혜는 “첫날 바람이 많이 힘든 경기를 치렀다. 다행히 오늘은 바람이 잠잠해져 비교적 만족스러운 결과를 냈다”고 전했다.



김상우 이투데이 대표(뒷줄 우측에서 첫 번째)와 정봉의 서울특별시골프협회 회장(뒷줄 우측에서 두 번째)이 각 부문 우승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현재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소혜는 세화여중 1학년이던 2010년 국가대표 상비군에 발탁. 일찌감치 필성부턴 뛰어들었다. 지난해는 국가대표로 활동했다.

그의 목표는 국가대표 복귀다. “6월 말이나 7월 초쯤 인천아시아게임 대표 평가전이 있을 예정이다. 잘 준비해서 국가대표 복귀 후 아시아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싶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박소혜는 또 “신지에 언니의 꾸준함과 쇼트게임 능력을 닮고 싶다”며 꿈이 담긴 난방울로 한국 골프의 미래를 환히 밝혔다.

김상우 이투데이 대표는 “진도 여객선 사고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사고로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golf5@

국내 1호 ‘이민학 박사’ 김소희씨 “출산정책 다양한 언어로 제공해야”

이주여성 출산율 분석 논문

한국사회가 급격히 ‘이민사회’로 접어드는 가운데 국내에 ‘제1호 이민학 박사’가 탄생했다. 2014년 3월 기준으로 국내 외국인 수는 161만명에 달한다.

경기일보(이호준 기자 hojun@)에 따르면 국내 제1호 이민학 박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주인공은 성결대학교 김소희(46·사진) 이민학 박사다. 김 박사는 지난 2009년 이민학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성결대학교가 체결한 MOU에 의해 첫 번째 국내 이민학 박사의 영예를 안게 됐다. 김 박사는 지난 2월 발표한 ‘출산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이민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특히 국내 외국인 중 다수가 결혼이민자 등 이주 여성이어서 국내 첫 이민학 박사 여성이라는 점은 향후 연구활동에 큰 감동이 될 것으로 학계는 기대하고 있다.

김 박사는 이 논문을 통해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출산율 등을 분석했다. 논문에서 따르면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의 평균 자녀 수는 지난 2012년 기준 0.9명이며 자녀가 없는 경우도 37.3%에 달했다. 이는 한국 기혼여성 가족의 평균 자녀 수 1.6명과 비



교할 때 매우 낮은 출산율이며 한국 기혼 여성가족 중 자녀가 없는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정도임과 비교할 때 출산의 지 또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같이 결혼 이주여성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로 김 박사는 결혼 이주여성은 한국어 의사소통이 서툴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등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김 박사는 ‘(가정) 결혼 이주여성 정보알리미’라는 인터넷상의 가상공간을 마련해 다양한 언어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김 박사는 “인터넷공간을 통한 출산장려 정책의 홍보와 각 개인의 상황에 맞는 ‘출산정책 맞춤 제공’은 출산을 계획하고 출산의지를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있어서도 결혼 이주여성뿐 아니라 이민자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용남 기자 bangnam@

강경희 여기자협회장 선임

강경희(사진) 조선일보 사회정책부장이 30일 한국여기자협회 제26대 협회장으로 선임됐다. 협회장 임기는 2년이다.

강 신임 회장은 1991년 조선일보에 입사해 문화부·경제부·산업부 기자를 거쳐 파리특파원, 2013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사무국장을 지냈다. 지난해 4월부터 조선일보 사회정책부장을 맡았다.

강 회장은 취임사에서 “언론계에 여기자들이 많이 늘어났지만 중견 기자로 성장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다”며 “여기자들이 지속 가능한 근무 환경에서 자신의 역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기회를 넓히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김혜례 KBS 라디오뉴스제작부장과 채경옥 매일경제 논설위원을 감사로, 이미숙 문화일보 국제부장, 고희경 SBS 보도제작부 차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총무이사에는 강수진 동아일보 문화부장, 기획이사에는 이순녀 서울신문 국제부장, 출판이사에는 김민아 경향신문 논설위원이 선임됐다. 박용남 기자 bangnam@

불보건설기계 ‘사랑의 집짓기’ 1억 지원

굴삭기 전문기업 불보건설기계코리아가 한국해비타트와 ‘사랑의 집짓기’ 후원 협약을 맺고 14년 연속 사회공헌 활동 프로젝트를 이어갔다.

불보건설기계코리아는 1일 서울 한남동 불보빌딩에서 한국해비타트 유대환 대표와 석위수 불보건설기계코리아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 협약을 맺고 ‘사랑의 집짓기’ 활동을 위한 후원금 1억 원을 지원했다. 이날 전달한 후원금은 불우이웃을

위한 일반주택 및 이동식 주택 제공에 사용하게 된다. 아울러 불보건설기계코리아 임직원 및 가족 80여명은 오는 8월 4일부터 8일까지, 2회에 걸쳐 5일 동안 전남 광양에서 사랑의 집짓기 현장을 자원봉사자로 참여한다. 실제 임직원이 나서 땅을 흘리며 이웃사랑을 실천할 예정이다.

불보건설기계코리아의 ‘사랑의 집짓기’ 활동은 2001년 ‘지미 카터 특별건축사업’을 계기로 시작했다. 구성원 기자 carlove@



지난 30일 서울 한남동 불보 빌딩에서 석위수 불보건설기계코리아 사장(왼쪽)이 한국해비타트 유대환 대표와 ‘사랑의 집짓기’ 후원 협약을 맺고 후원금 1억 원을 지원했다.

대해 윈프리, 클리퍼스 구단주 노린다

대해 윈프리 대변인은 “윈프리가 게렌, 엘리슨과 클리퍼스 정상화를 위해 인수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NBA의 전설적 스타인 매직 존슨도 클리퍼스 인수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클리퍼스 구단주였던 도널드 스틸링은 자신의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내 경기장에 흑인을 데려오지 마라”는 인종 차별적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NBA 사무국은 스틸링에게 영구제명 징계를 내리 사실상 구단주 자격을 박탈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적극 지원”

저우상원 전 뤼순감옥박물관장 방한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는 일은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의무입니다.”

중국 다롄(大連)시 뤼순(旅順)구에 있는 뤼순감옥박물관의 초대 관장(1972~1996)인 저우상원(周祥善·사진)씨가 지난 26일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저우 전 관장은 1966년 뤼순감옥 공공묘지 발굴을 계기로 안중근 의사 연구를 시작했고 박물관 관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다롄시 근대사연구소의 초빙연구원으로 일하며 안 의사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안 의사 유해를 찾는 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안 의사의 유해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단 1%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전심전력을 다해 유해 발굴을 도울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1966년 애국교육전 랍관(뤼순감옥박물관의 전신) 개관 준비 작업자 뤼순감옥 주변 주민, 수감자, 감옥 직원 등을 만나 인터뷰하고 묘지 일부를 발굴하는 데 참여했던 그는 “일본 감옥에서 때려낸 감옥에서 사망한 사람은 목관에 넣어 3년간 묻었다가 꺼내 합장을 해야 했기 때문에 1910년에 사형된 안 의사의 유해도 합장돼 뤼순감옥 주변 묘지에 묻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40년 가까이 안 의사를 연구해온 그는 안 의사를 “한국의 제1의 민족영웅”이라고 평가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고 동양의 평화를 위해 헌신한 그의 정신과 두려움 없이 행한 하업인 의거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구성원 기자 carlove@

인사

◆이투데이 ◇부국장 △경제국장 겸 경제정책부장 김경철 △시정국장 겸 자본시장부장 강혁 △문화경제국장 겸 문화부장 배국남 ◇부장 △사회경제부장 이은호 △금융시장부장 김덕현 △부동산시장부장 정재석 ◇차장 △시정국 부동산시장부 이태웅 △시정국 포커스팀장 현유섭 △경제국 사회경제부 사회담장 김민수 △경제국 온라인뉴스부 차상엽 △이투데이피플씨 김성배 ◇차장대우 △시정국 산업부 조남호 △시정국 미래산업부 하유미 △시정국 자본시장부 설경진 △시정국 금융시장부 안철우 △경제국 사회경제부 배준호

◆미래창조과학부 △심의관 최영혜
◆기초과학연구원(BS) △초강력 레이저과학 연구단 그룹리더 김경택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경역지원부 총무실장 유동훈 △인력경영실장 유호남 △회계재무실장 이남기 △구비재정실장 김미라 △대의협력실 홍보팀장 김대인
◆한국감정원 ○본부장 △혁신경영본부장 김학규 △심사·공시본부장 김상권 △수탁사업본부장 이원민 △신사업본부장 김원식 △부동산연구원장 채미옥 ◇권역본부장 △수도권본부장 김중해 △서남

권본부장 조계영 △동남권본부장 이승재 △실적장 △기획조정실장 홍성훈 △홍보실장 변성렬 △경영관리실장 정찬운 △정보전산실장 송진엽 △부동산공시처장 이희원 △타당성심사처장 한숙렬 △평가업무처장 박철형 △보상사업처장 임병수 △신사업개발처장 김남수 △녹색건축센터장 손형배 △연구개발실장 박기서 △부동산통계센터장 김양수 △감사실장 임윤승 ◇지사장 △서울강남지사장 김경훈 △서울중부지사장 윤일채 △서울동부지사장 조주현 △서울남부지사장 김형철 △경기 수원지사장 정덕양 △경기기성남지사장 박동준 △경기안산지사장 노재수 △인천지사장 박승만 △경기일산지사장 장종권 △경기 의정부지사장 임병수 △강원춘천지사장 최승문 △강원강릉지사장 구분광 △대전지사장 김태훈 △충남천안지사장 이상영 △충남홍성지사장 조성용 △충북청주지사장 최기연 △평강지사장 김병복 △전북지사장 김성식 △전남순천지사장 서경화 △제주지사장 정상규 △부산동부지사장 김열두 △부산서부지사장 최규성 △울산지사장 김중휘 △경남창원지사장 김석현 △경남진주시지사장 양기문 △대구지사장 김성찬 △경북안동지사장 박기학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제연구원
◇승진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겸 기획조정본부장 전무 배상근 ◇전보 △한국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 송원근 △전경련 기업정책팀장 신석훈
◆한국회계재무협회 ◇신규 선임 △부이사장 겸 경영지원본부장 김윤동
◆삼성증권 ◇상무 △고객전략실장 정영관 △고객보호센터장 이학기 △기획관리팀장 이승호 △강남1권역장 박경희 △인사홍보담당 이성한 △강서권역장 심재은 ◇담당 및 사업부장 △고객자산운용담당 정진근 △상품전략담당 조한용 △퇴직연금사업부장 조인모 ◇부서장 및 지점장 (승진) △채권영업팀 인준호 △구리 Branch 김정희 (전보) △제기동 김용일 △반포 가영미 △이촌경에 △일산 최연희 △강릉 황문원 △여의도법인 장춘섭 △중로 강상민 △구로디지털 정재용 △북동 이충전 △관악 연제무 △수유 김종훈 △송파 정명신 △해운대센터 박종화 △구미 김영출 △대구중앙 최영준 △대구 황성태 △부천 원유원 △평촌 함승우 △서초 한덕수 △안산 우용하 △진주 이상근 △수원법인 배성환 △Wrap운용팀 류형근 △결재팀 장재호
◆현대증권 ◇부서장 전보 △법인영업



업자인 데이비드 게렌과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의 최고경영자(CEO) 래리 엘리슨도 인수전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가 로저래빗을...’ 英배우 밥 호스킨스 별세

파킨슨병 투병... 향년 71세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영화배우 ‘밥 호스킨스(Bob Hoskins)’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향년 71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누가 로저래빗을 모함했나’로 국내에 잘 알려진 호스킨스는 2012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투병하던 중 합병증인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 호스킨스는 병원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생을 마감했다고 유족



들은 밝혔다. 잉글랜드 서포크주 출신의 호스킨스는 연극무대를 거쳐 영화계로 진출해 영국과 할리우드를 오가며 개성과 배우로 활약했다. 그는 ‘모나리자’와 ‘누가 로버래빗을 모함했나’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두 차례 올랐다. 그의 가족으로는 부인 린다와 네 자녀 앨리스·세라·로사·잭이 있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부음

▲홍성희(신영증권 IT·경영지원본부장)·성창(경기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귀옥서 모전상, 백홍구(연세대 신소재공학부 교수)씨 장모상 = 30일, 신촌세브란스 병원, 발인 5월 2일 오전, 02-2227-7500
▲김동진(한진중공업 전무)씨 모전상, 김성운(삼일회계법인)씨 조모상, 박정광(대한예수장로교회 목사)씨 장모상 = 30일 오후, 삼성서울병원, 발인 5월 2일 오전, 031-787-1502
▲김중규(경기일보 편집부장)씨 부친상 = 30일 오전, 세종시 연서면 국촌리 세종장례식장, 발인 5월 2일 오전, 044-866-4444

몸값, 중간은 없다



배용준



이병헌

‘태왕사신기’ 배용준 회당 2억5000만원...일일극 단역은 11만9540원

드라마 배우들의 드라마 출연료는 천차만별이다. 회당(70분 기준) 역소리 나는 출연료를 받는 배우가 있는가 하면 10만~20만원 혹은 출연료를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지상파 3사(태블릿 및 코미디언 출연료 기준)에 따르면 6등급부터 18등급까지 나눠 해당 등급에 맞는 출연료를 지급하게 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최고등급인 18등급은 주말연속극의 경우 169만5190원, 미니시리즈는 184만9300원이다. 톱배우에 속하는 배용준은 ‘태왕사신기’ 출연 당시 회당 2억5000만원을 받았다. 이 밖에 장근석, 박신양, 이병헌, 장동건도 역대 출연료를 자랑한다. 고현정, 송승헌, 송해, 송혜교 등은 회당 5000만~1억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생계형 배우도 존재한다. 주로 조·단역 배우가 이에 속한다. 가장 최하위 등급은 6등급으로 10분 기본료가 3만5310원(MBC, SBS), 3만4650원(KBS)이다. 일

일연속극의 경우 장르 중 가장 낮은 금액이 책정된다. 기본급에 15% 가산돼 11만9540원(30분, KBS)이다. 장르 중 가장 높은 출연료를 매기는 미니시리즈의 경우 기본급에 80% 가산돼 43만6590원(70분, KBS)을 받는다. 제작사와 방송사의 출연료 미지급 문제로 이어지면 아예 출연료를 못 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송창근 사무총장은 “드라마 현장에서는 고액의 출연자와 작가, 연출자도 있지만 최저 성인등급도 받지 못하는 연기자들이 존재하며 갈수록 격차는 심해지고 있다”며 “출연료를 결정하는 것은 최종 방송사와 제작사다. 한류로 인한 해외 판매를 생각하고 고액 출연료를 주기도 한다. 다시금 제2의 한류를 꿈꾼다면 출연료와 스태프 임금을 지급 보증하고, 열악한 제작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는 방송사의 책임 있는 모습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승우



김준수

티켓파워 1위 김준수 회당 3000만원...양상블 4개월 400만원

뮤지컬 같은 뮤지컬 배우라도 한 회 출연으로 매겨지는 몸값은 하늘과 땅 차이다. 최근 몇 년 사이 3000억원대 규모로 성장한 국내 뮤지컬 시장은 외국과 다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바로 출연 배우에 따라 작품의 흥행 성패가 크게 좌우되는 것이다. 이 같은 까닭에 흥행을 몰고 다니는 스타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더욱이 대극장 무대에 설 수 있는 배우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적은 것도 원인이 됐다. 최고의 개런티를 자랑하는 뮤지컬 배우는 바로 김준수와 조승우다. 2010년 ‘모차르트!’로 뮤지컬계에 데뷔한 김준수는 당시 3000석의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15회 공연을 단숨에 매진시켰다. 당시 회당 2000만원가량의 개런티가 책정됐던 김준수는 ‘엘리자벳’, ‘디셈버’를 거쳐 최근 3000만원을 웃도는 개런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김준수는

굿즈, OST 등 부가 비즈니스로 인한 수익 발생 때마다 계약서를 새로 써, 개런티 외에 수익도 거둬들이는 셈이다. 아울러 ‘지킬 앤 하이드’ 등을 통해 티켓 파워를 자랑해온 조승우는 2010년 1800만원의 개런티를 받는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최근 조승우의 개런티는 2000만원대 수준이다. 임태경, 옥주현, 안재욱, 신성록 등이 그 뒤를 따른다. 반면 주·조연급 외에 양상블의 출연료는 경력 또는 나이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2개월 반의 연습과 1개월 반의 공연기간을 더한 총 4개월의 작품 투입 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낮은 금액을 받은 양상블은 350만~400만원 수준이다. 소극장도 천차만별이다. 소극장 스타 플레이어의 경우 회당 100만원 안쪽으로 받는다. 가장 낮은 뮤지컬 연기자 개런티는 회당 5만원이며, 연극의 경우 회당 2만원도 존재한다. 최두선·김민정·이꽃들 기자 sun@

랭킹 엔터테인먼트

영화는 히어로물이 인기다. 앤드류 가필드와 엠마 스톤이 출연하는 할리우드 영화 ‘에메이징 스파이더맨 2’가 주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TV는 KBS 1TV 일일드라마 ‘사랑은 노래를 타고’가 시청률 26.9%(닐슨 코리아 제공, 이하 동일)를 기록해 왕좌를 지켰다. 김희선, 이서진 주연의 KBS 2TV 주말드라마 ‘참 좋은 시절’은 26.1%의 시청률로 2위에 올랐다. 음악은 듀엣이 대세다. 악동뮤지션의 ‘200%’가 1위를 기록했다. 하이포, 아이유의 달콤한 목소리 호흡이 돋보이는 ‘봄 사랑 뱀꽃 밭고개’가 2위를 수성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온라인 음원차트

순위	곡명	아티스트	전주비교
1	200%	악동뮤지션	0
2	봄 사랑 뱀꽃 밭고개	하이포, 아이유	0
3	미스터 추	에이핑크	1
4	야생화	박효신	-1
5	인연	윤민수, 신용재	0
6	티가 나나봐	피프틴	0
7	별	소유, 정기고	2
8	기브 러브	악동뮤지션	-1
9	견딜만해	매드클라운	-1
10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이선희	2

영화 박스오피스

순위	영화	누적관객	개봉일
1	에메이징 스파이더맨 2	370만 5396명	2014-04-23
2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80만 1763명	2014-03-26
3	방향하는 칼날	27만 8424명	2014-04-10
4	천재 강아지 미스터 피바디	25만 8597명	2014-04-24
5	다이버전트	8만 1887명	2014-04-16
6	한공주	61만 3912명	2014-04-17
7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6만 0831명	2014-03-20
8	선 오브 갓	21만 2557명	2014-04-10
9	페이스 오브 러브	4만 6097명	2014-04-16
10	니드 포 스피드	13만 3740명	2014-04-16

TV 시청률

순위	프로그램	시청률	방송사
1	사랑은 노래를 타고	26.9	KBS 1TV
2	참 좋은 시절	26.1	KBS 2TV
3	기황후	24.7	MBC
4	KBS9시뉴스	19.3	KBS 1TV
5	천상여자	18.4	KBS 2TV
6	정도전	17.9	KBS 1TV
7	인간극장	12.4	KBS 1TV
8	나만의 당신	11.9	SBS
9	왔다 장보리	11.9	MBC
10	SBS 뉴스속보	11.7	SBS

부익부 빈익빈 심각



송강호



하지원

송강호·하정우 등 스타 배우 6억~7억...보조출연자 연 1000만원 미만

영화 영화계 편당 출연료는 톱스타의 경우 7억원을 넘어섰다. 송강호, 하정우, 이병헌, 김윤석 등 연기력과 스타성을 겸비한 영화배우의 경우 출연료가 6억~7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런닝 개런티는 별도로 책정돼 영화가 흥행할 경우 더 큰 부를 손에 쥌 수 있다. 지난해 한국영화 관객이 2년 연속 1억명을 넘어섰고, 영화 관객이 2억명을 넘어서는 등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면서 영화배우의 출연료 역시 급증했다. 최민식, 설경구, 류승룡, 황정민, 차태현, 원빈, 김수현, 현빈 등은 4억~6억원의 출연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호, 유아인, 이종석, 김우빈, 송중기

등 청춘스타의 몸값도 3억원 수준이다. 여배우의 경우 하지원, 손예진, 임수정, 김혜수 등이 4억원 이상의 출연료를 받고 있으며 전도연, 전지현, 한효주 역시 3억~4억원의 출연료를 자랑한다. 반면 영화의 감초 역할을 해내는 보조 출연자의 출연료는 국가 지정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조사한 보조출연자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88.71%가 연소득 10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고 이중 23.56%의 소득은 100만원 미만으로 불과했다. 이는 올해 월 최저임금(108만889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런 상황은 영화계 양극화 현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HYUNDAI 현대미디어 헬스메디tv

Dr. 김시완, Dr. 유상우, 의학기자 홍혜길

거침없는 세 남자 닥터들이 만난다!

삼DOC
굿DOC

금요일 밤 9시 방송 www.healthmedi.co.kr

TOTAL SPORTS CLUB
sanyaro 

내리막 미끄럼에 강하다 산야로 브레이크 등산화!

교체형 스파이크가 형성된 브레이크 등산화 출시!

산야로 브레이크 등산화는 아웃솔 전면부에 4개의 교체형 스파이크를 장착하여 스파이크의 기능에 따라 어떠한 조건에서도 미끄럼을 제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SM2440
[스파이크 및 렌치 증정]



SM2434



SU2435



SM2436



SU2437



SW2443



SM24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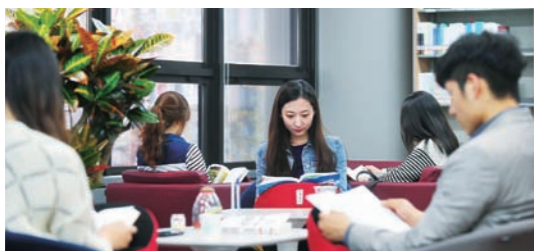
가정의 달 고객초청 골프의류 및 등산화 세일!

50%~30% Sale 4.14 ▶ 5.11

- 잔디로 2014년 S/S 골프의류 및 기능성 의류
- 산야로 브레이크 등산화 및 트레킹화, 워킹화
- 골프화, 골프장갑, 골프볼, 양말 등(일부품목제외)
- 장 소: 잔디로 목동점, 전주점, 잔디로닷컴



Inside ▶▶



채용 트렌드 '인문학적 소양' ■ 20면



퍼스트 클래스 스토리 / 아우디 ■ 21면

Cover Story

전세대란 꺾였나

"전세금이 여전히 높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매물을 골라잡을 수 있어요. 한두 달 전만해도 전세물건을 구하느라 난리였는데 최근엔 평형대별로 2-3개씩은 대기 매물이 있어 전세 구하기가 한결 쉬워졌습니다."(서울 목동 L공인중개 관계자)



거품 빠진 전세가... 숨통 트인 주택시장

수요자 "차라리 내집마련" 미분양에 관심
86주만에 가격하락... 묻지마 계약 사라져
강남 최대 1억원대·강북 5000만원선 내려
학군 인기 지역따라 7-8월쯤 다시 오를 듯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 추이
단위: %

	2014년3월1일	3월17일	3월24일	3월31일	4월7일	4월14일	4월21일	전년말
전국	0.19	0.12	0.05	0.03	0.04	0.02	0.01	2.36
수도권	0.28	0.15	0.05	0.01	0.01	-0.01	-0.01	3.22
지방	0.09	0.09	0.04	0.04	0.06	0.04	0.04	1.5
서울	0.12	0.08	0.04	-0.01	0	-0.03	-0.03	2.41

주택시장에서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장기간 천정부지로 뛰던 전셋값이 최근 하향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이다. 전세금 급등과 함께 매물 자체가 사라졌던 전세 물건이 하나둘씩 시장에 나오면서 전세금도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 이는 올해 초까지 계약금을 먼저 걸고 전세 매물이 나오는 대로 계약하는 묻지마 전세계약까지 성행하던 분위기와 크게 대조적인 것이다.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0.01% 하락하며 2주 연속 약세를 기록했다. 직전주 86주(1년 8개월) 만에 첫 하락곡선을 그린 이후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전세금 상승세를 이끌던 강남지역에서 전세매물을 찾기가 쉬워진 단지가 늘고 있어 주목된다.

잠실동 리센츠는 없어서 못팔던 전세매물이 최근 단지별로 2-4건 이상 대기 중이다. 연말 7억5000만원까지 치솟았던 전용 85㎡ 전세금은 6억원대 초중반으로 내려앉았다. 강남 재건축 단지들도 가격 조정이 시작했다. 잠실주공5단지 76㎡ 전세금이 3억1000만원에서 3억원까지 조정됐다. 강남구 압구정동도 연초보다 전세금이 많이 떨어졌다. 1월에 5억7000만원에 실거래된 현대14차 전용 85㎡는 5억원대 초반 호가로, 급매물은 4억원대

후반까지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천구 목동도 전세난이 진정되고 있다. 평형대별로 연초 대비 5000만원가량 전세금이 낮아졌다. 강북권 일대 아파트들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노원구 하계1차 정구 전용 85㎡ 전세매물은 연초 호가만 3억5000만원에, 계약도 3억3000만원 이상이었지만 최근에는 3억1000만~3억2000만원으로 호가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듯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전세금이 떨어진 것은 이사철이 끝나면서 전세수요가 줄어들었다. 장기간 전세금이 오르면서 전세수요가 일부 매매수요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분석된다. 실제로 전세금이 폭등하자 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으로 방향을 틀어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전월(2만9278가구)에 비해 3196가구 감소한 2만6082가구가 나타나 5개월 연속 줄었다. 수도권에서 고액 전세에 대한 대출 지원이 줄어들어 수요가 줄어들었다. 반면 공급 측면에선 입주하는 아파트 물량이 크게 늘었다. 국

토부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4만2640가구였던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에는 5만3202가구로 24.7%나 증가했다.

전세금 하락세는 얼마나 지속될까. 전문가들은 급등에 대한 피로감으로 예정처럼 전세금이 폭등하진 않겠지만 하락세가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셋값 하락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얘기다.

양지역 리얼투데이 팀장은 "최근의 전셋값 하락은 학군의 영향이 크다"며 "전체적으로 전세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는 언제든 전셋값이 반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연 유엔알 건설링 대표도 "학군 인기지역의 경우 움직임이 빨라 7-8월부터 상승세가 예상된다"면서 "저렴한 소형주택도 신혼부부 등의 높은 수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

'2·26 대책' 발표 후 수요자들 "지켜보자"

아파트 가격도 떨어져

수도권 8개월만에 하락 반전

매수 심리도 진정 거래량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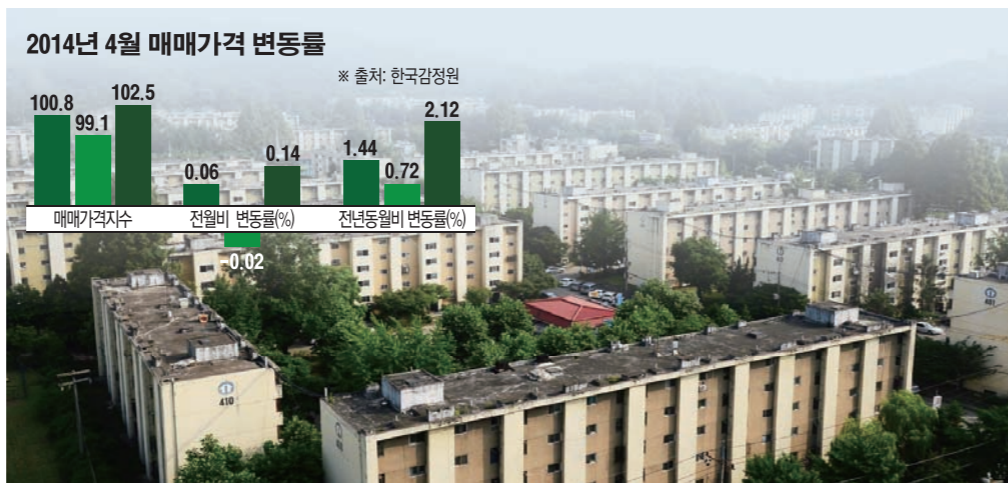
수도권 주택가격이 8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4월 수도권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0.02% 하락하며 8개월 만에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경기도의 주택가격이 전월 대비 -0.07%로 역시 8개월 만에 떨어졌고, 서울도 -0.01%로 4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2·26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매수 심리가 꺾이면서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도 거래가 줄면서 매매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공단의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975건으로 하루 평균 265건이 거래됐다. 9477건을 기록한 지난달 하루 평균 거래량(305건)보다 13.2% 줄어든 수치다. 특히 주택시장을 이끄는 강남권(1360건)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45건으로 27.7% 감소했다.

주택 실거래가 신고를 매매 계약한 뒤 60일 안에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2·26 대책'이 발표되면서 수요자들이 주택 구입을 보류하고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H공인 관계자는 "지난 2월까지만 해도 거래가 활발했는데 3월 이후 관망세가 역력하다"며 "1·2월에는



재건축 추진단지가 많은 강남권의 경우 아파트값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업계에 따르면 '2·26 대책' 이후 2개월 동안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2% 정도 하락했다. 사진은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 전경.

매매 계약이 한 주에 평균 2·3건이었으나 요즘엔 1건도 어려운 정도"라고 말했다.

특히 재건축 추진단지가 많은 강남권의 경우 아파트값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업계에 따르면 '2·26 대책' 이후 2개월 동안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매매 가격은 2% 정도 하락했다. 지난 1·2월 2.6% 올랐던 것과 대비된다.

송파구 가락시영2차 전용면적 56㎡형은 2월 말 9억4500만원에서 4월 말 8억3500만원으로 두달 새 11.6% 급락했다. 잠실주공 5단지 81㎡도 같은 기간 12억원에서 11억7500만원으로 2%가량 내렸다.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 전용 42㎡형도 같은 기간 6억8000만원에서 6억3250만원으로 7%가량 내렸다.

중대형 아파트도 상황은 비슷하다. 2월 말 14억5000만원이었던 서초구 반포동 한신3차 전용 133㎡형은 현재 5.5% 떨어진 13억7000만원 정도다. 송파구 신천동 장미3차 아파트 134㎡형도 10억5000만원에서 9억9500만원으로 내렸다.

전문가들은 2·26대책 발표 이후 다주택자들의 투자 수요가 크게 줄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그간 정부의 부동산정책(매매 활성화 위주)이 시장을 힘겹게 받쳐왔지만 임대소득 과세방침 이후 분위기가 급변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회에서 임대주택 과세방침을 확정하는 6월까지의 관망세 속 숨고르기 양상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강영관 기자 kwan@

전세시장 안정세 당분간 지속

"#연초만 해도 학군 수요 탓에 전세물건이 가물에 콩 나듯 했지만 봄 이사철이 마무리되면서 점차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대기물건도 하나 둘씩 출시되고 있습니다." (서울 목동 S공인 관계자)

"#전세 거래가 잠잠해지면서 전세물건이 꽤 나온 상황입니다. 가을이 되면 다시 오를 수 있어 지금이 전세 구하기에는 적기인 듯 보입니다" (서울 대치동 G공인 관계자)

진원지 목동·강남 주춤 분양시장으로 수요분산

아파트 전세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다. 아직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상승 폭은 줄어들고 있다. 봄 이사철이 지나며 전세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이다.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0.01% 하락하며 2주 연속 약세를 기록했다. 직전주 86주(1년 8개월) 만에 첫 하락 곡선을 그린 이후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은 전세 물량 증가와 수요 감소로 전세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114 조사에서도 지난주 서울 전셋값은 주간 0.03% 상승해 전 주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신도시는 0.01% 하락했고, 수도권은 0.01% 미미하게 올랐다. 국지적인 움직임 속에 이사수요가 줄자 가격이 하향조정됐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계절적 비수기, 학군수요 감소, 분양시장 수요이전 효과 등이 겹치면서 전셋값 상승률이 둔화됐다"며 "늦 여름부터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는데 그 이전까지는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려 6억2000만~6억3000만원 선이지만 5억8000만원짜리 매물도 나왔다. 잠실 A공인 관계자는 "연말 연초 한창 학군 수요가 절정일 때는 7억~7억2000만원 선이 시세였는데 최근 5000만원 이상 내렸다"며 "학군 이사철이 끝난 이후로는 매물도 쌓이고 가격도 한풀 꺾였다"고 말했다.

신규 입주 아파트 물량이 증가한 것도 전세가격을 진정시키는 데 한 몫하고 있다. 전셋값 상승에 지친 실수요자들이 새 아파트 청약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의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신규 분양이 줄을 이으면서 전세를 구하는 실수요자들이 매매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전세매물들이 현재 하나둘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세시장 안정세 지속... 이사철 전세난 재현 우려 = 전문가들은 전세시장 안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계절적 영향과 실수요자들의 매매전환 요인이 작용해서다.

이사 비수기·학군수요 숨고르기
연초보다 최고 5000만원 낮아져
수요자 매매전환 움직임도 한몫
8월이후 가격반등 조심스런 전망



잠실주공 5단지.

◇목동·강남 등 전셋값 강세지역 최근 주춤 = 현장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서울 전세시장은 지역별 이슈에 따라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곳이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수요가 주춤해 거래가 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그동안 전셋값 급등의 진원지 역할을 했던 강남과 목동 등에서 전셋값이 하락하고 있다.

겨울방학 학군수요가 마무리된 양천구 목동은 중형 위주로 전셋값 상승세가 주춤하다. 신시가지7단지 66㎡가 3억2000만~3억4000만원 선으로 이달 들어 1000만원 내렸다. 신시가지1단지 83㎡는 최고 2000만원 떨어진 4억2000만~4억3000만원 선이다. 평형대별로 연초 대비 5000만원가량 전셋값이 낮아졌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강남구 대치동과 개포동도 최근 전셋값이 약보합세로 돌아섰다. 개포 우성1차 전용면적 85㎡의 경우 연초 7억원에 거래되던 전세가 6억2000만~6억5000만원으로 떨어졌다. 송파구에서는 잠실동의 경우 주공5단지를 비롯해 리센츠·트리지움·잠실엘스 등 대부분 단지에 여유 물건이 있는 편이다. 트리지움 84.8㎡는 올 들어 1000만원가량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세난에 대한 세입자들이 서둘러 전세를 구하는 '선소비' 행태를 보이면서 정작 이사철엔 가격이 안정되는 모습"이라며 "자가의 소형주택은 여전히 신혼부부의 수요가 예상되나 당분간 학군 인기지역이나 고가 전세의 가격이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는 8월 이후에는 전셋값이 다시 꿈틀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사철이 되면 다시 수요가 몰려 전세난이 재현될 수 있다는 말이다.

양지역 리얼투데이 팀장은 "최근의 전셋값 하락은 학군의 영향이 크다"며 "전체적으로 전세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지역에서는 언제든 전셋값이 반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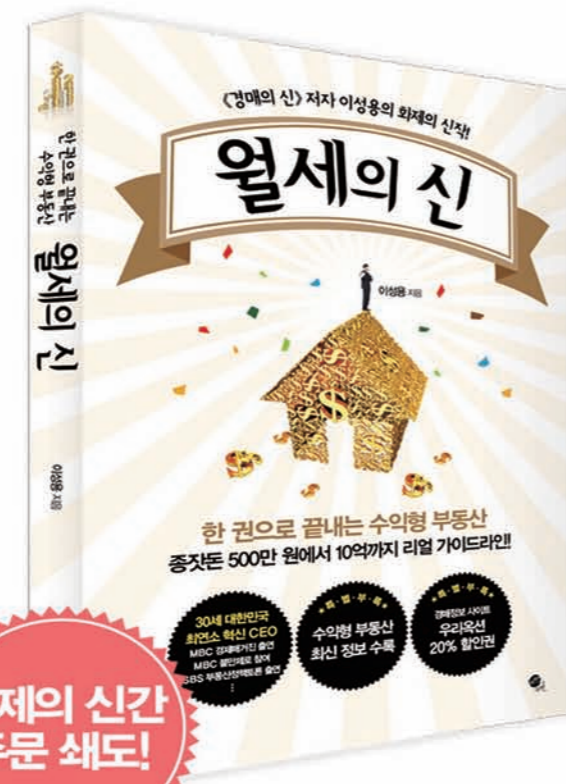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이후 수요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함영진 센터장은 "4월 이후 입주할 서울 재건축 단지가 1만4000가구에 달해 이들 단지가 사업 속도를 높이면 전세시장의 잠재적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주 단지가 많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상승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영관 기자 kwan@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전셋값이 하향세로 돌아서고 있다. 학군 이사 수요가 줄어드는 시기인 데다 높은 전셋값에 신규 분양으로 수요가 분산된 영향이다.

《경매의 신》 저자 이성용의 화제의 신작!

월세의 신



화제의 신간
주문 해도!

이성용 지음 | 248쪽 | 13,000원

한 권으로 끝내는 수익형 부동산
종자돈 500만 원에서 10억까지 리얼 가이드라인!

읽을 때만 이해되고 적용 못하는 책 말고,
해결방안은 내 문제로 남는 책 말고,
실전 노하우로 진짜 부자가 되는 책!



“주변보다 저렴하고 입지 좋다면 노려볼 만”

알짜 미분양 단지 주목

서울에서는 ‘래미안 강동 팰리스’ ‘왕십리뉴타운 1구역 텐트힐’ 관심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롯데캐슬’ ‘인천SK스카이뷰’ ‘부평래미안’ 등

시설이 있어 입주자들이 생활하기 편하다는 장점 이었다.

공급이 많았던 경기 서북쪽에서는 관심을 기울 일 만한 미분양이 많이 남아 있다. 파주에는 ‘운정 신도시 롯데캐슬’, 일산에는 ‘일산 요진 와이시티’, 김포에는 ‘김포 풍무 푸르지오 센트레빌’이 분양 중이다. 모두 2000가구 가까운 대단지들이다. 대단지는 커뮤니티시설이 잘 갖춰진 데다 수요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서 상권이 발달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인천에서는 4000가구 가까운 ‘인천SK스카이뷰’와 1000가구가 넘는 ‘송도 더샵그린위크3차’, ‘부평 래미안’이 분양 중이다.

SH공사는 강남 세곡2지구 3·4단지 ‘세곡2지구 강남 한양수자인·자곡포레’의 미계약을 선착순 분양하고 있다. 이번엔 세곡2지구 3·4단지에서 나오는 물량은 전용면적(이하 모두 전용면적) 101~114㎡형 129가구다. 분양가는 3.3㎡당 1600만원대. 또한 SH공사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1·7단지, 14~15단지 공공분양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다. 114㎡ 잔여물량을 선착순 분양 중이다. 마곡지구 공공분양 아파트는 3.3㎡당 1200만원대다. LH는 경기도 하남미사지구 A7블록과 한강신도시 내 Ab-06블록에서 잔여가구를 분양 중이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팀장은 “실수요자들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입지가 좋은 미분양이 있다면 구매를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며 “다만 학군, 편의시설 등 주거환경과 향후 전망에 대한 요소도 고려 사항에 넣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일산 요진 와이시티 조감도.

미분양 물량 빠르게 소진

최근 주춤해지긴 했지만 주변에서는 전세 물건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푸념이 여전히 이어진다. 실제로 제작년 말부터 치솟기 시작한 전셋값은 올초까지 이어지며 많은 국민들에게 집 없는 설움을 톡톡히 안겨줬다. 때문에 ‘차라리 집을 사자는 수요가 생겼고 이에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방도 광역시를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가격 폭등에 지쳐 “차라리 집 사자” 늘어

◇미분양 주택 8년만에 최저치= 최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이 4만8167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5만2391가구) 대비 4224가구 줄어든 것으로 7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로써 미분양 주택 수는 2005년 10월(4만9495가구) 이후 8년 5개월 만에 4만 가구대로 떨어졌다.

수도권은 2만6082가구로 전월(2만9278가구) 보다 3196가구 감소했다. 서울은 2259가구로 전월보다 475가구 줄었으며, 인천은 6314가구, 경기도는 1만7509가구로 각각 577가구, 2288가구 감소했다. 지방은 2만2085가구로 전월(2만3113가구) 보다 1028가구 줄었다.

이처럼 미분양 주택이 감소하는 이유는 4·1대 책과 8·28대책 등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활성화 정책과 전셋값 상승으로 매매에 나서는 수요자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송도국제도시와 김포, 용인 등 수도권 지역은 서울 전셋값 수준에서 집을 구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미분양이 빠른

개발 만에 미분양 가구 수가 60% 이상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1196가구에서 12월 1234가구로 소폭 증가했지만 연초부터 신규 계약이 증가하면서 지난달 523가구까지 줄어들었다.

지난해 11월 미분양 가구 수만 5350가구에 이르렀던 부산은 4000가구 이하로 줄었고 울산은 연말 대비 500여 가구 줄었다.

윤지혜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전반적으로 미분양주택은 감소세로 오랫동안 물량이 쌓일 가능성은 낮다”며 “과거와 달리 최근 실수요자 시장으로 개편되면서 미분양 물량도 101㎡(구 39평) 이하 수준에서 미분양 해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공분양 미분양도 ‘눈길’= 이처럼 미분양 물량이 사라지며 특히 일반분양보다 가격이 저렴한 공공분양 미분양 물량도 인기를 끌고 있다. 공공분양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이 택지지구에 제한적으로 내놓는 일반분양 아파트다.



래미안 마포 웰스트림 조감도.

전국 미분양 8년만에 4만가구대
3월 수도권 전월 대비 3200가구↓
서울 전셋값 수준 송도·김포 주목
비교적 저렴한 공공분양 인기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실제로 대구건설이 송도국제도시 5공구에서 분양 중인 ‘송도 에듀포레 푸르지오’는 2월에 비해 3월 계약 건수가 4배나 증가했다. 이사철을 맞아 고민하는 수요자들이 계약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동부건설과 대구건설이 김포시 풍무2지구에서 분양 중인 ‘김포풍무 푸르지오 센트레빌’도 올해만 전체의 30% 이상 분양되며 미분양 물량을 빠른 속도로 줄여가고 있다. 특히 경기도 내 미분양 물량이 집중된 5곳(김포, 고양, 용인, 파주, 화성)이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김포시와 고양시, 용인시, 파주시, 화성시가 경기도 전체 미분양주택의 69%를 차지했다.

또한 지방 역시 전셋값 상승 기조가 계속되며 미분양 아파트 구입에 나서는 실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5대 광역시의 전세가율(매매 대비 전셋값 비율)은 △부산 68.5% △대구 74.1% △대전 71.2% △울산 72.3% △광주 77.8% 등으로 평균 70%를 훌쩍 넘었다.

때문에 부산·대구·울산·대전 등 지방 주요 광역시의 미분양 아파트 가구 수가 작년 말 대비 최대 50% 이상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서 분양 열기가 가장 뜨거운 대구는 3·4

실제로 공공분양 아파트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 청약 마감 행진을 하고 있다. 지난해 공급된 마곡지구 7단지 84㎡H형은 최고 334대 1, 미사강변도시 A18-19블록은 최고 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15일에는 대구혁신도시 내 B-5블록 잔여 세대(103가구) 입주자 모집 접수 결과 평균 1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공분양 아파트의 최대 장점은 저렴한 분양가다. 분양가가 대부분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에 불과해 민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높다. 또 정부는 공공분양 주택의 공급을 축소하고 있어 희소 가치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전망이다.

특히 공공분양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거주지역, 주택 보유 여부, 청약통장 가입 여부 등 까다로운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 때문에 더욱 인기가 높다. 또한 선착순으로 분양받기 때문에 동호회 지정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청약통장 등이 없고 입지 좋은 곳에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라면 공공분양 미분양 아파트를 노리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최근 전셋값 급등으로 실수요자들이 미분양 아파트에 눈길을 돌리며 미분양 물량이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 특히 지방까지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어 업계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은 송도국제도시 전경.


한국자산관리공사

새민 경제에서 나라 경제까지
대한민국 경제 키우미 캠프

오뎅이는 왜
쓰러져 있을까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오뎅!
일어서야 합니다

서민경제부터
나라경제까지
대한민국 자산을
관리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키우미 캠프



한국자산관리공사

경제가 어려워수록
오뎅! 일어서세요

생활고에 고금리 대출이자, 힘든 생활 속에서
쓰러질 때도 있지만 내일을 포기하지 않는
당신에게 대한민국 경제 키우미 캠프가
다시 일어날 힘이 되어드립니다.

어려운 서민에게 신용회복과 서민금융을 지원하여 재기의 희망을 키우는 캠프!
금융회사 부실채권을 신속히 인수·정리하여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키우는 캠프!
나라재산을 적극 관리하고 가치를 높여 국가재정을 키우는 캠프!

인터넷 검색창에 **국민행복기금** 을 쳐주세요 ■ 문의 : 서민금융다모아 1397

공채 트렌드 ‘文·史·哲’...구직자 2명 중 1명 “어렵다”

(문학·역사·철학)

기업 인문학적 소양 평가 증가 추세

상반기 공채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들의 채용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인문학적 소양을 평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구직자들의 이목을 끈다. 올 상반기 채용 트렌드가 인문학적 소양 평가의 비중 증가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삼성그룹에서 역사 등의 문항을 직무적성 검사에 추가하고, 현대차그룹은 역사 에세이 문제 비중을 높이고 있다.

이처럼 인문학적 지식과 교양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구직자들은 채용 시 인문학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한 취업포털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7명꼴로 이 평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이 최근 신입 구직자 396명을 대상으로 ‘인문학적 소양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설문한 결과 66.9%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 이유는 ‘가치관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50.2%,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사교의 깊이를



인문학적 소양을 쌓기 위해서는 평소 독서를 통해 지식을 축적하고 자신만의 관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국대학교 학생들이 본교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다. 사진제공 건국대

채용기업 리스트 (사람인)

기업	구분	모집	자격조건	우대조건	접수방법	마감일
대우조선해양	경력	설계, 생산관리, 시운전 등 9개 분야	4년제 정규대학 이상 졸업자 분야별 3년 이상 경력자 분야별 관련 전공자 HR: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경영관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전략: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취업지원대상자	채용 홈페이지 (recruit.dsmc.co.kr)	5/7
BC카드	인턴	IT	4년제 정규대학 이상 졸업자 및 8월 졸업 예정자 토익 700점 or 토익스피킹 레벨6 or ormock IM2등급 이상자 IT관련 전공자	시스템 프로그래밍 유경험자 국가보훈대상자 인턴실습 종료 후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 사원 채용	홈페이지 (www.bccard.com)	5/7
현대다이모스	인턴	R&D, 생산지원, 보전, 품질 등 7개 부문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전학년 평점평균 B학점 이상자 공인어학성적 보유자 영어 및 제2외국어 능력 우수자 부문별 관련 전공자	전문자격증 소지자 국가보훈대상자	홈페이지 (www.hyundai-dymos.com)	5/7
동아쏘시오그룹	신입	동아쏘시오홀딩스, 동아ST, 동아제약	4년제 정규대학 이상 졸업자 및 8월 졸업 예정자(연구·석사 이상) 해외(영양): 외국어 능통자(영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연구(제품): DMBio, 개발(임상), 생산(품질): 역사 면허 소지자	부문별 영어 및 일본어 능통자 부문별 석사 이상자 부문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국가보훈대상자	채용 홈페이지 (hr.dongae.co.kr)	5/7
현대오트베어	인턴	IT, 영업, 경영지원	2015년 2월 학사/석사 학위취득 예정자 전공무관	부문별 관련 전공자 영어회화 가능자 IT관련 자격증 소지자 경영지원·상경계열 전공자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하반기 신입공채 지원 시 서류 및 인적사항 전형 우대, 우수 수료자는 채용전환 여부 결정	채용 홈페이지 (recruit.hyundai-autoever.com)	5/9
미니스톱	신입(인턴)	전부문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외국어 능통자(영어) • 운전면허 및 차량소지자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인턴 평가 후 정규직 전환	홈페이지 (www.ministop.co.kr)	5/7
엔씨소프트	인턴	브랜드, 네트워킹 엔지니어, IR 등 17개 분야	대학 이상 졸업자 및 8월 또는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분야별 관련 전공자 • 분야별 외국어 우수자 분야별 관련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우수 수료자는 NC Flagship 선정 기회, 장학혜택과 정규직 입사 기회	채용 홈페이지 (recruit.ncsoft.net)	5/9
삼표그룹	신입/경력	삼표피앤씨, 삼표이앤씨, 삼표건설	부문별 전공·대졸 이상자 부문별 관련 전공자 경력: 부문별 2년 이상~10년 경력자	부문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부문별 CAD 등 관련 기술 보유자 부문별 현장근무 가능자	홈페이지 (www.sampyo.co.kr)	5/4
한국후지제록스	신입	서비스	초대졸(2년제) 이상 학력 소지자 전기, 전자, 통신, 정보통신, 컴퓨터 공학 계열 전공자	영어 가능자 • 인성관련 전공자 컴퓨터 활용 우수자 및 자격증 소지자 국가보훈대상자	홈페이지 (www.fujixeroc.co.kr)	5/7
린나이코리아	신입/경력	재경, 제품디자인, 시스템제어, 연료공보, 금형설계	4년제 대졸 이상자 (금형설계: 2년제 대졸 이상) 분야별 관련 전공자 제품디자인: 3D, 포토샵, 일러스트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포토샵/리도 제출자 경력: 분야별 3~5년 이상 경력자	일본어 가능자 • 관련 자격증 소지자 시스템제어: C언어 가능자 금형설계: 3D S/W UNIGRAPHICS 사용 가능자 일본어 가능자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채용 홈페이지 (recruit.rinnai.co.kr)	5/7

10명 중 7명은 “소양 평가 긍정적” 가치관 파악·사고 깊이 평가 좋은 방법 광범위한 내용 등 준비 어려움 느껴 “강의·독서로 지식 쌓고 관점 정리”

평가하는 좋은 방법이라서(49.1%), 스펙 인플레가 비교적 덜할 것 같아서(21.1%), ‘확실화된 평가 방식이 아니라서’(20.4%) 등의 순이었다. 반면 부정적이라고 밝힌 응답자(131명)는 반대 이유로 ‘평가 기준이 불분명해서’(42.7%, 복수응답), ‘준비해야 할 것이 더 많아져서’(35.9%), ‘일부 전공자에게만 유리한 것 같아서’(33.6%), ‘직무와 크게 연관되지 않는 것 같아서’(28.2%) 등을 들었다.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구직자의 절반 정도인 48.2%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준비하기 너무 광범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지원기업에서 원하는 것을 알기 어려워서’(23.6%) 등의 답변이 나왔다. 실제 기업에서 실시하는 인문학 평가 방법 중 가장 준비하기 어려운 것으로는 ‘에세이, 논술 등 서술 평가’(37.7%)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현재 기업에서 인문학적 소양 평가가 강화되고 있음을 체감하는지에 대한 문항에는 46.2%가 그렇다고 밝혔다.

대학 3학년인 박모(21)씨는 “대학 1, 2학년 때는 공인영어점수 올리기와 각종 자격증 획득에 집중했지만 지금은 취업과 관련 해당기관의 인제상, 즉 인문학적 소양 평가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며 “선배들도 요즘 쪽에 포커스를 맞춰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전체 구직자 절반이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또한 그 방법으로 가장 많은 79.8%가 ‘인문학 서적 읽기’라고 답했다. 이외에 ‘인문학 강연회 참석’, ‘인문학 소양 관련 채용 기술문제 풀기’, ‘인문학 스터디 그룹 참여’ 등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었다.

구직자들이 인문학적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관련 행사에 참석하거나 관련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또 이를 통해 쌓은 자신만의 소양을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

한다.

사람인의 임민욱 팀장은 “기업이 인문학적 소양 평가를 도입하는 이유는 세상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폭넓은 사고와 창의적 생각을 할 수 있는 인재가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인문학적 소양은 단기간에 쌓을 수 없는 만큼 꾸준하게 관련 서적과 강연을 들으며 지식을 쌓는 것은 물론 이를 토대로 평소 자신의 생각과 관점을 정리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주에는 대우조선해양을 비롯, BC카드, 현대다이모스, 동아쏘시오그룹, 엔씨소프트 등이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신입부터 인턴, 경력직에 이르기까지 채용 대상이 기업마다 다양하다. 4년제와 2년제 대학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모집이 진행되며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 이들 기업은 오는 4, 7, 9일 각각 서류접수를 마감한다. 박태민 기자 tipippo@

주목! 서울 일자리 교육훈련

이달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교육훈련이 준비돼 있다. 장애인 콜센터상담원, 경영·회계·사무 분야 교육훈련이 예정돼 있으며, 특히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교육과, 이직직 중장년 교육훈련도 준비돼 있으니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생생한 교육체험의 현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0~50세 경단년 면접요령 등 소개

◇경력단절 여성 취업준비교육 = 서울시에서는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서울시청 을지로 별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5층 교육장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준비교육을 한다. 30~50세 여성을 대상으로 구직전략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례 중심으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요령을 교육할 예정이며 모의 면접도 실시한다. 25명을 모집한다. 문의는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교육평가팀(02-731-9524-7)으로 하면 된다.

이·전직 청장년 대상 모의면접 실시

◇이·전직 중장년 취업준비교육 = 시에서는 13일 오전 9시 30분에서 12시 30분까지 서울시청 을지로 별관 5층 교육장에서 이·전직 청장년을 위한 교육훈련을 준비했다. 30~50세 이·전직 준비 남성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직전략을 수립하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법 및 실전 면접요령 교육을 실시한다. 모의 면접도 실시한다. 모집인원은 25명으로 12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교육평가팀(02-731-9524-7)으로 하면 된다.

한달간 장애인 콜센터 상담원 양성

◇장애인 콜센터상담원 양성교육 = 시에서는 콜센터 상담원에 관심 있는 장애인들에게 교육 및 취업으로 연계하는 콜센터상담원 양성교육을 12일부터 6월 12일까지 주 4일 수업(1일 3시간)으로 한 달간 진행한다. 수강대상은 성별 제한없이 15~45세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이다. 교육 장소는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로 강남구 대치동에 있다. 5주 교육 후 콜센터 취업 연계가 있을 예정이다. 서울시장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1588-1954)로 문의하면 된다.

경영·회계·사무분야 직무 교육

◇경영·회계·사무 분야 취업준비교육 = 경영·회계·사무 분야 취업을 위한 교육도 준비돼 있다. 교육 일자리는 8일 오전 9시 30분에서 12시 30분까지다. 경영, 회계, 사무 직무에 대해 교육과 취업전략 교육, 자기소개서와 면접요령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된다. 수강대상은 만 18~35세 청년 25명으로 선착순 마감이다. 접수는 7일까지, 교육장소는 서울시청 을지로 별관 5층 교육장이다. 문의는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교육평가팀(02-731-9524-7)으로 하면 된다.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

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 대의 소리를 강간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 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 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받지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난청은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망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분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착용 전 정확한 검사, 착용 후 꼼꼼한 관리가 중요!

보청기 구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정확한 청력측정을 통해 난청의 정도와 귀 모양에 맞는 맞춤형 보청기를 결정하는 것이다. 맞춤 제작된 보청기는 사용하는 기간

동안 어떻게 관리될 받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보청기의 사용기간이 달라지며 난청인이 새롭게 들을 수 있는 부분도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와이덱스 보청기 전문점들은 이를 위해 최신식 청력측정 장비를 완비하여 무료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정확한 청력측정을 통해 정교한 소리조절 및 체계적인 난청관리를 통하여 난청인에게 만족을 보장하고 있다.

와이덱스 보청기

신제품 DREAM(드림) 출시

(더욱 풍성한 소리, 더욱 개선된 어음 이해도, 사용자 친화적인 기능)

WidexLink™를 기본 탑재한 무선보청기로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환경에서 말소리를 쾌적하게 들려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 홈페이지(www.widexkorea.com)를 참고하세요.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과학기술원(KIST) 산하인성형연구소 2010-GN-11-0056

서울시 • 본 사 02-2093-1388 • 강남서초점 02-3465-1482 • 강동천호점 02-3152-8000 • 노원점 02-930-5488 • 목동점 02-2061-3730 • 사당점 02-534-3733 • 상봉점 02-495-5800 • 서울대점 02-878-1222 • 성북점 02-953-9990	• 신촌점 02-3141-1300 • 영등포점 02-2672-0880 • 왕십리점 02-2295-5060 • 양실목대점 02-424-9200 • 청량리점 02-966-0090	인천시 • 간석점 032-427-1388 • 계양점 032-548-0066 • 부평점 032-362-1888	경기도 • 고양덕양점 031-818-2000 • 고양일산점 031-915-9500 • 광명점 02-2616-5060 • 구리점 031-569-0073 • 부천점 032-666-0128 • 분당점 031-703-9900 • 산본점 031-390-6680	• 성남점 031-758-9800 • 수원점 031-244-8600 • 시흥점 031-311-6066 • 안산점 031-405-6700 • 안양점 031-465-2100 • 안양명학점 031-446-6500 • 용인점 031-337-0046 • 인천점 031-637-1427	광주시 • 서석점 062-225-9940	충청남도 • 충주점 062-225-9970	대구시 • 대구점 053-257-4455	대전시 • 서구점 042-471-9796 • 용문점 042-535-9995 • 유성점 042-824-9957 • 유주점 042-242-0117	부산시 • 동래점 051-557-1399 • 서면점 051-805-1388 • 수영점 051-625-2828	울산시 • 울산점 052-246-4500	강원도 • 강릉점 033-641-8201 • 속초점 033-638-9009	경상남도 • 거제점 055-636-8985 • 마산점 055-256-4400 • 마산합포점 055-242-9992 • 양산점 055-365-5233 • 진주점 055-748-9940	경상북도 • 구미점 054-455-9500	• 김천점 054-437-9112 • 안동점 054-841-9999 • 포항점 054-274-2504	전라남도 • 목포점 061-281-9191 • 순천점 061-755-7969 • 여수점 061-684-2800 • 해남점 061-534-5191	전라북도 • 김제점 063-548-0111 • 전주점 063-251-3331	충청북도 • 서산점 041-665-1170 • 천안점 041-563-0007	충청남도 • 제천점 043-643-0551 • 청주점 043-222-5551
--	---	--	--	--	----------------------------------	-----------------------------------	----------------------------------	--	--	----------------------------------	--	---	-----------------------------------	--	---	---	---	---

혁신·기술·안전·디자인... '네개의 링' 미래를 달리다

아우디 A6



1968년 '아우디 100'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해 1994년 현재의 모델명인 '아우디 A6'로 변경됐다. 2011년 새롭게 선보인 7세대 아우디 A6는 차체의 많은 부분이 알루미늄과 첨단 강철 소재로 이뤄져 매우 가볍다.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위한 다이내믹한 새시, 다양한 운전자 보조시스템 및 멀티미디어 시스템 등을 갖췄다는 평가다. 미국 컨슈머리포트는 A6를 '2013년 최고의 럭셔리 카로' 선정한 바 있다.

아우디 Q5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운전자를 위한 풀타임 4륜 구동 시스템 콰트로 차량이다. 아우디는 Q5에 다이내믹한 서스펜션, 혁신적인 7단 S-트론닉 듀얼 클러치 변속기, 다양한 모드의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아우디 드라이브 선택트를 갖췄다. 넓고 편안한 실내, 다양한 편의장치, 인력한 승차감은 기본이다. Q5 2.0 TDI는 2000cc 터보 직분사 디젤 TDI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 177마력, 최대토크 38.8kg.m를 자랑한다.

아우디 A3



뉴욕 국제 오토쇼에서 '2014 월드카 오브 더 이어'로 선정된 모델이다. 유럽 자동차 업계 최고 권위로 인정받는 '2013 골드 스타어링 휠'에 이은 쾌거다. 아우디의 첫 번째 콤팩트 세단인 A3 세단은 LED 주간 운행등, 최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파노라마 선루프 등 첨단기술과 고급 사양을 대거 채택했다. 최고출력 150마력, 최대토크 32.7kgm 성능의 2.0 TDI 엔진을 장착했으며 듀얼 클러치방식 6단 S-트론닉 변속기를 탑재, 운전의 즐거움은 물론 1등급 복합연비 16.7km/l을 제공한다. 이다람 기자 zing@

퍼스트 클래스 스토리

14 **아우디**



아우디의 세계 최초 기록

- 1921 좌측 핸들 차량을 선보여 운전자의 보다 넓은 시야 확보
- 1923 공기역학디자인을 위한 윈드 터널 테스트 실시
- 1933 승차감과 파워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륜구동방식 채택
- 1937 자사에서 사속 400km의 벽을 돌파, 속도의 한계를 극복
- 1938 자동차 측면 충돌 테스트를 실시, 안전의 개념을 뒤바꿈
- 1980 승용차에 풀 타임 사륜구동 콰트로 상용화
- 1989 터보 직분사 디젤 엔진 TDI 개발
- 1993 철보다 가볍고 튼튼한 일체형 알루미늄 보디 ASF 개발
- 2006 디젤엔진을 장착한 레이싱카 'Audi R10 TDI' 르망 24시간 레이스 우승
- 2009 100% 순수전기 스포츠카 'e-tron' 콘셉트카 공개
- 2012 디젤 하이브리드 레이싱카 'R18 e-tron 콰트로' 르망 24시간 레이스 우승

아우디는 세계적인 명성의 프레스티지 자동차 개발 및 생산회사다. 1909년 7월 16일 창립한 아우디의 역사는 105년에 이른다. 이 회사는 '혁신적인 기술'과 '디자인'을 바탕으로 세계 자동차 산업에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 슬로건은 바로 '기술을 통한 진보(Vorsprung durch Technik)'다. 탁월한 기술과 차별화된 안정성, 진보적 디자인이라는 3가지 요소를 완벽히 조화시키며 베스트 브랜드로 자리하고 있다. 아우디는 운전자에게 최상의 주행 성능을 선사하며 드라이빙의 기쁨을 만끽하게 한다. 탑승객에게는 인체공학적 인테리어, 뛰어난 안전장치로 안락감과 안정감을 선사한다. 여기에 MMI 시스템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최첨단 편의장치로 탑승자의 만족감을 극대화한다.

◇4개의 링 '아우디 AG의 뿌리' = 아우디를 상징하는 4개의 링은 독일 삭스니 지방의 아우디(Audi), 반더러(Wanderer), 호르히(Horch), 데카베(DKW)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이들 4개 회사는 1932년 아우토 유니온 AG, 켈니츠(Auto Union AG, Chemnitz)란 회사로 합병돼 현재의 아우디 AG의 초석이 된다.

1899년 호르히를 설립했던 어거스트 호르히 박사는 1909년 호르히를 떠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이후 '듣다(Listen)'라는 의미를 가진 자신의 이름(성)을 라틴어로 번역해 'ASF'는 스틸 보디를 채용한 차량에 비해 무게는 50% 가량 가볍고, 강성은 60% 가량 높다. 아우디는 자동차의 심장인 엔진에서도 세계 최고의 위치를 놓치지 않고 있다. 아우디의 기술인 직분사 FSI 엔진은 아우디 R8 프로토타입 레이싱카에 장착돼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자동차 경주로 정평이 나 있는 르망 24시간 레이스에서 5회 우승(6회 참가)이라는 기록을 수립했다. 아우디는 또한 터보 직분사 디젤 TDI 엔진으로 디젤 엔진 부문에서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1989년 세계 최초로 승용차

“기술을 통한 진보” 슬로건... 獨 4개 회사 합병해 1909년 탄생 1937년 시속 400km 돌파·1989년 TDI 엔진 개발 車역사 주도 첨단 기술·미래 디자인·편의시설 등으로 최고의 드라이빙 선사

우디(Audi)로 사명을 바꿔 오늘날 최고급 자동차 회사를 탄생시켰다.

100년의 시간을 지나 세계에서 가장 다이내믹한 프레스티지 브랜드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아우디는 세계 자동차 시장이 급격한 침체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한 2008년, 100만 대 판매 돌파와 사상 최고의 실적을 달성하는 기쁨을 토했다. 매해 최고 실적을 갈아치우던 아우디는 2011년 한해 동안 전 세계 시장에서 130만2659대를 판매하며 127만9100대를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의 실적을 처음으로 넘어이기도 했다.

◇아우디의 힘, '기술을 통한 진보' = 아우디가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에서 성공가도를 달린 것은 누구도 할 수 없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어려운 목표에 도전했던 진보정신이 바탕이다. 일반 도로에서 400km/h 돌파(1937년), 자동차 측면 충돌 테스트(1938년), 최강의 터보 직분사 디젤 TDI 엔진 개발(1989년), 알루미늄 차체 기술 ASF(Audi Space Frame) 개발(1993년) 등이 모두 아우디가 자동차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세계 최초의 기록들이다.

특히, 1980년 선보인 풀타임 4륜 구동 콰트로(Quattro)는 최고의 4륜구동 시스템으로 인정받으며 아우디의 대표 기술로 자리잡았다.

에 적용돼 양산이 시작된 아우디의 TDI 엔진은 가솔린 엔진인지 디젤 엔진인지 구별이 안된다는 최고의 찬사를 받았다. 2006년 아우디 TDI 엔진 레이싱카의 르망 24시간 레이스 출전 우승을 시작으로 작년 디젤 하이브리드 우승까지 아우디는 2000년부터 12회 우승이라는 대 기록을 디젤엔진으로 쓰고 있다.

◇미래의 아이콘' 전 세계를 빠져들게 한 디자인 = 아우디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탁월한 디자인이다. 아우디의 새로운 패밀리룩으로 자리잡은 싱글프레임 디자인은 2004년 첫 발표 당시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아우디의 싱글프레임 디자인은 다이내믹하면서도 기쁨이 흐르는 아우디 브랜드 내면의 힘을 표현한 것으로, 정체되지 않고 항상 시대를 앞서 진보하는 아우디의 역동적인 디자인 철학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미래의 아이콘'이라는 비전으로 특유의 유선형 보디 라인과 싱글프레임 그릴 디자인을 통해 우아함, 진보성, 다이내믹함을 강조해 온 아우디는 최근에는 헤드라이트, 사이드미러, 후방라이트 등에 첨단기술이 결합된 LED를 배치해 차세대 디자인 흐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선애 기자 isa@



www.izumikorea.co.kr

男子

당당한 파워 섬세한 감각 세계적 명성

자존심을 세우다!

전기면도기의 새로운 중심, 이즈미 FR-300

- 방수기능
- 무빙헤드
- 팝업 트리머
- 충전표시

■ 전기면도기 스탠더드(FR-300) : ₩33,000원×카드 3개월 무이자
 ■ 전기면도기 프리미엄(FR-500) : ₩43,000원×카드 3개월 무이자

55년 일본 장인정신이 만든 이즈미 전기면도기가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최고의 제품을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1,000세트 한정판매!

전기면도기 스탠더드 FR-300 ₩99,000

제품특징 • 초정밀 예칭 가공 3중 면도날(made in Japan) 사용 • 방수기능으로 편리하고 위생적 물세척 사용 • 독립 교류구동으로 저진동 실현 • 천연고무 손잡이 채용으로 사용시 부드럽고 안정적 그립감 • 충전 진행상태, 완충전 표시 LED 램프 • 콧수염이나 구렛나루 면내기용 트리머 장착 • 편리한 보관을 위한 여행용 파우치

제품사양 • 왕복식 방수 면도기 • 충전용 배터리 A/C • AC 100~240 • 50/60Hz • 60분 충전 /40분 사용(전기/충전 겸용방식) • 중량 185g • 구성품 : 본체/파우치/브러시/AC아답타/사용설명서/배터리(N-MH-전지포장타입) 2개

전기면도기 프리미엄 FR-500 ₩129,000

제품특징 • 전원 스위치의 오작동 방지 Lock버튼 부착 • 독립 물로팅 3중날 시스템(센터 트리머 포함) • 방수기능으로 편리하고 위생적 물세척 사용 • 독립 교류구동으로 저진동 실현 • 천연고무 손잡이 채용으로 사용시 부드럽고 안정적 그립감 • 충전 진행상태, 완충전 표시 5단계 LED 램프 • 콧수염이나 구렛나루 면내기용 트리머 장착 • 편리한 보관을 위한 여행용 파우치

제품사양 • 왕복식 방수 면도기 • 충전용 배터리 A/C • AC 100~240 • 50/60Hz • 60분 충전 /40분 사용(전기/충전 겸용방식) • 중량 186g • 구성품 : 본체/파우치/브러시/AC아답타/사용설명서/배터리(N-MH-전지포장타입) 2개

다가용 코털 면도기 NB-12 (전기면도기 함께 구매시) ₩17,000

제품특징 • 생활 필수 기능으로 물 세척 가능 • 잡기 편한 물결형 가공 • 콤팩트 사이즈로 출장 등 외출시 최적 • 면도날 덮개로 면도날 보호 • 청소하기 편리한 솔 장착 • 약 6500rpm의 강력한 회전력 및 부드럽고 조용한 작동 • 정교한 커빙을 구현하는 일체 cutter • 피부를 상하지 않게 하는 2중 안전설계의 망구조

제품사양 • 간접식 사용식 • 15V AA 사이즈 • 130.5×28×31.8mm • 중량 52g • 작동시간 약 1개월(1일 1회 3분 사용)

24시간 무료 주문전화 080-769-9000

온라인주문 www.myseason.co.kr A/S센터 : 031-791-3983
 (주)오래들 | 대표: 최병철 | 서울 중구 정동동2가 173-1 | info@myseason.co.kr | 서울 중구-11392

개미들 또 '떨어지는 칼' 맞나

개인 순매수 상위종목 대부분 외인·기관 매도물량... '총알받이' 전략 우려

외국인과 기관이 국내 증시에서 매도 규모를 키우며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쏟아낸 물량을 개인이 받아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 대부분이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로 최근 주가가 크게 빠진데 당분간 상승 모멘텀도 부족해 또 다시 외국인과 기관의 '총알받이'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30일 코스피는 전일대비 2.98포인트(0.15%) 내린 1961.79에 장을 마쳤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822억원, 201억원어치를 동반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끈 반면 개인은 홀로 884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코스피 지수가 약세를 보인 지난 23일부터 6거래일간 개인은 꾸준히 사자에 나서

왔다. 이 기간 개인은 4670억원어치를 매수했으나 외국인은 91억을 사는데 그쳤다. 특히 외국인은 최근 3거래일간은 무려 3585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기관은 2005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문제는 개인투자자들이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 매도에 나선 종목들을 사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개인투자자들이 지난 23일부터 30일까지 1881억원어치를 사들이며 순매수 1위 종목에 이름을 올린 삼성중공업의 경우 외국인은 1414억원 규모를 팔아치웠다. 이어 개인투자자가 1104억원을 순매수한 현대중공업도 기관이 1080억원을 순매도하며 기관 순매도 상위 종목에 이름이 올랐

다. 수급 상황 악화로 주가가 약세를 보인 부분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 종목 중 일부는 향후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말 그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파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종의 경우 올해 1분기 '아닝쇼크' 수준의 실적을 기록하며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상우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올해만 놓고보면 조선업종 실적에 대한 낙관적 견해는 무리가 따른다"며 "재차 매수에 나서기엔 진폭이 약할 것이라 단기적으로는 보수적 견해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외국인 기관 순매도 종목 및 개인 순매수 종목

종목명	수량(백주)	금액(백만원)	종목명	수량(백주)	금액(백만원)
삼성전자	883	123,662	NAVER	2,023	151,394
현대중공업	5,424	108,087	삼성중공업	49,314	141,417
롯데케미칼	4,102	70,227	한화케미칼	66,538	119,954
삼성전기	6,796	45,544	현대차	3,509	81,360
삼성중공업	14,553	42,897	삼성전자	415	44,905
SK하이닉스	10,471	42,313	LG생활건강	897	43,518
SK이노베이션	3,459	42,039	SK	1,713	31,944
기아차	7,156	41,110	현대백화점	2,331	31,243
현대모비스	1,318	39,283	LG화학	1,169	30,599
신한지주	7,751	35,654	OCI	1,608	29,443
			현대모비스	1,410	41,953



자회사 TEC건설 부도설 대한전선은 주가 상승에

대한전선 자회사인 TEC건설이 어음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달 30일 부도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대한전선 주가가 휘청였다. 앞서 대한전선은 지난 달 29일 TEC건설 부도설이 알려지면서 전일 장 초반 급락했지만 낙폭을 점차 줄여가며 상승 반전에 성공, 소폭 오른세로 장을 마감했다. 주식시장에서 자회사 부도설이 퍼지면서 대한전선은 이날 거래량이 전일보다 300%나 넓게 급증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대한전선은 전일 대비 2.14% 하락한 2055원에 전일 장을 시작했다. 장 초반 주가로 낙폭(-6.19%)이 커지면서 1970원까지 떨어지며 2000원대도 무너졌다.

대한전선은 오전 11시경 TEC건설이 304억3000만원 규모의 어음부도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부도 사유에 대해 "예금부족 및 무거래이며 기발행한 어음교환 결제자금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문으로 돌던 자회사 부도설이 공시를 통해 확인되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이후 대한전선은 장중에 낙폭을 점차 줄여가며 상승 반전에 성공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TEC건설이 재무제표상 연결로 잡히지만 회계적 이슈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인호 기자 kangih@

지트리비엔티, 바이오 사업 강화

사명변경 후 40억 CB발행 양원석 대표가 30억 투자

코스닥 상장사 지트리비엔티(舊 디지털 아리아)가 바이오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이 회사는 사명 변경 이후 지난 달 28일 처음으로 전환사채(CB)를 발행, 지난 3월말 바이오 사업부 대표로 신규 선임된 양원석 대표가 30억원을 투자했다. 회사 측은 조달된 자금 중 일부를 바이오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트리비엔티는 지난 달 28일 이사회를 열고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40억원 규모의 제1회 차 사모 CB 발행을 결정했다. 사채의 표면

및 만기 이자율은 각각 3.0%, 6.0%로 사채 만기일은 오는 2017년 5월7일이다. 전환가액은 주당 3560원으로 내년 5월7일부터 전환 청구가 가능하고, 이 기간동안 바이오 사업부 대표로 신규 선임된 양원석 관련 분할 및 병합이 금지된다. 사채 발행 대상자는 양원석 대표(30억원)와 강수진씨(10억원)이다. 양원석 대표는 지난 3월28일 바이오 사업 부문 대표로 선임, 지트리비엔티는 박일·양원석 각자 대표체제로 변경됐다. 양 대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미생물학 석사 출신으로 한미약품 상무이사과 차바이오

엔디오스텍 대표를 역임했다. 회사 측은 "바이오 사업부(양원석 대표이사)와 솔루션 및 제조사업 부문(박일 대표이사) 각자 대표체제를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 지트리비엔티 관계자는 "양 대표가 전환사채에 투자한 것은 책임경영의 일환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조달된 자금 중 일부는 바이오 사업 부문에 사용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인호 기자 kangih@

기가레인 등 27곳 코스닥 히트챔피언 선정

한국거래소는 주력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세계 3위 이내인 강소기업, 기술력과 성장성을 보유한 코스닥기업 27개사를 '2014년 코스닥 히트챔피언'으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히트챔피언에 이름을 올린 기업은 기가레인, 마크로젠, 성광벤드, 솔루에타, 아이씨디, 아이에스시, 해성옵틱스 등 7개사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기술력과 성장성을 보유한 코스닥 기업을 발굴해왔다. 매년 히트챔피언은 공고→기업신청→서류심사→기업방문·CEO인터뷰→선정위

원회→최종선정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에널리스트 등이 현장평가를 통해 기업별 시장 지배력과 성장성 등을 검증하는 한편, 유관기관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결과를 사선심의 함으로써 선정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했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거래소는 이들 히트챔피언으로 선정된 기업이 코스닥시장의 신뢰성, 성장성, 안정성에 기여하여 시장 활성화를 주도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14년 연부과금 면제 등 제도적 혜택 외에 IR개회 및 기업분석 보고서 발간을 지원하고 수출입은행, 기업

코스닥 히트챔피언 신규 선정 기업 (단위: 억원, %)

업체명	주요제품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부채 비율
기가레인	휴대폰용 RF동축 케이블 조립체	941	128	111	96.4
마크로젠	유전자 및 유전체 분석 서비스	475	44	73	43.8
성광벤드	ELBOW	3,821	889	677	20.9
솔루에타	전도성 복합테이프 (Cu-Foil Tape)	1,000	233	182	37.4
아이씨디	AMOLED 제조용 HDP Etcher	810	91	72	17.9
아이에스시	Silicone Rubber Test Socket	553	197	150	22
해성옵틱스	스마트 폰 카메라용 13M 렌즈모듈	1,828	183	123	105.4

은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희진 기자 heejin@

마켓무버 양윤석 우리자산운용 헤지펀드운용팀 부장

"퀀트전략 활용한 해외 헤지펀드 주식 의존도 줄여 안정수익 낼 것"

"아시아 주식 통쇼트와 해외채권 전략이 가미된 헤지펀드를 준비 중이다. 국내외 마찬가지로 해외 퀀트전략에서도 뜻깊은 성과를 내고 있다." 양윤석 우리자산운용 헤지펀드운용팀 부장이 밝힌 올해 중점 추진 비전이다. 씨티은행과 기업은행, 한국투자공사(KIC) 등에서 채권운용팀과 퀀트전략 전문가로 활약한 그는 지난 2011년 우리자산운용으로 자리를 옮겼다. 양 부장이 운용하는 사모형 퀀트스타일 1호 펀드인 '우리뉴호라이즌 펀드'는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누적성과가 현재 7%에 이른다. 당초 연금 목표 수익률로 잡은 8%의 성과를 대부분 충족시켰다는 평가다. 올해는 한국과 홍콩, 일본 등 아시아주식 통쇼트와 해외채권 전략이 가미된 2호 펀드를 준비 중이다.



양 부장은 "액티브 펀드들은 운용할 때 섹터 에널리스트 등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퀀트 전략 헤지펀드는 데이터와 모델 튜닝만 있으면 추가 인력 투입 없이 안정적 운용을 구사할 수 있다"며 "국내 통쇼트 투자기법이 대차물량 한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퀀트를 활용한 해외 헤지펀드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일반적 통쇼트펀드는 단기 유동성을 현금이나 국공채에 넣어두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익률을 주식에만 의존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해외채권을 편입해 운용한다면 주식 의존도를 줄여 안정적인 수익 기여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 덧붙었다. 양 부장은 "시장이 안 좋아도 계속 주식에 베팅 하는 리스크 줄이고, 채권을 편입해 유연함을 발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증시 전망에 대해선 변동성은 있겠지만 제한적인 조정과 기회가 공존한다는 전망을 내놨다. 가장 큰 변수는 연준의 금리인상 여부와 중국발 리스크가 상당 부분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양 부장은 "통쇼트 헤지펀드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갖는 건 금물"이라며 "자산배분 관점에서 대체 투자자산으로 인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경아 기자 kakim@

인문학 입구에서 망설이는 그대에게, 이 책은 인문학 통행권이다

저는 인문학이 처음인데요

박홍순 지음 | 한빛비즈 | 480쪽 | 반양장본 | 값 17,000원

진짜 인문학은 우리에게 똑바로 서서 살아가는 힘을 준다. 삶에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인문학의 힘을 느껴보라!

이 책은 인문학 입구에서 망설이는 사람들을 위해 일상의 삶과 생각에서 출발했다. 인문학은 일상의 삶에 밀착해 있다. 일상과 분리된 인문학이라면 신기한 화석에 불과하다. 기원전 플라톤, 혹은 수백 년 전 근대 사상가의 글이 현재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직접 관련이 없다면 박물관에서 만나는 낯선 유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저 자신의 막대한 지식을 뽐내는 수단일 뿐이다. 인문 고전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현실에서 절실한 인문학적 사유와 다양한 문제의식을 담백 지냈기 때문이다.

『인문학책은 많다. 하지만 이렇게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책은 드물다고 말하고 싶다. 죽어 500페이지에 가까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읽는 내내 재미있었다.』 - 김햇님 ★★★★★

『인문학을 위해 쉽고 친절한 안내서라 생각한다. 이 책을 통해 인문학의 기본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 기초를 탄탄히 하면 좋겠다.』 - 스토리메니카 ★★★★★

문의: 02-325-5506

다음(daum) 최강 테크 커뮤니티, 팬들이카페 80만 회원들을 열광시킨 이야기!

돈이 모이는 생활의 법칙

핀돈을 목돈으로 만드는 소비습관 개조 프로젝트

팬들이카페 슈퍼팬 9인 지음 | 길벗 | 240쪽 | 값 13,500원

평균 월급 250만원, 그들은 어떻게 돈을 모으고 불렸을까?

기발한 절약 아이디어와 알토란같은 테크 정보로 무장한 팬들이카페의 슈퍼팬 9인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다. 안정적인 삶의 설계를 위한 '소득의 70% 저축하기' '교육비 30만원만 쓰기' '6개월 안에 1천만원 모으기'라는 구체적인 테크 목표 실천법과 '의료비 100만원 절약하는 법' '자기 당하지 않는 중고물품 거래 노하우' '단돈 1만원의 셀프 미용법' 등 공상할 수 없는 스마트 절약법이 가득하다.

열혈인바 대학생, 신용카드 중독자, 하우스푸어 신혼부부, 4년차 워킹맘, 외벌이 아빠...! 적게 벌어도 똑똑하게 모아 큰돈 만든 9인의 이야기

특별선물1 임신·출산·육아부터 의료, 창업까지 총정리 (임팩트 글리머는 정부지원금 82)

특별선물2 금 거래 수수료 면제 및 한화리조트 여행, 공연 할인 쿠폰 10종

문의: 02-330-9824

"귀찮아도 괜찮아! 게을러도 괜찮아!" 이제는 집에서 운동하는 것이 대세!

간고등어 코치 홈헬스 무작정 따라하기

여자편: 군살 빼기 남자편: 명품 복근

최성호 지음 | 길벗 | 240쪽(여자편), 308쪽(남자편) | 값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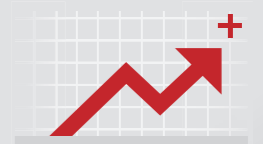
절대 실패하지 않는 하루 10분 초고속 홈 다이어트

방송인이자 국민 헬스 트레이너 간고등어 코치는 다가오는 여름이 두려워하는 여성들을 위한 '여자군살 빼기'편과 출생이 늦은 남성들을 위한 '남자 명품 복근' 편 두 권을 출간해, 돈·시간·헬스 기구 필요 없이 4주 만에 체지방을 폭풍 감량할 수 있는 운동법을 제시한다. 집에서 간고등어 코치에게 직접 1:1 PT를 받는 효과를 그대로 누려보자.

이런 분들은 이 책을 꼭 선택하세요!

- ▶ 운동을 하고 싶지만 바빠서 헬스장 갈 시간이 없다.
- ▶ 다이어트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 ▶ 1:1 개인 PT를 받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스럽다.
- ▶ 지금까지의 헬스 책은 따라하기에 어렵고 지루했다.

문의: 02-332-0931



‘신라교역’ 박준형 회장, 갑작스런 지주사 전환 왜

개인지분 현물출자 홀딩스 설립... 경영권 분쟁·상속 대비 포석인 듯

신라교역 박준형 회장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결정했다. 창업자인 고(故) 박성형 명예회장의 보유 지분 상속이 진행중인 가운데 갑작스런 지주회사 전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라교역은 전날 최대주주 박준형 회장 외 4명에서 신라홀딩스 외 6명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기존 최대주주의 현물출자를 통한 신라홀딩스 설립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주회사 설립은 박준형 회장이 자신의 보유지분 전량을 신라홀딩스에 현물출자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박 회장은 보유지분 40.18%(642만9287주)를 주당 2만 7311원, 총 1775억9000만원 규모에 현물출자에 신라홀딩스를 설립했다.

통상 지주회사 전환은 순환출자 구조와 같은 복잡한 지배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회사와 신설지주회사를 인적분할하고, 대주주가 신설지주회사의 유상증자에 현물출자해 지분율을 높이는 등 복잡한 방식을 거친다.

그러나 신라교역의 경우 국내 계열사가 4곳(신라에스지, 신라엔지니어링, 신라섬유, 비전힐스)에 불과해 지배구조가 단순하다. 또 신라홀딩스 설립에 따라 신라교역이 자회사로 편입되는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없다. 회사측도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소유조건 충족을 위해 신라홀딩스에 신라교역 주식을 현물출자했다”며 “신라교역은 지주회사인 신라홀딩스의 자회사로 편입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큰 지배구조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박 회장 개인의 지분을 넘겨 홀딩스를 설립한 것으로, 지주사를 통해 지분을 보유할 때 이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홀딩스를 통해 주요 사업회사인 신라교역을 지배해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경영권 분쟁이나 상속 등을 대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라교역은 최근 창업자인 고(故) 박성형 명예회장의 별세에 따라 지분 상속이 이뤄지고 있다. 박 명예회장의 신라교역 보유지분은 19.30%(308만7581주)로, 부인인 이숙이씨가 신라교역 지분 0.19%를 보유하고 있다. 아들 재홍씨, 딸 속희·상희·주희씨는 신라교역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지난 2004년 두 형제는 신라교역 지분을 두고 경영권 분쟁을 벌인 바 있다.

김미정 기자 mj@



삼성전자, 年 2회 공익증여... 실적따라 증여액 달라

‘인심’ 살피니 ‘긱간’ 보이네

국내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산하 공익 재단을 위해 가장 통큰 씬씀이를 보이는 곳은 어디일까. 주인공은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다. 특히 삼성전자는 공익 재단을 위해 내놓는 공익증여에 대해 특별한 법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1년 1월~2014년 4월30일) 국내 10대그룹 계열사들이 내놓은 공익증여 공시건수는 70여건이다. 가장 많은 곳은 단연 삼성전자로 전체 공익증여 중 절반 가량이 35건에 이른다.

삼성전자가 공익재단을 위해 내놓은 금액은 2011년 이후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최근에도 삼성문화재단에 410억원, 삼성복지재단에 280억원, 삼성생명공익재단에 786억원, 선교관대학에 350억원, 호암재단에 50억원 등

총 1867억원 규모의 증여를 결정했다고 공시를 무더기로 내놨다.

특이한 점은 삼성전자의 공익증여에는 조금 특별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매년 2차례에 걸쳐 공익증여 공시를 내놓는데 1분기 결산이 끝난 4월과 상반기 결산에 대한 반기보고서를 내놓은 10월이다. 게다가 지난 3년간 삼성전자가 연간 평균 1700억원가량을 공익재단에 내놓고 있다. 이는 지난 3년간 연 평균 순이익의 14조원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에 따라 시장 일부에서는 삼성전자가 연중 공시하는 공익증여금액으로 해당 회계연도 최종 실적을 예측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가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공익재단에 증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유섭 기자 hyson0214@

코스콤 신임시장 최종후보

정연대 엔쓰리소프트 대표



증권전산을 담당하는 금융공공기관인 코스콤의 신임 시장 최종후보로 정연대 엔쓰리소프트(m3soft) 대표이사(사진)가 결정됐다.

다. 다음달 8일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차기 시장이 최종 선임된다.

코스콤 시장추천위원회(사추위)는 지난달 30일 오전 총 3명의 시장 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진행, 정 대표를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

정 대표는 서강대 수학과를 출신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 시스템공학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을 두루 거친 민간 IT 전문가다. 2000년 조립형 소프트웨어 기업인 엔쓰리소프트를 창업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엔쓰리소프트는 2011~2012년 한국거래소의 새로운 거래시스템인 엑스추어플러스(Extura+) 개발 과정에 참여하기도 했다.

코스콤 시장 자리는 우주하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에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공석이다. 현재 전대근 전무이사가 시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당초 코스콤 신임 시장은 정처원 임금이 작용할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최근 불거진 ‘관료 낙하산’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가운데 최종 후보를 모드 민간 IT 전문가가 위주로 꾸려졌다.

김희진 기자 heejin@

증권그룹 일감몰아주기 실태 ⑧ 동서그룹

성제개발, 오너 3세 지분확보후 ‘일감’ 급증

동서유지, 내부거래 90%

동서그룹은 1968년 설립된 동서식품을 모태로 하는 종합식품그룹이다. 동서식품이 1970년 미국 제너럴푸즈의 인스턴트 커피 ‘맥스웰하우스’를 국내에 처음 들여와 판매한 것으로 유명하다. 동서그룹은 명예회장 아래 장남 김상현 그룹 회장이 지주회사 격인 동서유지, 차남 김석수 회장이 동서식품을 이끌고 있다. 김상현 회장은 슬하에 종화·은정·정민씨 등 2남1녀를, 김석수 회장은 동욱·현준씨 2남을 두고 있다.

동서그룹은 지난해 말 기준 9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으며 지주사격인 동서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돼 있다. 동서그룹의 계열사들 중 오너 지분이 일감몰아주기 기준치를 초과하는 곳은 작년 말 기준 성제개발 한 곳이다. 동서유지는 최근 10년래 평균 내부거래 비율이 96% 수준이나 최근 3년 사이 오너 지분이 대폭 줄면서 규제대상 기업에서 제외됐다.

성제개발은 1986년 6월 설립된 건축공사·임대업체다. 주주구조는 동서 43.09% 외에 김종희 전 동서 상무 32.98%, 동욱씨 13.00%, 현준씨 등 오너 3세가 나머지 지분 56.91%를 갖고 있다. 성제개발의 최근 10년

결산기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매출	84,089	126,720	130,844	139,400	174,822	159,378	151,919
내부거래	80,819	118,470	123,212	135,071	171,077	156,315	150,272
비율(%)	96.1	93.5	94.2	96.9	97.9	98.1	98.9

결산기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매출	12,303	12,889	11,208	13,665	18,985	13,826	14,390
내부거래	5,452	4,175	6,071	12,401	17,753	6,035	7,777
비율(%)	44.3	32.4	54.2	90.8	93.5	43.6	54.0

래 평균 내부거래 비율은 46% 수준이며 내부거래 매출 중 대부분을 동서식품과의 거래에서 올리고 있다.

성제개발은 김상현 회장 지분이 김종희 전 상무에게, 김석수 회장 지분이 두 아들에게 증여된 시기 직후 내부거래 비율이 급증했다. 2009년 54.2%로 올라간 내부거래 비율은 2010년 90.8%로 치솟았고 2011년에도 93.5%로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시기 매출 136억원, 189억원의 대부분이 동

서와 동서식품, 동서물산 등에 집중돼 발생했다.

커피포장 업체인 동서유지는 성제개발보다 내부거래 비율이 더 높다. 최근 10년래 평균 내부거래 비율이 96%에 달하며 매출의 대부분이 동서식품과의 거래에서 발생한다. 그럼에도 일감 규제 대상 기업에서는 빠져 있는데 최근 3년래 오너 지분이 급격히 줄어든 결과다.

조남호 기자 spdran@

YG엔터, 실권주 청약률 7만% ‘대박’

와이지엔터테인먼트(와이지엔터)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률이 7만%를 넘어섰다. 장기성장 전략이 일반투자자들에게 어필을 한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와이즈엔터는 실권주와 단주 4만 6435주 모집에 총 3281만2740주의 청약이 몰려 7644%의 청약률을 기록했다. 최종 발행가격은 주당 4만4600원이다. 이번 실권주는 지난달 23~24일 진행된 구주주 청약에서 발생한 물량이다.

주금 납입일은 오는 2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20일이다. 이 자금은 분사 사육 및 트레이닝 센터 신축, 해외진출 투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싸이, 빅뱅 등 소속 가수들의 해외 진출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투자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지인해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와이지엔터는 한국 뿐 아니라 미국 등 글로벌 시장을 타킷으로 음악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화장품, 의류 등의 사업도 가시화 되는 과정에 있다”며 “투자자들은 이 과정에서 장기 전략에 대한 성장성이 크다고 판단, 투자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정 기자 Imj@



I'Lavita

일'라비타

ITALIAN LIFESTYLE CONCEPT STORE

OPEN 2014.02.28(FRI)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HYUNDAI DEPARTMENT STORE
MAIN STORE · B2F · 02)547-2233

송해 선생님님이 도맡기시는 은행은?

IBK기업은행!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IBK캐피탈 IBK투자증권 IBK연금보험 IBK자산운용 IBK저축은행 IBK시스템 IBK신용정보 IBK서비스